

# MAXIM



KOREA

## ONE SUMMER DAY WITH 장미인애

**DIGITAL**  
HTC의 신무기 FLYER  
캠코더 잡는 디카  
전자출판의 딜레마

우월한 인형들의 용단폭격  
나인뮤지스

## BIKINI SPECIAL

입술을 부르는 여름 술 BEST 12  
완벽한 해변 야영을 위한 기어  
위 기사들을 빙자한 비키니 에디터 화보 대방출

MISS MAXIM 최혜연과의  
BUBBLE WASH

SEX

EX GIRLFRIEND 재탕  
섹스의 경제학  
봐도봐도 흐뭇한 영화들

출 도와주심스.

호조 마키  
범블비  
길하라

## MOTOR

궁극의 하이브리드 렉서스  
스바루와 함께 바다로!  
두 바퀴로 대륙 횡단하기

TRANSFORMER 3

ROSIE  
HUNTINGTON-  
WHITELEY

www.maximkorea.net



9 772233 427008  
ISSN 2233-4270

2011년 8월호  
정가 5,400원

# MAXIM ATTACKS ANDROID TAB



아이패드 E 매거진의 지존이었던 MAXIM이 2011년 8월, 안드로이드 탭 침략에 나선다.



MAXIM 안드로이드 매거진은 10인치 이상 태블릿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 61 LOVE 헤어진 여친과 다시 사귀는 법

떠난 남 마음도 돌리는 팔팔기름 배워보자. 원래 질척한 사랑이 더 끌리는 법.

### 78 세상의 가장 높은 것들

진짜 워너들의 키 재기.

### 80 장미인애

그녀의 소울메이트가 되고 싶었던 MAXIM은 아름다운 그녀와 로맨틱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왔다. 부럽지?

### 88 ICON: BUMBLEBEE

본지 특집 범블비가 자신을 둘러싼 소문에 대해 MAXIM에만 털어놓는 속사정. 생과의 아찔한 관계, 올대장과의 인기 대결 그리고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지구 정착기까지

### 90 섹스의 경제학

섹스에는 돈이 든다. 물렸어? 쫓겨, 기회비용을 따져주마.

### 100 KOREA TANK SPECIAL

우리나라 땅개의 주력 전자 K-1 & K-1A1

### 112 SEXIEST MOVIE SCENES

몇 번을 봐도 으쓱해지는 영화들.

### 131 HOT SUMMER, COOL DRINK

올 여름 당신의 입술이 점선해야 할 것은 술. 그리고 그녀의 입술. 이따 날벌레 말고, 웨웨

### 134 WHO'S THAT GIRL 갈하라

뜨거운 예능감으로 (뜨거운 형제들)을 뒤쫓아왔던 그녀와 잔디밭에서 퐁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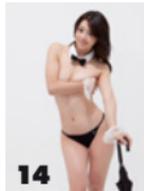
# 92

## 로지 헌팅턴

할리우드의 차기 슈퍼스타, 빅토리아 시크릿의 모델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새 여주인공 로지를 소개한다.

## + 104 나인뮤지스

치명적 매력이 넘치는  
인형의 집에 온 걸  
환영한다. 당신만의 예쁜  
인형이 된 나인뮤지스가  
당신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14



58



129



120

### 14 CIRCUS MAXIMUS

이리기도 일본, 이리기도 호츠 마키  
줄라 빠른 스포츠, 당신을 철 들게 할  
몽동이, 퇴마하기 병맛 헤어스타일  
축구선수, 미친 복근 만들기, 세계 최  
강 비보잉 그룹 진즈크루

### 28 24 HOURS TO LIVE 박재현

이름은 몰라도 얼굴은 다 아는 (서프  
라이즈)의 그 남자

### 38 RATED

김옥빈, 사랑은 스마트폰을 타고 (스  
티) 보여주는 윤정민, 최고의 공중파  
음악프로그램, MISS MAXIM 서진아

### 50 STUFF

완벽한 아웃도어 작업을 위한 기어 총  
집합, HIC FLYER, 트랜스폼머 토이  
와 볼박스, 동영상을 잘 뽑는 디카, 맥가  
이버의 시계

### 64 MOTOR

미스 MAXIM과 에디터의 색다른 세  
차 한 편! LEXUS CT200h, MAXIM의  
여름 MT와 함께 한 스바루 아웃백

### 76 DIGITAL

아이패드, 붕괴 직전의 출판산업에  
제2의 르네상스를 열어줄 것인가?  
사랑을 앞당길 안락사의 도구가 될  
것인가?

### 120 STYLE

말짱을 살리는 구두, 여름철 구두 관  
리법, 간절기 아이템 컬러 점퍼, 육  
수를 줄줄 흘리는 당신을 위한 데  
오도린트

### 136 THE MAXIM PARTY

비바람도 막을 수 없었던 MAXIM  
PARTY의 열기, 그리고 보기만 해도  
봉 뜨는 스튜어디스 파티

### 143 MAXIM INSIDER

스타 플라리이드 받기, BEAT THIS  
CAPTION, MAXIM 속 속은 선물 찾기  
그리고 에디터의 차질한 편집일기

# MAXIM

편집장 이영미  
yh@maximkorea.net

## EDITORIAL / 편집부

수석에디터 차경희 koku@maximkorea.net  
에디터 조성민 sm@maximkorea.net  
대리 김상현 psycho@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주임 김희성 alicia@maximkorea.net  
사원 송승민 jm@maximkorea.net  
사원 박한빛·누리 nu@maximkorea.net  
객원에디터 김재영 storm@maximkorea.net  
김홍석 pride-ks@maximkorea.net  
장바비 julahar1@maximkorea.net  
이소핀트 조유민 new@maximkorea.net

## DESIGN / 디자인

디자인어 주임 장미연 berrymee@maximkorea.net  
주임 이윤학 easttucut@maximkorea.net  
사원 이봉라 borra@maximkorea.net  
일러스트레이터 사원 전영준 ziroop@maximkorea.net

## STRATEGIC PLANNING / 기획 전략

이사 소상혁 so@maximkorea.net  
과장 진무빈 woobin@maximkorea.net  
과장 유승민 sm@maximkorea.net  
주임 최안영 jy@maximkorea.net

## ADVERTISEMENT MARKETING / 광고 마케팅

대리 김중국 jk@maximkorea.net  
대리 김진욱 14k@maximkorea.net  
대리 송슬피 soulmate@maximkorea.net

## WEB SERVICE / 웹

웹장 서영민 orisis@town.com

## 발행인/ 대표이사 이혜성

전무이사 김경선 이사 양지중 이사 원해진 이사 소상혁

사진 ARC STUDIO [www.arcstudio.co.kr](http://www.arcstudio.co.kr)

교열 신진경 kshin0111@daum.net

인쇄 · 원색분쇄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상지서로 12-1 인쇄인 이원순

유통 송주출판유통



발행처 (주)에이디에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49-301 MAXIM KOREA 빌딩 1~4층  
TEL. 02-323-1192 / FAX. 02-645-0193  
2011년 8월호: 정권 제8호 / 등록일자 2012년 12월 30일 / 등록번호 마보 라-00250

MAXIM KOREA는 세계 30개국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남성 월간지 MAXIM의 공식 한국어판입니다.  
MAXIM 상표의 소유자인 미국의 알파미디어 그룹은 2002년 7월 29일 미국  
대법원의 (Y Media)에 독점적 상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주) MAXIM은 대한민국 내에서 유일하게  
라이선스 계약이 아닌 MAXIM의 라이선스를 출판, 배포, 판매하고 웹사이트를 운영, 서비스를 제공할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알파미디어 그룹과 알파미디어 외에 어떠한 제3자도 MAXIM의 프  
랜차이즈를 모방할 수 없습니다. 본래 설립 근거 사본 MAXIM은 본인  
알파미디어 그룹과 (주) Media에 귀속되므로 무단 일체 열거할 수 없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JOSEPH MANGIONE

CHIEF REVENUE OFFICER

BEN MADDEN

CHIEF OPERATING OFFICER

DAVID SINCOX

## MAXIM INTERNATIONAL

INTERNATIONAL LICENSING DIRECTOR

MARIANNA GAPANOVICH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 DIGITAL ASSET MANAGER

MARIESA CONMAY

INTERNATIONAL FINANCE MANAGER

ERIK VANVOORHEES

DENNIS PUBLISHING INC.

415 Madison Avenue, 4th Floor, New York, NY10017, United States of America

## MAXIM INTERNATIONAL EDITION / EDITOR IN CHIEF

 USA JOE LEVY (CHIEF CONTENT OFFICER)

 ESPANOL-US HISPANIC ANDRÉ FÉLIX DIAZ ROJO  
Dominican Republic

 UNITED KINGDOM BEN RAWORTH  
Ireland, Australia, New Zealand

 FRANCE FRANÇOIS DE GUILLEBON  
Belgium, Switzerland, Canada Quebec

 GERMANY MIKE BLEIBTREU  
Austria, Lichtenstein, Switzerland

 CZECH REPUBLIC PAVEL VONDRAČEK  
Slovakia

 SERBIA LAZAR JOVANOVIĆ  
Montenegro, Bosnia, Herzegovina, Fryom

 TURKEY KAAAN KUSTUTAN  
Cyprus

 ITALY CARLO CROCI

 PORTUGAL PEDRO JAVALOYES

 RUSSIA SASHA MALENKOV

 ARGENTINA GERMAN PITTELLI

 BRAZIL ROMARIO OLIVEIRA

 BULGARIA HRISTO ZAPRYANOV

 GREECE GEORGE FOTINOPOULOS

 INDIA VIVEK PAREK

 INDONESIA TITAN HARINDA

 THAILAND SIRDOTE PETCHJAMRONSUK

 UKRAINE SASHA MALENKOV

국가별 담당자 연락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copyright©(2011)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ALPHA MEDIA GROUP Inc., the owner of the Dennis Publishing Inc. MAXIM is a monthly published by Dennis Publishing Inc. On Nov 21st 2009, Y Media Inc.(Korea) contracted exclusive license agreement of MAXIM magazine, a world famous men's magazine. Y Media Inc. is the sole MAXIM licensee in South Korea and has an exclusive license right to publish, distribute, and sell a monthly Korean-language MAXIM magazine. No party but Alpha Media Group Inc. and Y Media Inc. are permitted to use the MAXIM trademarks or the MAXIM logos in Korea.

광고 문의 070-4010-9041, 9043, 9046 구독 문의 02-323-1182  
기타 문의 joy@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http://twitter.com/maximkorea)  
|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



# LETTER FROM MAXIM

## 젊은 피

뜨거웠던 MAXIM의 2011년 공개채용이 마무리된 지도 한 달. 수습 에디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 세 직군에 걸쳐 무수히 많은 인재들이 MAXIM의 문을 두드렸다. 경쟁률이 110:1에 이를 정도로 경쟁은 치열했다.

MAXIM을 읽는 것도 오자라 직접 MAXIM을 만들겠다고 할 만큼 뜨거운 애정을 보여준 모든 지원자들이 깊은 감사를 드린다. 가이에 앞서 찰지 않은 공채 기간 동안 MAXIM을 향해 고귀한 열정을 보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이라는 모진 통보를 들 어야 했던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

MAXIM이 명문대도 아니고,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도, 굴지의 S조차도 아닌데 경쟁률이 세 자리 수까지 올라가는 걸 보니 청년들의 취업·인기 피부로 느껴졌다. 어쩌거나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업이야 할 MAXIM처럼 쓰디쓴 낙방의 좌절 을 안겨주는 비늘구멍 회사 중 하나가 되고 말겠다는 게 어 마음이 불편하다.

일몰일을 스게를 통해 시름을 받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버린 잡지판에서, 매거진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인색이냐 연출 없이 도 누구나 잡지사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공개채용의 취지였는데, 이놈의 공채라는 것이 이렇게나 많은 청년들에게 낙방의 아픔을 안겨주게 될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다. 내년에도 이 몫을 짓을 해야 하나 싶지만 '내년에 다시 부족한 점을 메워 지원하겠다'며 애써 힘주어 말하는 지원자들 때문이라도 공채는 계속되어야 할 듯하다.

MAXIM 빌딩에 새로운 얼굴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씩씩하고 의욕 넘치고, 어딘지 부족하고, 뭘 해도 어설플 2011년 신입사 원들이다. 힘든 일이라고 미리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MAXIM의 일일이 되기를 자처했으니 눈물이 쏙 빠지게 굴러도 불만 은 없을 테지? MAXIM의 뉴페이스들 모두 자신이 없었는 자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자리인지 잘 알고 있다. 그 럼기에 지금보다 더 멋진, 더 쓸쓸한 더 재미있는 MAXIM을 독자들에게 선사하고 말겠다는 의지로 활활 타오르고 있다. 그 리고 이 젊은 피들이 사무실 안에 뿜는 뜨거운 쿨감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선배 에디터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한 다. 매년 돌아올 정기공채를 지켜보는 것 역시 에디터들엔 정말 나위 없이 즐거운 자극을 준다. '젊은 피를 수혈한다'는 말 이 바로 이런 건가 보다.

수년간 MAXIM을 정독해 온 열혈 독자가 매의 눈으로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고, 서투른 신입의 송바가 대번에 눈에 띈지도 모른다. 부디 이갈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한다. 열정만은 우주 최고인 MAXIM의 새끼 막달들 모두 당신이 MAXIM을 읽는 이유가 되었다며 밤을 잊고 튀고 있다.

편집장

이/영/이

PS

MAXIM 전 직원이 열대 바다로 여름 합숙을 다녀왔다. 즐거운 엔티를 상상했지만 실제로는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코앞에 두고도 24시간 내내 땀방아에서 살인적인 촬영 스케줄을 소화해야만 했다. 특히할 만한 점이 있다면 MAXIM의 여자 에디터를 비롯해, 사무 직에 종사하는 여직원들까지 크고 작은 사진 촬영에서 스태프가 아닌 모델로 카메라 앞에 섰다는 거다. 참고로 직원 대부분이 20대인 MAXIM에는 웬만한 모델 뺀질 정도로 뽀뽀행방한 미모의 여성 스태프들이 상당히 많다. (냄새 나는 여드름투성이 돼지 오타쿠 노총각 소굴인 줄 알았지?) 그간 수많은 촬영 현장에서 연예인이나 모델들의 비위를 맞춰줘야 일해야 했던 그녀들의 가슴 속에 맺힌 게 많았 던 걸까? 이날만큼은 아찔한 비키니 차림도 마다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서 그간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발산했다. 가는 곳마다 촬영 현 장에 플러트 남자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바람에, 아마 그날 많은 커플과 많은 가족의 평화가 위협받았을 거다. 편집부원에서 사무 직에 이르기까지 역시 모두들 MAXIM의 피가 흐르는 여자들아! 구나! 싶었다. 이번 8월호 화보 구성구석에 숨어있는 색사만 MAXIM 어 자 스태프를 찾아보는 것도 쓸쓸한 재미가 될 거다. 사다가 세 년이던 풍질을 듣는다고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는 게 너무 자전스 럽인데... 너님들, 혹시 퇴근하고 알바 뭐냐?

# Ride Now!

오션을타라!  
여름을타라!

오션걸스와함께

## 오션월드



300m Bros의 물타사



680m 수차 물타장



2Am 워터 슬라이드



680m 자이언트 워터휠



300m 워터 슬라이드



7F 워터 슬라이드



4F 워터 슬라이드



오션월드 무료셔틀 매일 운행  
(서울-부산/대덕)

순천고속도로 타고 빠르게  
(서울-순천) 40분!

전원 용산 - 오仁역으로  
편하게!

스파빌리지 / 타워풀 / 실내 파도풀 / 익스트림리버 / 워터플레이스 / 아이 파도풀

www.vivaldipark.com 대표전화 : 1588 - 4888



고정훈  
[학생]

“주머니에  
고래  
한마리”

“시골 치고 나서  
영화를 보고 나서  
“너가 뭐고 나냐”

“지르고 싶은 것 다라리스 하이브리드 카메라”

“지하 몰트향의  
후맥주”

“TV? 어이  
탄수은다”

“오월의 소셜카메라  
신들 불 안다”

“지금 나에게 이만큼 논해도  
그리고 디블”

“이 거리에 상상이상이 나타난 것처럼”

“때는 때에일 뿐이다  
못 백원 머신 거  
피면 있어보이나?”





# Letters



스마트폰으로  
사진 보내기



## ☞ 나 MAXIM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저런 정보가 흩날리는 지대까지 보내 주시는 MAXIM 안녕하십니까. 저는 23세의 건강한 청년입니다. 얼마 전 책상에

서 공개 채용하는 글을 보고 눈이 번쩍했습니다. 도전하고 싶대 하지만 그 설명도 잠시 그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바로 군인이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저는 3개월 정도 군 생활이 남았었고, 채용 기간이 전혀 남보다 빨리 끝나더군요. 이제는 전역을 열을 앞둔 병장이지만 그때 생각만 하면 참 안타깝습니다. MAXIM에서 언제 채용 공고를 올릴지 모르지만 꼭꼭 숨어 있는 흩속의 진주를 찾아내 주시어요. 여기 MAXIM에서 일하고 싶은 인

재가 있습니다. 여신급 여인이 MAXIM에 있기에 저는 MAXIM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알뜰 MAXIM! 장병민, e-mail 사연(sjmgang217)

☞ 골 인간인이 된 기분이 어떨까? 군대에서 바깥 댄스 공연이 우수로 날인 지 오래일터. 아직도 되는 MAXIM에 입사하고픈 생각이 남았나? 안타깝게도 지금은 편집부가 만사이라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가 없다. 하지만 방법은 있다. 당신이 YG 패밀리에 홀출단식으로 차출어가 양 사장의 먹살을 부여하고 9월 표지 모델로 박봉을 섭외해 다면 없던 자리도 생겨날 거다. SM에 난입, 수만 아재비를 활약해 소녀시대 비키니 화보 촬영 기회를 받아오면 어떻게 되나? 어휴~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참 장담장담. 이번 화보도 잘 부탁드립니다.

## 담양 사제간의 우정



중학교의 정식으로 학교에 MAXIM을 전파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함에 봉인해든 7월호를 처음 성 없는 녀석이 지슴

시간에 꺼냈다가 담임 선생님께서 그대로 빼앗겼습니다. 학우들은 비탄에 빠졌고, 며칠 후 저는 MAXIM에 목 빠진 친구를 데리고 자습 시간에 교무실로 몰래 침투해 담임 선생님의 책장에서 MAXIM을 구출했습니다. 그런데 왜 MAXIM이 책장에 그대로 있었을까요? 압수한 지 열흘이 넘었는데 버리지 않고... 전익수, e-mail 사연(wjsdrtn630)

☞ MAXIM 일병이 무사히 구출됐더니 같은 반 학우들에게 침으로 기쁜 소식이었겠다. 압수당한 친구에게는 당분간 MAXIM을 금



임무 완료!

자해 침술성 있게 조련하는 걸 잊지 말도록!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MAXIM을 열을 동안 책장에 방치해둔 게 마음에 걸린다. 이미 본인인 정복을 끝낸 후 담산을 날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눈에 띄는 곳에 방치해둔 것일 테지. 담임의 기습적인 소지품 검사에 도 한 번 압수 크리를 당할지 모르니 앞으로 주의하도록. 그나저나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 펜지 그분이 MAXIM 정기구독자 명단에 있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드는데...

## ☞ 열도를 향한 기가 막힌 드리프트

얼마 전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비껴가는 걸 보고 감탄했어요. 정말 열도를 향한 (아~날~!)의 한 장면처럼 멋지게 90° 드리프트를 하더라고요. 이번 태풍을 끝으로 자긱자긱한 정미도 끝이났으면 좋겠습니다. 동남아도 아닌데 정말 비가 정하게 오네요. 이렇게 방에만 차박이었던 지난 우울증 걸러갔어요! 김일봉, e-mail 사연(Tiger8004)



안주 출고!

## ☞ 태풍의 지복한 열도 사

방은 MB의 4대 강 사할 못지않고 천원 방파제인 열도가 없었던 먼 우리나라도 태풍 때문에 어지간히 피곤했을 거다. 태풍이 지나가고 3월도 끝을 보이나 기운을 내도록! 그래도 다양한 지복사수로 정미의 환기문대에 접했던 MAXIM의 아와 촬영에는 비는커녕 해가 평





평하게 빛났던 거다. 덕분에 대형 음반사에서의 활약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고, MAXIM 스타들은 슬과 비대를 벗아서 진탕 볼 수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날에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걸 보고 모두들 "이게 칼 타이밍!" 이라고 외쳤는지 아마? 이번 촬영에서 간신히 사진은 찍어서 볼 수 있었니 살짝 뿌리워하시라. 오케이?

**☞ 누나 저예요!** 저 왔어! 난 MAXIM 애독자다. 7월 13일은 생일이었는데 미역국만 먹었다. 이런 단점 케이크도 안 사주네 생일이 생일 같지 않다. 이럴 땐 MAXIM이 최고다. MAXIM이 부모님 생일 축하도 하고요 노래도 좀 불러달라. 그리고 MAXIM 에디터 중 최고인 김희선 에디터님 이분 기사가 너무 재미있어서 꼭 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아프지 마시고 파이팅! (김희선 e-mail: seon@maxim.kr.com)

**☞ 생일 축하 노래가 듣고 싶다면 MAXIM 사무실로 찾아와라.** 노래뿐이겠냐? 수컷 형님들이 당신을 애워하고 애정이 넘치는 '생일방'도 생겨주겠다. 케이크 따워오는 비고만 될 정도도 안될 거다. 대신 이것 하나만 기억하라. 물어올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편다. 그리고 형성 씨, 이는 동생들 합력해서 독자 사연 보내라고 시키는 거 그만 두라고 했어. 안 했어?



## 사죄의 글

### 독자 사연 응모

- ▶ 우편 접수: (02-841)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 ▶ 이메일 접수: reader@maximkorea.net
- ▶ QR 코드 접수: 독자 사연 페이지의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을 달아라.
- ▶ 텔레파시 접수: 에디터에게 텔레파시를 소아라. 정 어려우면 신에 가서 불화를 올리도록. 진짜 된다.



무슨 내용이든 좋다. MAXIM은 100% 만민드다. 대신 에디터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연을 보낸 만큼 선정하여 이번 달엔 **एम가죽코팅** 제품 귀한 재물을 섬벽하게 코팅해주도록 해주고 없고, 감동이 없어도 보낸 사연은 우린 다 읽는다. 그렇지만 수컷의 빛은 몸 사진 따진 그만 비워. 부탁이다. 당신 등록 따워 보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미간에 찌는 MAXIM 에디터가 오타 자음을 기웃거리다 발목을 잡혀라라고 말했다. 이번 달부터는 오타가 발견되면 (타 자의 아귀를 불러 오항로 손을 날려버릴 거라는 일포를 놓아주겠다. 자신답던 오 에디터가 '일포 없는 민방'을 '일포 없는 민방'이라고 찍는 민방을 지칭했다. 신조어를 곧잘 쓰는 MAXIM 에디터 지난 굶어 실력이 허접한 수준은 아니다. 하지만 3월 동안 아무 일도 촉박을 받으며 케이트를 두드려다 보면 이번 봉사가 '가성'이 된다. 특히 어려운데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려겠다. 미, 미안해!



# HYDRA ENERGETIC

이드라 에너제틱 멀티액션 8

아근, 음주, 흡연, 스트레스로  
지친 피부를 위한  
에너지이징 수분 로션

지친 피부의  
모든 증상들을 한번에!

- 건조한 피부
- 어둡고 칙칙한 피부톤
- 거친 피부결
- 다크서클
- 피부 트러블



“

**8초 충전으로 24시간**  
**지속되는 피부 에너지!**

로레알파리 맨 엑스퍼트 전속모델, 영화 300의 주인공, 제라드 버틀러 Gerard Butler

”

L'ORÉAL  
PARIS  
men expert

# CIRCUS M

## 아리가토 재팬, 아리가토 호조마키

그녀의 얼굴이 낮이 익다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건강한 수컷이라면 숨 막힐 정도로 화끈한 그녀의 능글한 매력에 빠지는 건 당연지사다.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고정희  
FILM 박한빛누리 HAIR 이도우 MAKEUP 오윤기  
ASSISTANT 조유림

### 호조 마키

1974년생 호조 마키는 168cm의 큰 키, 50kg의 늘씬하고 잘빠진 몸매에 능글은 면 거러까지 갖춰 소유 소녀들이부터 콘셉트의 작품에서 뜨거운 인기를 자랑하는 AV 배우다. 현재 다이아나 프로 소속으로 왕성한 활동 중이다.

**그녀의 매력 포인트:** 큰 엉덩이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몸플렉스였는데 업계에선 칭찬의 대상!

**그녀의 추천작 BEST 3:** <유혹 여교사>

호조 마키로 이름을 바꾼 후 데뷔작

<5살의 고교 2학년>, 내 작품 중 보기도 문 새일라복 허용작

<만약, 호조 마키가 택시의 운전기사라면>

직업적인(?) 매력이 빛나는 작품

**그녀의 이상형:** 사림에 집착하지 않으며,

다정하고 배려할 줄 아는 남자.

**그녀에게 AV란:** 꿈과 희망, 즐거움을 선사

해준다. 그리고 당신의 환한 표미미를 돌려 주기도 하지(웃음)



아스토 유니온 전 멤버 임지훈의 솔로 음반 커버 촬영에 한국에 방문했다고 밝혔다.

임지훈 씨가 소속된 비트볼 뮤직의 사장님이 나의 열혈팬이라 성외에 흔쾌히 응했다. 한국은 첫 방문이었지만 즐겁게 촬영했다.

<오르간 오르가슴>이란 음반 제목처럼 '관능적인 음악'과 당신의 이미지는 찰떡궁합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관능이란 무엇인가? 관능적인 음악도 하나 추천해달라. 진정한 관능은 육체적·정신적인 교류로 얻는 좋은 기분이 아닐까? 관능적인 음악은 역시 존 콜트레인의 발라드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취미가 테니스라고 들었다. 남자 코치들이 당신의 의젍한 모습을 보면 정신 못 차리겠다.

그래서 일부러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도 있다(웃음).

날을 그대로 카메라를 대한다.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 카메라가 두렵지 않았다.

사람에게 섹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싫은가 보니 데뷔 때 긴장을 많이 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프로로서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여자로서 그리 독특한 직업은 아니다. 뭐가 가장 힘든가?

체력이 필요한 일이라 많이 힘들다. 갑음이 섞이는 길 막기 위해 촬영장에서 에어콘이나 히터도 틀지 못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정말 괴롭다.

배드러와 보타이, 슌욱 장식 모두 케이미엔벨리트 버키니 혹은 블랙 슈즈 슈츠현

# AXIMUS A Maxim View of the World



**AV가 보는 것과 달리 연기가 까다롭다고 들었다.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나?**

AV 역시 대본과 대사가 있고, 역할도 매회 달라서 연기력이 필수다. TV 드라마를 보면서 다양한 인물의 역할을 가상으로 연기해보고 한다.

**남자 배우와의 궁합이 궁금하다. 촬영이 끝나면 말을 거는 경우도 거의 없다고 들었다.**

바쁘고 개인 시간이 없어서 촬영이 끝나면 각자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거나 즐기느라 정신없다웃음).

**종마 같은 남자 배우와 작업하다 보면 보통 남자는 성에 차지도 않겠다.**

프르는 프로의 일반인은 일반인만의 매력에 있으니까 괜찮다.

**일반인이 출연하는 작품은 레알 '일반인'이 출연하는 건가?**

보통은 프로 남자 배우가 출연하지만 일반인이 출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렇다면 다음 작품은 나와 함께 작업하자. 아직 사세 노릇은 문제없다.**

알았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함께 촬영 하자웃음).

**마지막 질문이다. 그럼 언제까지 활동할 생각인가?**

진짜 숙녀가 될 때까지! 아직은 '미숙녀(美熟女)'라고 불리고 있다.

**알겠다. 그전까지 일본에 갈 테니 들어서 합이 때! 맞는 멋진 작품 한번만 들어보지요!**

화끈한 촬영장  
엿보기





얇고 가볍다!

# 대세는 elips™

또 하나의 담배, 전자담배 OVALE elips™

연기는 많고 냄새는 없다... 갖고 싶은 초미니 사이즈 OVALE elips™



OVALE KOREA

[www.ovalekorea.com](http://www.ovalekorea.com)

경고: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흡연과 유사한 니코틴과 타르 함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며, 심장병, 당뇨병, 임신 합병증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함량: H: 10mg, M: 11mg, L: 6mg

# 사랑의 매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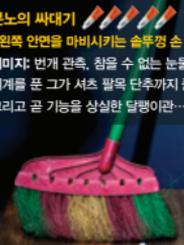
나이 먹고도 정신 못 차리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  
벌써부터 손바닥이 굳건해질까?

BY 학원빛누리 PHOTOGRAPH BY ARC STUDIO

## 본노의 싸대기

| 왼쪽 안면을 마비시키는 슬투정 손 |

데미자: 빈개 관측, 참을 수 없는 눈을 시계를 끈 그가 서초 팔목 단추까지 뚫었다. 그리고 곧 기능을 상실한 달팽이만...



= 고통 지수

## 빗자루

| 500년 전통의 똥동이 종갓집 |

데미자: 상처보다 덜리지 않는 먼지 자국

청소가 발명되면서 이용률이 감소했지만 선조부터 때려 온 역사와 전통의 영원한 스테디셀러 "자배문-먼지마개"

## 자

| 피타고라스도 생각 못한 진짜 용도 |

데미자: 고리뼈까지 타들어가는 불쌍

넌은 면으로 때려준다면 감자덕지다. 세운 날로 손가락을 내려놓을 땀 구멍에 개거름 쓰니가 일어날지나.

## 봉걸레 자루

| 매 같은 선생님의 분노 |

데미자: 고리뼈까지 타들어가는 불쌍기 걸레질이 더럽게 아픈 녀석. 선생님 손에 이놈이 들켰다 먼 최소 10대 이상은 맛을 일어냈지?



## 가슴만 들업다 눌러주세요

가슴을 보거나 만지는 것만 할 줄 아는 당신. 집중 20분만 심폐소생술이 필요했다. 기도를 열고 인공호흡을 하는 과정이 생뿔되고 양손을 모아 5cm 강이로 가슴을 계속 압박하면 된다. 입맞춤은 생략하고 곧장 상위 포인트를 공략하러나. 어찌 풀지 아니한가?



## 1,957,123---1,957,124---1,957,125---

활활타는 관중이 차를 마시며 고교레게 경기를 관람할 때. 지난 US 오픈 테니스 대회 관중석에선 한 남자와 노년 카풀이 몸싸움을 벌였다. 그 직후 영상 조회수유튜브는 100만이 넘는다. 나뭇이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김승준 하이리프트 명승보 조차수가 50배는 더 많대.

## 교원은 바닥으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는 말은 이제 사전에서나  
찾아야 하나?



## 제미로 시작된 생희롱

경남의 한 중학교 여교사 A씨는 어느 날 똥지 뒤가 구려 고개를 돌렸다. 한 남학생이 자나갈 때마다 영영이를 만지는 게 아닌가. 왜 그랬냐는 질문에 학생은 "처음엔 제미로 했는데, 원고 안 해서 계속 만졌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 교무실 오보 파이터즈

울산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 중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B군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B군은 단숨에 교무실로 쳐들어와 휴대폰을 돌려달라며 사자후를 질렀고 이어 자신을 알리는 교사 C씨에게 덤프시름을 날려 일곱 배에 급이 가는 등 전자 8주의 중상을 입었다.

## 조속한 중립의 단체 난동

사이버수사대가 너무 보고 싶었던 한 학생이 고이 모셔왔던 4천 원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다. 2006년 강남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 촬영한 이 영상은 "선생님 초경은 언제 처음했나요?" "첫 경명은 고등학교 때 했나요?" 라는 학생들의 질문이 담겨 있다. 할 말을 잃은 교사 앞에서, 학생들은 핵심을 두드려야 "초경", "첫 경명"을 외쳤다.

**FX**  
남자의 모든것

# MONEY IN THE BANK



FX채널  
찾아보고  
과워움을 받기



**WWE Monthly Special**  
**머니인더뱅크**  
8월 6일(토) 밤 10시

tcast



[www.fxchannel.co.kr](http://www.fxchannel.co.kr)  
Copyright FXChannel Corp.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 진짜 남자채널



# 축구선수 병맛 헤어스타일 TOP 5

최악의 헤어스타일을 가진 녀석만 5명 추려봤다. 축구 실력과 무관한 랭킹이니 언급된 선수의 팬은 괜히 뒷목 잡지 말자. 오케이? BY 김형민



**병맛 5위** **앤디 캐럴 / 리버풀**  
꽃이 남도 아닌 주제에 병맛 넘치는 치렁치렁 긴 머리는 어쩔 것이며, 병맛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헤어밴드는 또 어쩔 것인가! 네놈이 그라운드에서 불을 차른 상대 선수를 고치고 싶어 언달 난 차진 캐럴 티라 보일지도 모른다. 말걸기 헤어스타일은 정말 답이 안 나온다. 딱치고 강박호 머리로 고고! 백에는 더 멋있어질 거다.



**병맛 4위** **바리러 사나 / 아스널**  
머리에 총총히 날은 브리지는 나쁘지 않다. 문제는 레계 피아와 브리지의 조합이 엉망진창이라 거다. 게다가 극단적인 가르마는 중년남의 28 헤어스타일을 떠오르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조금씩 길어지는 묘한 길이의 머리카락이 오작한 가발을 쓴 듯한 착각에 빠지게 한다는 거다. 부디 레계 마리와 가르마는 상극이란 사실을 명심하도록!



**병맛 3위** **바스 새비지 / 대전셀&레드브리지**  
스파이더맨 덕후 인종인가? 거미줄의 디테일만큼은 끝내준다. 하지만 경기장 어디서든 눈에 확실히 띄니 상대팀 선수가 네놈을 놓칠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스타일을 위해 축구 성적도 포기할 각오라면 굳이 말리진 않았다. 차라리 다음 헤어스타일의 주인공은 '베드맨'이 어떨까? 요즘 데시는 '다크나이트'니까.



**병맛 2위** **알렉스 송 / 아스널**  
축구의 금붕어 사람이 지독한 건 알았지만 그걸 머리까지 소화시킬 줄은 정말 몰랐다. 이왕 염색 할 거면엔 눈썹까지 금빛으로 물들여 언박힌 짱맛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2% 아쉬울 따름이다. 머리 전체가 금발 미녀의 은밀한 거기 탈처럼 보이니 이를 어쩔... 게다가 이놈의 금발 때문에 나이는 짐작도 못하겠다. 이 자식 실마 이걸 노린 건가? 그럼 천천히?



**병맛 1위** **타리코 옌스 / 나이지리아(은퇴)**  
경기장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머리를 다듬었다는 게 유머. 당장이라도 머리에서 니우가 자랄 기세다. 그의 포스트 모던한 헤어스타일은 허니만올 전 세계 축구팬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으니 여한은 없을 거다.

## 병신 같지만 멋있어

아름에 관한 한 세상 누구보다 열린 생각을 자랑하는 열도 원승이의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보자. 병신 같지만 정말 멋있어지 않나?



세계적인 아동 사이트를 만들겠다는 '메니스북'을 오픈한 열도 원승이가 등장했다. 전 세계의 수컷이 아동을 대상으로 단결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는 놀이 사이트란 약속했던 영성은 아직 유효하지 않았다. 하지만 불꽃이 기운이 충만한 수컷들은 이곳을 미친 듯 방문하기 시작했다. 형님 홈페이지에도 팔로잉을 맺은 사람이 1,400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수컷에게 아동 축복을 내리준 김보좌가 한재했다면, 이런 허접한 열도 원승이 대신 소셜 네트워크 붐을 타고 전 세계 수컷의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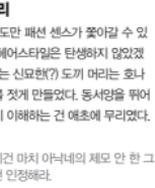
## 레전드라고 다를 건 없었다. 아니 더 심했다.

**박지성의 파머리**  
월드 클래스로 거듭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히어로 박지성도 이런 속삭이는 헤어스타일(?)을 선보일 때가 있었다. <신기생전>의 신물인 임혁 선생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멘트가 떠오르는 건 왜일까?



▶ MAXIM SAYS  
MAXIM은 아직 알겠다. 실마 박지성이 내는 미용실 원장이 박지성의 숨은 안티였을 줄이야.

**홍나우우의 도끼 머리**  
축구 재능의 100분의 1 정도만 패션 센스가 쏠라갈 수 있었다면 이런 열광스러운 헤어스타일은 탄생하지 않았겠지. 창피조각을 연상케 하는 신묘한(?) 도끼 머리는 홍나우우의 열혈팬조차 고개를 갸웃 만들었다. 동사장을 뛰어 넘는 헤어스타일만 대중이 이해하는 건 애초에 무리였다.



▶ MAXIM SAYS  
총계 말해 도끼 머리지. 이미 머지 아네네의 제오 안 한 그 곳과 더 닮았다. 인정할 건 인정해라.



**무명 재료를 휘두를 시간이 왔다**  
25년 역사를 자랑하는 에어리터 세계 챔피언십이 오는 8월 24일 런던에서 열린다. 가차 차는 흥행을 가장 잘 내는 시합을 뽑는 이벤트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계 평화를 지향한다고. 최우정기자지지 간에 말이다.



**도도한 로스팅, 음감이 1조 원?**  
이로다 로스팅은 콘도, 로스팅용 밀도까지 나오겠다! 얼마 전 1조 원에 로스팅을 담기려는 디즈니의 재산을 바로로 제작사가 거절했다. 보도가 나쁘니 디즈니는 '사실 무언가 비밀했다. 대안으로 원고를 하다 이 소서를 들은 사람들이 각했다는 루머'... '초능력'에도 주의해야!

그녀에게 **그리스**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  
**그리스**로 **연애의 승부**를 걸다!



**20% 할인**

강남, 강동, 서초주민  
및 직장인

단 한 순간이라도 지루하다면 그리스가 아니다!

**No.1 뮤지컬 그리스**

**2011.6.30~8.28 우리금융아트홀**  
(5호선 올림픽공원역)

스캔하면  
티켓이!





# 귀신 쫓는 법

이유 없이 몸이 아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어? 돌아간신 증조할아버지가 자주 어른거려? 환~이, 아젠 MAXMI로 되아술까지 알려줘야 하나!

BY 김희정 ILLUSTRATIONS BY 정은문

# 21



단권 맥두길 박사는 1907년 발표한 논문에서 영혼의 무게를 2g이라고 주장했다. 임종 환자 6명의 몸무게를 측정했는데니 각각 생전 체중보다 2g이 더 줄어든 것. 그는 게 10리에게도 같은 사실을 봤는데. 그는 죽은 후에든 몸무게가 줄어든지 않았다. 맥두길 박사는 "개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한 변명을 했다.



별 제!

## 1. 먹음 걸로 달래라

귀신에게 밥을 줘라. 불교에서는 사람 몸에 붙어 있는 귀신을 떼어낼 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불교 경문을 읽어주는 '구병사식'을 치른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말씀 들었으니 썩 물러가라는 일종의 협박이다. 역시 세상에 공짜 따위는 없대! 단, 이 의식을 행할 때 주위를 어두컴컴하게 해야 한다고 하니 반드시 불을 꺼라. 아 스타... 우설계...



이제 가위에 눌리지 않아!

## 2. 채식만이 살 길이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화살나무는 헛소리를 하고 가위에 눌리는 것을 낫게 하며 뱀속에 있는 벌레를 죽이는 효능이 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 영혼은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는 데 화살나무를 많이 사용했다. 밤마다 예쁘지도 않은 처녀 귀신이 당신을 괴롭힌다면 뱀속 기생충도 죽일 겸 화살나무 잎으로 나물을 무쳐 먹거나 차를 달여 마셔라. 얼굴도 웃성긴 게



애기 몇 살? 어디서 그렇게 이른 머리띠를 쓰어~

## 3. 개념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라

무당이 괜히 반말을 짝씩 내뱉는 게 아니다. 무당이 인간 혹은 인간의 몸에 깃든 귀신에게 하는 말을 '공수'라고 하는데 공수를 내리는 순간 인물은 신과 동급이 되어 망태할아 버지든 홍콩할아 귀신이든 이렇스하 지 않고 당연히 '해라세'를 사용해야 귀신이 풀어서 도망간다. 먹음 걸로 어르고 달래도 안 되면 아예 신을 몸에 붙이려면 척하고 욕박치르자. 딸!!!



## 4. 복숭아를 집어 던져라

복숭아나무는 민간신앙에서 버럭맞은 대추나무 가지와 더불어 잡귀를 쫓아내는 힘을 지닌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나뭇가지를 꺾어 귀신 들린 사람을 때리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다. 잡귀와 함께 초상신까지 쫓아낼까 봐 복숭아 열매를 제사에 안 올릴 정도였으니 이젠 뭐 리코더, 단소 따위도 디스하고 남을 최고의 최초리, 맛땀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 거야.



오야~ 불이네~

## 5. Be the Reds!

염기염리로 이루어진 몸속 존재가 아직도 당신 곁을 맴돌고 있다면 붉은색으로 승부수를 던져라. 붉은색은 양기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로부터 붉은색에는 귀신이 붙지 못한다고 여겼다. 구병사식 마지막에 밥을 던지거나 굶이 끝난 후 햇볕을 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귀야! 차 마그린 건 못하겠고 잘 때 붉은 약 마티초를 입고 자면 최소신 가위는 안 놀리겠지?



### A형 글욕 1

할액형 이야기가 다 뻘은 아가 본다. 서울이생원생이 환자 약 1만 1천 명의 할액형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는데, A형은 위암과 류마티스관절염, 관상동맥질환, 당뇨병, 당뇨병, B형은 십이지장궤양, AB형은 패혈증이 자주 발병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 A형 글욕 2

삼지저 할액형에 따라 수명이 다르다는 보고도 있다. 미국인 약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A형은 평균수명이 68.9세인 데 비해, AB형은 69.5세, B형은 70.2세, O형은 66.7개로 분석됐다. A형은 병도 많이, 죽기도 빨리 죽으라는 거야, 어요?

근육질이면 뭐해?

옥의 티는  
좀 지우고 살자!!!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기 위해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라.

원: 김진욱 ILLUSTRATION: 원영호



“육덕진 저의  
과거를 지워주세요~!”

가슴 없애려  
가기



### 진정한 남자로 거듭나는 길!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수술을 받는 이유

실루엣 성형외과의 윤상엽 원장은 여유증 전문 센터를 별도로 운영. 환자는 수술 비용 이외에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수술 후 여유증이 재발하더라도 100% 무료로 재수술이 가능하다. 상담 예약 시 초음파 검사 무료인 것도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 최소 절개 방식과 최다 수술 케이스

실루엣 성형외과는 국내 3,500명의 최다 수술 케이스로 풍부한 '시술 경험'을 갖추고 있다. 최첨단 의료 방식을 도입해 3mm의 작은 구멍만으로 시술하여 너저분한 실 대신 인체용 붕드를 사용해 수술 부위가 깨끗하다. 또 수술 후 사귀기 가능하기 때문에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다.

####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라!

여름! 해수욕장 수영장이 두려운가? 옷을 입어도 가슴 때문에 옷발이 살지 않는가? 그렇다면 상담을 받아보자. 실루엣 성형외과는 입원 없이 필요 없이 당일 수술, 당일 치료가 가능하다. 간단하고 안전한 여유증 수술!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실루엣 여유증 센터에서 간편하게 수술받고 자신감을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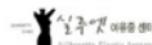
### BEFORE & AFTER



윤상엽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전문 분야: 가슴 성형,  
여유증, 팔뚝 유두,  
유두 축소, 복부 성형

- 현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외래교수
- 현 실루엣 성형외과 대표 원장
- 서울아산병원 성형외과 전문의
- 서울아산병원 유방클리닉 임상강사 역임
- 분당 수도병원 성형외과 과장 역임
- 대한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 정회원
- 국제미용성형외과학회(SAPOS) 회원
- 성형외과학회 유방연구회 회원



<http://www.gynecomastia.co.kr>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92-15 실루엣  
빌딩 4, 5, 6층 실루엣 성형외과 [여유증 센터]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100m 앞  
TEL. 02-3443-1180 / 02-3443-1280

# MAXIM FITNESS CLASS



걸모습이 그럴 듯해지는 건 기본이요, 여자를 딱딱 신나게 치며 오래오래 살고 싶은 남자를 위한 친철 피트니스 가이드가 요기 있네!

ILLUSTRATIONS BY BROWN BIR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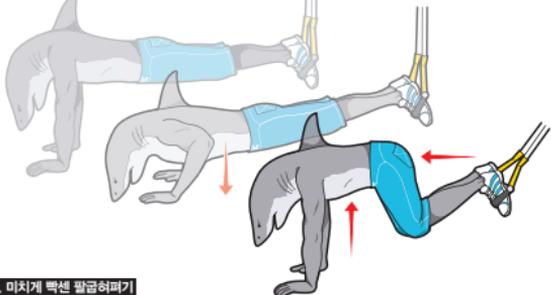
## 체중관의 트레이너로서 변신하라!

### 그전에 운동에 쓸 밴드부터 하나 챙겨야.

개인 복근운동 트레이너로 로디 예이츠 형님이 당시에 **TRX 밴드**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 3가지를 소개한다. 딱치고 따라 해라. 쓸데없는 고민은 지금껏 충분히 했잖아?

#### TRX 운동이란?

네이비십이 너무나 훌륭하게 했던 운동을 일반인 버전으로 간파시켰다. 어디서든 고강도 근력 운동 가능



#### 1. 미치게 뱀신 팔굽혀펴기

땅에서 30cm 정도 높이에 압박 밴드를 고정시켜라. 그리고 두 발을 밴드의 행들에 끈 채로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해라. 당연한 발은 공중에 떠 있어서 힘들겠지. 이때 등은 평평하게 어는 아래로 내

린 적절한 자세로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며 팔굽혀펴기를 한다. 팔굽혀펴기 후 무릎을 가슴 방향으로 끌어당겼다가 처음 자세로 되돌아가는 걸 잊지 말 것.



#### 2. 밴드를 사용한 개굴발 스쿼트

스쿼트 동작처럼 포크러 앉았을 때 팔이 꼭 짚지 정도의 간격을 유지한 채 밴드의 행들을 잡는다. 이때 한쪽 다리만 바티는데 나머지 다리는 서 있는 다리의 바깥쪽으로 뻗는다. 무릎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리가 완전히 피쳐야 한다. 이 동작을 할 때 그곳에 치질이 있으면 발랄할 테니 자신이 치질과 한 몸인지를 반드시 체크할 것

#### 3. 첫 먹던 힘 다해 당기기

두 개의 행들을 한손에 잡고 몸은 낮게 기울인다. 밴드를 잡은 발의 반대쪽으로 몸을 돌림과 동시에 나머지 팔을 땅 쪽으로 쭉 뻗어 T자로 만든다. 잡고 있는 행들을 길바닥 쪽으로 당기고, 돌아갈 땐 몸을 뒤쪽으로 틀어주는데 이때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걸 잊지 말자.

트레이너는 왜 소리를 지를까?  
당신이 못 생각서 그런 건 아닐 거다.  
흥, 그럴 거야.



동네 체육관에 가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트레이너가 한 명쯤은 있을 거다. 이제 그들에게 관대해져라. 스포츠 심리학자 사본 사벤이 말하길 "트레이너는 자신이 훈련받은 방법대로 가르친다. 그렇게 해야 운동 효과가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고향치는 트레이너가 운동에 더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과도 있다"며 "아마 고향을 치는 당신의 트레이너는 정말 외롭고 학대당한 아이였을 거다" 라고 덧붙인다. 그러나 시그리온 트레이너에겐 최대 한 친절하게 응대해라. "그래, 우리 귀여운 트레이너. 우후우후~"라고 말하며 공기를 맑이 맑이 두드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고.

## FOOD FIGHT

고소한 피스타치오와 데글라이의 원료 아가베 시럽의 맛.

#### GOOD! > 피스타치오

피스타치오는 먹을할 거다. 고질로 리라고 사람들의 외면을 받지만 정작 이놈을 49개 품종 중에서도 당산분이 양이 많은 건 고작 100칼로리다. 엔지니어 먹는 걸로는 당산치가 급속도로 느는 일 따윈 없다.



#### BAD! > 아가베 시럽

유기농에 환장하는(=중 사는) 아주어 니들이 설탕과 꿀 대신 찾는 게 아가베 시럽이다. 아가베 산안정제로 만들었는데, 설탕보다 당분하지만 할당량상 자수는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하지만 시럽의 프락투오스 성분은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고, 나쁜 지방 함량을 늘리며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춘다. 심장과 간에 잠재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 과다 섭취는 금물이다.



#### 거시기 비상! 거시기 비상!

교포에서 어떠한 형생제도 듣지 않은 슈퍼버그 임질균이 발견됐다. 이를 발견한 우네모 박사는 "일본은 원래 치료제에 내성이 강한 여러 변종 임질균이 최초로 발견돼 세계에 확산시킨 발원지"라 매달릴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제가 내구성은 역시 최고



#### 당분만은 혼돈의 커코스

7월 29일부터 도료명과 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새 주조 바뀐다. 즉 MAXIM 주스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57길 22'로 바뀐다는 거다. 2014년까지는 두 주조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라. 그럼에도 한 번 신의 군버니를 꼭 읽지 마세요 새 주조가 약간되겠지. 아~ 아니냐?



MEN'S  
CLASSIC

남자의 외모는 경쟁력,

그 시작은 **MEN'S CLASSIC**



MEN'S  
CLASSIC  
화장품 받기



· Double Effect BB Cream 효능·효과



자외선 차단 SPF40 PA++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UV A/B 동시 차단은 기본,  
SPF40 PA++의 든든함까지



화이트닝 효과  
[미백 기능성 화장품]  
어둡고 칙칙한 피부를  
밝고 화사하게



트러블 방지  
미순토 추출물이 트러블로  
지극방은 피부를 편안하게



세뱃 컨트롤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력과  
피지 조절 기능으로  
깨끗한 피부 유지

# 세계최강 R-boy JINJO VS MAXIM

체육 시간에 나름 운동하곤 존 조였던 에디터가 비보이팀 도장 개기에 나섰다.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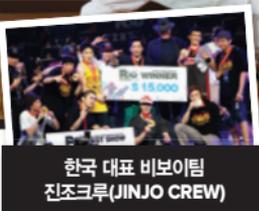
By 박원우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ILLUSTRATIONS 원형준  
MODEL Skim, Wing, F.E, Fieta, Vero, Stony of JINJO CREW

화끈하다!  
비보이 대회



비보이 배틀 심사 항목! 그냥 잘 들리면 높은 점수 아님?

기본기 (Foundation)	독창성 (Originality)	역동성 (Dynamic)	완성도 (Execution)	전략 (Battle)
음악의 박자에 맞춰 자신 있게 춤 추는가	얼마나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퍼포먼스 를 펼치는가	동작이 큰가 어려운 기술을 펼쳤는가	군더더기 없이 깔끔 하게 기술을 마무리 했는가	상대팀이 사용한 고유 의 기술을 알고리즘을 재치 있게 반격했는가



한국 대표 비보이팀  
진조크루(JINJO CREW)

세계 대회에서 침 좀 뜯는다?

7월 2일, 세계 5대 비보이 대회 중 하나인 '2011 R-16 KOREA'가 서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다. 세계 랭킹 16위까지의 비보이들이 출전해 비보이 올림픽이라 불리는 이 큰 판에서 진조크루는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다. 비보이 대회도 복싱처럼 챔피언의 자리는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데 진조크루가 작년 R-16 챔피언 디펜딩 자격으로 출전. 당당하게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근래 몇 년간 '배틀 오브 더 이어', '레드불 비시 얼', 'R-16' 등 공격적 직한 세계 비보이 대회를 갈아 잡으면서 대한민국 이 비보이 강국임을 다시 한 번 세계에 알린 진조크루. 그들이 올 10월에 영국에서 열릴 'UK 비보이 챔피언십'에서 우승한다면 세계 메이저 대회를 최다 석권한 세계 최초의 팀이 된다. 어, 멋쟁



남자 믿은 남자가 아는 비보이

3년간 아내와 처형 명의로 채팅 사이트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340여 명의 남성에게서 6,400여 만 원쯤 뜯어낸 남자가 잡혔다. 유종민 30 여성인데 밧을 대신 잡아주면 같이 살아주겠다고 뺨을 쳤고, 두 학 학생의 조연대로 "여자를 말리라고 지위를 하는 게 낫습니다."



번개는 남자를 사랑해

번개는 여자보다 남자를 칠 가능성이 6배 더 높다. 남자는 번개 맞을 가능성이 200만 분의 10지만 여자는 1,200만 분의 1로, 6배도 맞을 확률보다 낫다. 이유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촉촉해서고 한다. 뇌유를 동반한 돌풍 시야의 활동은 번개로 쓸 여인을 구비하.



# Got MAXIM?



경고: ①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앱스토어에서만 가능합니다. MAXIM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은 아니어도 내 가족, 이웃까지도 물리게 합니다. 아이폰/아이패드용 MAXIM에는 중독성 물질인 촬영영상, 미공개컷, 독한농담, 우수암컷, 때깔기계, 교미사실, 독점비밀, 거친수컷, 패인게임, 총질잡질, 프로운동, 새근차량, 오프하이, 만취음료가 많이 들어있어서 국내 유료 아이폰/아이패드 매거진 중 매출순위가 부동의 1위인가 봅니다.



몸물기 비보잉은 워낙 거친 운동이니 몸을 충분히 풀지 않고 덩달다가는 스티븐 호킹이 될 수 있다. 진동 황체어로 흥난보다 건조고 싶지 않으면 춤추기 전에 몸을 꼭꼭 핏을 것



**기술 배우기** | 진즈코루에게 한 수 배우볼까?

## 토마스 Thomas



1. 다리를 벌려 바닥에 짚은 손과 큰 삼각형을 만든다.

2. 뒤에 있던 발을 차면서 앞에 있는 발을 몸의 1시 방향으로 높게 찬다.

3. 원심력을 이용해 높게 뜬다. 다리를 찢어주면 훨씬 쉽다.

4. 팔 힘이 받쳐주고 균형만 제대로 잡는다면 이런 도발도 가능하다. 컴 연

## 나인틴 Nineteen



1. 회전하는 쪽으로 몸을 돌면서 서 있을 때 밟고 있었던 원발 위치에 오른손을 짚는다.

2. 오른쪽 다리를 차며 물구나무를 선다는 느낌으로 왼손을 짚는다.

3. 중심을 잡고 다리를 모아 꼬아주면 회전에 가속이 붙는다. 휘리락~!



• 손바닥 전체가 아닌 이 부분을 바닥에 짚는다고 생각하자. 님들 짚는 건 잘하지 않음?

## 한국 비보잉의 시작과 현재

“한국=비보이” 수학의 정석에도 있지 않음?



80년대 중반 흑인 연세가 나오는 (솔트레이크) 형님



대한민국 춤꾼들, 이태원으로 집합 프리덤 안락



1997년 익스프레스션 걸싱 비보이 댄서 용어 확립



2001년 국가 대표 비보이팀 바주얼 쇼크 결성



현재 전 세계 비보이 대회를 제패하는 게 우의 휘이

## 댄서의 손집

춤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의 영복을 읽는다.



### 요즘 잘나가는 춤

93년 부산, A씨는 친구 B씨와 과일을 안주 삼아 정중 한잔의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뒤늦게 합류한 C씨는 음악을 틀고 '요즘 잘나가는 춤'이라며 요상한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를 보기가 거북했던 A씨가 C씨를 제지하면서 말았고 C씨는 상위에 얽어지면서 올려놓았던 과도에 가슴을 찔러 사망했다.

### 죽여주는 클럽의 열기

황기리의 잘나가는 나이트클럽. 그 날따라 어쩌나 장사가 잘됐는지 1천 명이 수용 가능한 클럽에 5천 명이 쭈서 들어갔다. 춤은커녕 서 있기도 차 힘든 공간에서 급기야 싸움이 벌어졌고, 김지스라는 소동에 클럽을 빠져나오던 사람들이 걸려 3명이 입사했다. 부모님이 나이트클럽 못 가게 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지?



### 춤은 거실에서

맨체스터에 사는 메간 윌리엄스는 자신의 침실을 방방 뛰어들며 레디 가가의 춤을 연습했다. 교복 끈이 침대 아래 걸린 줄도 모르고 한탄한 춤사위를 펼치던 그녀는 침대 밑으로 떨어졌고 침상 끝에 걸려 있던 교복 끈이 그녀를 교수형시켰다.

### 원박하지 못했던 대담 컨트롤

절도범 사이에는 '범행 현장에 대변을 누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다. 대변 검사는 대체로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 한 강도 밖 모 씨는 하필 혈변을 보는 바람에 DNA 감정으로 달미를 잡았다. 그날 따라 도가 피를 토하지 아찌 않았겠는가



### 대변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한 남성이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했다. 아버지가 속옷에 있는 대변을 보자 갑자기 화가 나 이 깊은 짓을 저질렀다고. 늙은 아버 형문에서 황금편이 아니라 황금알이라도 나오길 바란 건가? 그렇다고 개공민도 못한 짓을 저지르네!

# 남자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BY 김진욱

롯데 세우러  
가기



## 여자는 눈, 남자는 코!

사람을 만날 때, 남성은 여성의 눈을 여성은 남성의 코를 보는 경향이 높다. 남자 배우 중에서도 생까툼은 없어도 코가 낮거나 틀림코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코는 곧 스타마나를 상징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현실, 그래서 코성형을 하는 남성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는 자연지 코성형클리닉에 의뢰해 고인 많던 박 군의 틀림코를 뜯어고치기로 했다.

### • 박 군의 틀림코 성형 체험기

#### 자꾸 빗물이 코로 들어와요!!!

틀림코는 코끝이 위로 들려 있어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과도하게 보이는 것을 말한다. 비가 오면 코로 빗물이 들어온다는 농담을 들어봤는가? 박 군은 비오는 날 우산이 없으면 외출 따윈 하지 못 했다. 또 관상학적으로 틀림코는 재물이 없는 상, 자칫 촌스럽고 능력 없어 보인다. 그래서인지 박 군도 취업이 힘들고 돈도 모으지 않았단다. 또 남자가 보통 여자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코가 조금만 들려 있어도 여성은 상대 남성을 심한 틀림코로 보게 마련. 그래서 틀림코를 가진 박 군 또한 외외의 콤플렉스를 가지게 되고 일과 사랑에 심각한 지장을 받았다.

#### 틀림코 수술 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다.

박 군은 오랜 고민 끝에 코를 다정기로 마음먹고 성형외과를 찾아다녔다. 알아본 결과 코 수술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바로 틀림코 수술. 잘못하다간 흉터나 타가 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우흥대 비개방으로 틀림코를 교정하고 있는 자연지 코성형 클리닉 성용해 원장을 만나 수술을 통해 완벽한 변신을 하게 되었다. 곧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자신감이 붙어 사회생활도 잘 풀렸고 곧바로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겼다. 예전엔 미팅에 나가지도 폭탄 취급을 받던 그가 이제는 킥카 훈남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 박 군이 받은 틀림코 수술은 어디서 해염???

### 그럼 난 어디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건가?

코 수술의 핵심은 비중격 연장 기술! 틀림코 수술은 위쪽에 위치해 있는 코골 연골을 아래쪽으로 내리기 위해 코골 내리기 형태의 비중격 연장술을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부의 복원력을 최소화 하면서 비중격의 지지력을 강하게 하는 연장술! 자연지 코성형클리닉은 바로 이런 정도의 차이에 따라 맞춤형 시술을 시행함으로써 흉터 없이 자연스러운 코성형을 가능하게 한다!

### 많은 경험과 노하우로 쌓인 수술 케이스들!

자연지 코성형클리닉 성용해 원장은 4년 가까이 원진성형외과 코성형센터에서 고난이도 코성형을 주로 담당했다. 특히 남자 틀림코 수술에서의 경험과 결과는 독보적이었고, 선도적으로 비개방 틀림코 교정수술을 도입하여 흉터에 민감한 남자 코성형에서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의 시술이 입소문을 타, 강남역 부근에 독자적인 코성형 전문 클리닉인 자연지 코성형클리닉을 개업하게 되었다. 오랜 시술 경험과 독자적인 노하우가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코성형을 가능하게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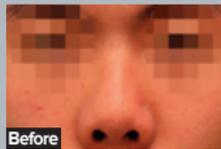
### 이제 당당하게 중심을 들고 다니자!

남들에게 말하기 힘들었던 이쁜 기어털! 박 군은 코 인생의 전환점을 자연지 코성형클리닉에서 받은 코성형 전과 후로 나누며 메디테에게 엄지를 치켜세웠다. 중심을 잘 잡은 이후 원만한 사회생활과 꿈같은 연애 생활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 틀림코 콤플렉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던 독보적으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자연지 코성형클리닉의 도움을 받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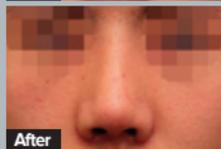
<http://www.gngnose.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5-5 주류성빌딩 8층 자연지 이비인후과 코성형클리닉  
2호선 강남역 6번 출구,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CGV 맞은편) TEL. 02-534-5517

## BEFORE &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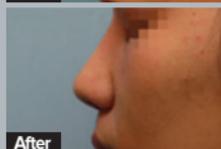
Before



After



Before



After

### 성용해 원장

이비인후과 전문의

전문 분야

편안 코, 틀림코, 퓌코, 매부리코, 콧볼, 콧바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수련의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전공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외래 교수  
前 강남 원진성형외과 코성형센터 원장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정회원  
대한 안면성형재건학회 정회원  
대한 두개안면성형외과학회 정회원  
대한 비과학회 정회원  
대한 전신 및 일체로거학회 정회원  
미국 Dallas 코 성형수술  
미국 Chicago 코 성형수술  
국제 코성형학회 전도기 과정

GNG 코성형클리닉

# 배우 박재현

일요일 아침마다 서프라이즈하게 죽고, 죽고 또 죽는 길로 모자라 귀신으로 환생까지 하는 그는 최후의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을까? BY 김희생 PHOTOGRAPH BY ARC STUDIO

**어떻게 죽고 싶나? 자다가 아프지 않게 죽고 싶다.**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 미련도 남지? 스포셜 매 미니시리즈 주인공도 했고, 일일 드라마에 출연해 매일 TV에 나오기도 했다. 그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자리를 잡았다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는 많이 한다.**

**당신도 (서프라이즈)를 본받아서 배우하나요? 스텝 그 시간에 잘 안 일하는데 일요일은 (서프라이즈) 보려고 억지로 일하는데.**

**보면 기분이 어떨까? 싫다(웃음). 내가 왜 그렇게 연기를 했을까, 왜 저렇게 살이 찌지 하는 생각이 든다.**

**촬영하다가 귀신도 많이 봤겠다. 나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는데.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촬영할 때 무서우니까. (서프라이즈)는 세트 촬영은 없고 전부 야외촬영이다.**

**(서프라이즈)에서 귀신 역할도 많이 했다. 귀신 연기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눈에 힘만 주고 서 있으면 된다. 귀신 연기는 연기가자 힘들다가보면 조령팀이 힘들다.**

**죽은 사람 연기와 귀신 연기 중 어느 게 더 어렵나? 죽은 척 하는 게 더 어렵다. 클로즈업 할 때 눈알이 움직이면 절대 안 된다. 눈을 감고 있어도 눈동자가 계속 움직이는 배우가 있는데 그 분은 죽은 사람 역할을 아예 못 맡는대(웃음).**

**관 속에 누운 시체로도 자주 나오더라. 그거 진짜 관 속에 들어가는 거다. (서프라이즈)에는 특수효과도 굉장히 많잖아. 관 뚜껑을 열면 연기가 확 나오는 장면을 찍을 땐 관 안에서 침과 커피를 태워 연기를 만드는 데 1.2부 정도 관 속에서 숨을 참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땐 진짜 죽고 싶다.**

**또 어디에 들어가겠나? 영안실 시체 냉동고에도 가끔 들어가겠다. 온도 조절 같은 거 없이 원래 냉동고의 온도 그대로 내가 진짜 죽은 것 같다. 지난 일들이 순간적으로 다 지나간다.**

**죽은 연기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적도 있나? 익사 장면을 찍으려고 안 천장치 없이 깊이가 10m 되는 수영장에 들어가 찍어 있다. 몸에 40kg 정도의 추를 차고 수영장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물이 위로 안 올라가는 거다. 하지만 아무도 그 상황을 모르고 있어 나 혼자 억지로 올라가는데 진짜 죽는구나 싶었다. 물속에 있던 시간이 30~40초였는데, 나 한테는 5분도 넘게 느껴졌다.**

**이후로 물에 대한 공포증 같은 건 안 생겼나? 그럴 거를도 없었다. NG가 나서 그 씬을 또 찍어야 했거든. 그런데 물에 안전 장지도 달고 옆에 시다리도 놔두고 찍었다. 무려 열 번이 나 사례**

**(서프라이즈) 촬영이 이렇게 막새다니 놀란다. 아침 7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밤새 촬영한다. 다른 드라마는 보통 하루 4~5개의 씬을 찍는데 우리는 무려 70개 씬을 촬영한다. 대본도 촬영 전날 새벽에 나와 내가 무슨 역할인지도 모른다.**

**밤샘 촬영이 많다 보면 함께 출연하는 여배우와 뽀뽀도 있었을 텐데? (서프라이즈)에 함께 출연하는 (김)하영 씨와 사귀었다. 처음엔 내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촬영팀과 술을 자주 마시고 자주 보다 보니 가족같이 느껴지더라.**

**일본 여자로 자주 나오는 예쁜 분? 좋겠다. 초딩들도 많이 알아보지? 초등학교생들은 여러 명이 따로 막 따라와서 칭찬 없다. 시인해주도 거기 있는 애들 다 모아서 단체 사진 한 방 찍어주면 알아서 해산한다. 날 알아봐주면 그래도 고맙다.**

**TV 속 자신의 모습 중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어디인가? 턱이 비대칭이다. 어떤 때 사교로 코드 휘었다.**

**죽기 전 고치고 싶은 곳은 턱? 코? 아니. 지방 흡입.**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역할은 뭔가? 강간범. 상안범은 그나마 괜찮은데 강간범 역은 정말 싫다! 경기 북부 빌버리안 두 번 캐스팅됐다. 유부녀 고시는 역할도 많이 했고, 그런 역이 있으면 이상하게 연막이 많이 온다.**

**강간범과 유부녀 고시는 재미 중 어떤 게 더 어렵나? 강간범. 처음 보는 여배우와 19금 연기를 해야해서 힘들다. 유부녀 고시는 연기는 쉽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나? 좋은 배우. 주인공은 아니더라도 어떤 역할이든 잘 소화하는 배우.**

**요미에는 뭐라고 소개할까? 배우 박재현.**

**그렇다면 배우로서 죽기 전 소원 한 번 물어보자. 저, 나보다 총 맞아 죽는 역할이라도 좋은 영화를 꼭 찍어보고 싶다. 그리고 진정한 배우로 가장 많이 인정받고 싶다.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배우들처럼 대해줬으면 좋겠다.**

**죽기 전 딱 한 마디를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하영 씨 사랑합니다. 강아지들을 잘 키울게요.**

이런, 세 마디잖아!



# 드르릉~! 드르릉~! 밤새 전쟁 중?!?!

코골이 소리에 잠 못 이루는  
그대들을 위해 준비했다. 김 경원

숙면 취하러  
가기



## 1 이혼 서류를 준비할까요?

결혼 3년차 주부입니다. 집안의 반대로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우리 부부. 힘들게 결혼한 만큼 그와의 사랑은 더욱 돈독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후 첫날밤. 유난히 심하게 코를 고하는 남편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피곤한 결혼식 때문인 줄 알고 있었습다. 그러나 결혼 생활 3년 동안 집이 떠나가라 고 애는 그의 코골이. 한 번도 면 편하게 별 뽕고 잔 적이 없습니다. 제 눈물의 다크서클은 판단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밤이 두렵습니다. 실raz주세요. 이영자 (32세, 주부)

## 2 좋은 선일이 되고 싶어요.

상행 말풍에 겨우 받은 저의 부사수. 잘 잘 듣는 빠릿한 성격에 특 A급 가루 능력까지 갖춰 소대 내에서는 인기 만점입니다. 문제는 밤마다 제 옆자리에서 코끼리 울음소리를 내며 코를 골아 댕다는 것. 처음에는 고개를 돌려보기도. 불침번에게 코를 골 때마다 깨우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강도는 더욱 강해져 휴지. 배게. 담요... 아젠 철모까지 단절 뻔했습니다. 이리다 가족 행위로 잡혀가는 것이 아닐까요? 영창 가기 싫어요. 김성기 (22세, 군인)

## 3 우리 아버지를 구해주세요.

제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는 주무실 때마다 코를 고셨습니다. 집 안이 울릴 정도였지만 코골이 정도야 문제없었지 하고 대수롭게 여겼는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연세가 높아지실수록 그 강도가 심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를 심하게 고시다가 숨을 멈추시는 무호흡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때면 지분만 아니라 가족 모두 심장을 덜컥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잘못되더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 저의 아버지를 고칠 방법이 없을가요? 정만우 (25세, 대학생)



### 코골이/수면무호흡증이란?

코골이는 수면 중 호흡 기류가 여러 원인으로 좁아진 기도를 지나면서 늘어진 입천장, 목젃, 혀, 인두 등의 주위 구조물에 진동을 일으켜 발생되는 호흡 장애다. 코골이에서 시작된 수면무호흡증은 심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뇌경색과 성기능 장애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는 질병이다.

자네지 수면클리닉 센터에서 이 모든 걱정을 한 방에 잡아라!

## 코골이만 전문으로 시술하는 자네지 수면클리닉

자네지 수면클리닉의 현도진 원장은 이런 고민 많은 남성들을 위해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수술 전문 센터를 별도 운영. 국내 최고의 수술과 수술 후 케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수술 후에는 수면다원검사 등을 통해 코골이가 없어졌는지를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재검사 비용은 무료다. 또한 센터가 교통이 편리한 강남에 위치. 서울뿐 아니라 지방 도시에서도 버스 한 번 이용으로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다.

## 수술은 경험입니다

수면무호흡증 수술은 일반적인 코골이 수술과는 완전히 다른 수술이므로 병원 선택이 중요하다. 자네지 수면클리닉 현도진 원장은 코골이부터 중증 수면무호흡증 수술이 선행전진술, 양악수술에 이르기까지 국내 최다의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과 연계해 최소 통증 수술법으로 시술하는 것 역시 다른 병원과의 차별점. 한국의 대학 병원조차 따라오지 못하는 독보적인 수술 경험과 수술 후 최호 부기 케어 서비스까지 꼼꼼하게 관리해 환자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 잠자리에서 강력한 남자가 되려면!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이지만 옆자리에서 잠을 자는 부인이나 가족, 타인에 대한 피해 정도도 심각하다. 리셉션이나 미팅으로 출장이 잦은 사회생활에서 또 혼자만 잘 수는 없는 법.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숙면을 취했을 때만이 건전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또 코골이/수면무호흡증은 심할 경우 성기능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낮과 밤 모두 자신감 있는 우뚝 선 남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수면클리닉이 필요하다!

<http://www.gngsleep.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5-5 주류성빌딩 8층 자네지 이비인후과 수면클리닉  
2호선 강남역 6번출구,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강남역 CGV 맞은편) TEL. 02-534-5517



**현도진 원장**  
 @비인후과 전문의  
 미국응급수면기사(MRFSG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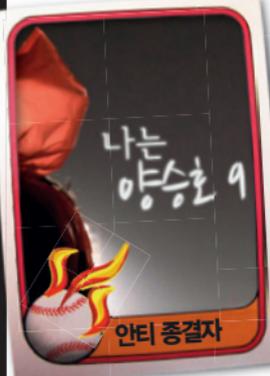
**전문 분야**  
 코골이/수면무호흡증 수술, 양악기 구강 내 장치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및 동 대학원 박사과정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수면의  
 가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중풍의  
 가톨릭대학교 외래 교수  
 前 강남 원진성형외과 약원명성병원  
 前 숭실수면센터 원장 약원명성수면수술 팀장  
 미국 스탠퍼드 대학병원 약원명성수면수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 수면수술  
 미국 수면의학회 수면의학 전문가 과정  
 미국 수면의학회  
 유럽 수면의학회  
 국제 수면수술학회  
 미국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비인후과  
**GNG 수면클리닉**  
RESEARCH & WELL GROUP

# 프로야구 전반기를 빛낸(?) 4대 종결자

사상 첫 600만 관중을 돌파할 기세로 거침없는  
인기몰이 중인 2011 프로야구 상반기기를  
키워드로 짚어봤다. WORDS BY 김홍석

전반기 프로야구는 '파란'의 연속이었다. 칠용성처럼 보였던 SK의 독주 체제가 무너질 조짐이 보이고, 초파 감독이 이끄는 삼성이 KIA와 1위 다툼을 벌이고 있다. LG가 9년 만에 가을 잔치를 진출할 가능성이 었어보는 가운데 라이벌팀 두산은 경기 내·외적인 악재로 휘청거리다가 김경문 감독이 옷을 벗었다. 로이스터 감독 해임, 제9구단 창단 반대, 이대호와의 연봉조정 싸움 등 미운 짓만 골라하던 롯데는 5~6위에 머물고 있고, 6월에 한화 '야왕'의 해결사로 캄백한 기르시아는 '월간 MVP'를 차지하며 "가르시아급의 선수는 흔하다"라는 드림을 친 롯데 관계자들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넥센 홈수필이란 별명처럼 끊임없이 선수를 팔아 제끼던 넥센은 결국 골피로 내려앉았다.



## 롯데 양승호 감독 "내가 양승호구단"

100만 명이 넘는 '왕비호'의 안티팬을 단 6개월 만에 추월한 사나이가 있다면 믿겨지나? 롯데의 신임 감독 양승호가 그 주인공이다. 안티팬 생성에 최적화된 그의 탁월한 말빨(?)은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 값은다는 말을 중요라도 하듯 막말 드림 신공을 펼쳤다. 취임하자마자 로이스터 감독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스물볼'을 하겠다고 공언하더니, 팬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가르시아를 평범한 타자로 만듦이었다. 뿐만 나면 우승이 목표라고 밝히며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하지만 투장을 열어 보니 이런 행이? 양승호 감독이 시도했던 모든 변화는 실패로 수렴했다. 야구의 포지션 이동은 부실한 수비를 정야칠 4대 강공사만큼이나 엉망으로 만들었고, 투수의 잦은 보직 이동과 무리한 등판은 오히려 선수들의 안티팬을 양산한 감독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 KIA 타이거즈 "용병은 우리가 대세"

KIA 타이거즈가 2009년 통산 10번째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로페즈와 구동수이라는 결혼한 용병 원 두 선수 덕분이었다. 이들의 맹활약으로 야구계엔 외국인 투수 용병이 불었다. 작년과 올해 개막전 기준 16명의 외국인 선수 중 14명이 투수였다. 하지만 막도 차분 능이 잘 친다고, KIA처럼 수조급의 투수를 쏙쏙 골라오기란 쉽지 않다. KIA의 용병 투수를 고르는 안목은 미녀를 감별하는 MAXIM 못지않으니 말이다.

작년의 삼진을 뒤로하고 KIA는 올 시즌 한층 강해진 전력으로 2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다. 일등 공신은 역시 두 명의 외국인 투수다. 3년째 한국에서 뛰는 로페즈는 모든 외국인 선수 중 가장 돈본이다. 타이 추종을 불허하는 이상 소화 능력과 뛰어난 평균 자책점, 게다가 올 시즌은 특이한 클리블을 잡아 단기간 불같은 감성까지 잘 다스리면서 진정한 팀의 에이스로 거듭났다. 팀의 우승을 견인하던 2009년보다 현재 훨씬 좋은 페이스를 기록 중이다.

트레비스 역시 좋은 투수다. 외국인 투수 중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안정적인 피칭이 인상적이며, 무엇보다 최완이다. 윤석민-양현종-사재용으로 이어지는 국내파 3외투에 로페즈와 트레비스가 더해진 KIA의 선방진은 단연 리그 최강 계다가 일본에서 유한한 꽃남 이범호를 영입해 타력도 한층 강화했으니 2년 간의 우승을 욕심내 전력임이 분명하다. 올 시즌 KIA의 상승세는 이처럼 해외파의 힘이 매우 컸으니 외세 종결자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다.

이 **뮤지컬**을 모른다면,  
당신은 뮤지컬을 모르거나,  
그저 **팬클럽**이거너!!!



**스프링 어웨이크닝**  
**SPRING AWAKENING**  
 A NEW MUSICAL

두산아트센터 연강홀  
 2011.6.3-9.4

SPRING AWAKENING

예매처 인터파크 1544 1555 YES24 1544 6399 두산아트센터 www.doosanartcenter.com 공연문의 02 744 4334 홈페이지 www.springawakening.co.kr

Book & Lyrics by STEVEN SATER Music by DUNCAN SHEK Directed by MICHAEL MAYER Choreography by BILL T. JONES Based on the play by FRANK WEDKING Original Direction recreated by 김민정

출연 윤형민 정명화 송상은 송영랑 이이라 정대성 이주영 김가서 이진규 최태환 문다자 전상우 김상일 유주혜 김경아 황호진 장우수 이두리 이지호 고수연 강은애 김민지 고은성 윤희옥 제작 뮤지컬헤븐



**막싱막하**

**“상반기 스캔들 종결자는 누구?”**

막싱막하 “상반기 스캔들 종결자는 누구?” 시즌이 개막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4월 말 LG 트윈스는 구원투수 오성민을 성적 변경 했다. 37세의 나이임을 감안해도 LG에 꼭 필요한 좌완 스페셜리스트였기에 야구팬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공식적인 이유는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무언이랑했기 때문이라지만 이 번 변동 사건에는 사생활과 관련한 추문(도박 및 내연녀에 얽힌 악성 루머)이 얽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팬들은 크게 실망했다. 며칠 후 이변에는 미국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유일한 코리언 메이저리거 추신수가 음주운전으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는 내용이였다.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실망스러웠지만, 체포 과정이 담긴 동영상 공개되면서 드러난 그의 추태는 한국 야구팬의 손발을 오그라들게 만들었다. 추-주 트레인이란 별명은 야구장에서 기만차처벌 자목적 일 것을 주문한 거다. 왜 경기장 밖에서 술을 치며는 채 저절적으로 행동하는 건지 모르겠다.

두산 베어스의 득점 셋업맨 임태훈과 여자 야구로서 연루된 스캔들도 있었다. 이 사건의 영항이라고 질라 말할 순 없지만 4월 한때 1위를 수성했던 두산은 5월 중순부터 급격히 추락하더니 7위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었다. 결국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로 '제2의 국민감독'으로 떠오른 김경문 감독의 자진 사퇴로 이어졌으니, 일개 야구선수의 사생활 스캔들로 치부하면 어떨까 너무나 큰 사건이었다.

**박현준 “다승 1위 별명이 개장수라니!”**

야구팬은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나 감독에게 애정 표시로 별명을 붙이는 걸 선호한다. 지금 일론에서 뛰고 있는 김태균(지버못데)은 한화 시절(민거나 말거나) 6000개에 이르는 별명을 소유해 '김별명'이라는 칭호를 얻었다. 이에 질세라 한화 팬은 한태화 감독에게 아원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골짜 후보인 한화가 의외로 민면첩은 전력을 선보이며 상위 팀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이후 삼성이 오랜만에 1위로 올라서자 삼성 팬은 기다렸다는 듯이 유종일 감독이아말로 '야몽(야구 대몽룡)이라며 치켜세웠다.

하지만 감독의 별명 중 가장 유명한 건 역시 SK 김성근 감독의 '아산(야구)의 신'이다. 김성근 감독에게 '아산'이라는 별명이 생긴 건 2002년 SK를 누르고 한국시리즈에서 승리한 삼성 김용우 감독이 '마치 야구의 신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말한 이후였다. 그렇게 아산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김용우 감독의 별명은 업그레이드는 커져 '코끼리'에 머물렀다. 김성근 감독은 이후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인 '아산'이란 사실을 몸소 증명했지만, 솔직히 우승 한 번 해보지 못한 초짜 감독에게 '야왕'과 '야몽'이란 별명은 오버다. 이런 '갑'의 별명을 우승을 한 이후에나 붙여야 하는 거다!

반면 올 시즌을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 '광속 사이드업' 투수 박현준(LG)의 별명은 '개장수'다. 어린 시절 자신이 카운터 개를 좋아하는 프로 선수의 평명이와 교감했기 때문에 붙은 별명인데, 본인은 이 별명을 죽기보다 싫어한다. 야구팬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면서 내심 멋진 별명 하나가 생길 줄 알았는데 '개장수'라니 얼마나 실망이 컸겠... 실직 없는 감독들 별명 붙여주기 전에 다승 1위(7월 11일 기준) 투수의 별명이나 멋진 걸로 하나 더해주는 게 어떨까? 개장수보다는 '속사막이' 훨씬 낫지 않겠나?



**올해의 말, 말, 말!**

**나는 믿을 거야, 가코 믿을 거야.** → 류중일 삼성 감독의 용병 가코 선수에 대한 끝없는 믿음을 표현한 말. 줄여서 '나린가말'  
**에니코로!** → 롯데의 용병 투수 코리야 선발 및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한다는 의미. 에니콜로 불리던 임창용과 다른 점은 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불을 지른다는 것.

**채명버스!** → 2루를 생략하고 3루로 달리는 채명민만의 놀라운 야구 센스를 빗댄 말. 유사점으로는 '채단황단'이 있다.  
**공무형 피침!** → LG 용병 투수 리즈가 연재+6 이상을 구역구약 소화하면서, 고백고백 3~4명씩 나누는 것도 잊지 않는 일관성 있는 투구를 보여준다 해서 붙은 별명.  
**양승호9!** → 굳이 설명이 필요한가? 롯데 자이언츠 팬이라면 치를 떨 호구 감독님을 일컫는 말이다.



**★ 저자 소개 ★**

**김홍석** 프로야구 전반기 마무리는 깊이 있는 칼럼으로 야구 마니아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칼럼니스트. 팬들에게는 카이저라는 필명이 더 친숙하다. 현재 티스도리에서 야구 전문 블로그 MLB SPECIAL(mlbspecial.net)을 운영 중이다.



# 여드름보다 피부 트러블 때문에 마음을 다친 남자들- 깊은 상처

## 개불이라도 될 걸 그랬어.

종대 부킹 포자에서 그녀들과 한솥에 성공했  
다. 엉덩이가 특히 큰 그녀가 맘에 든다. 나  
의 혀 컨디션은 나쁘지 않다. 토르를 날리면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술이 거하게 오르지  
그녀는 진심을 토해냈다. 멍게는 안 먹는다  
다. 여드름 탓에 내 병명은 5년째 멍게다. 개  
불이라도 되고 싶은 날이다.

## 취업의 자격

고딩 때 자기 말았어야 했다.  
그래서 100번째를 기어고 남기고 말았다.  
면접한 가면 기어고 이 소리를 듣는다.  
“자네. 그 얼굴에 그...그게 뭐가?”  
SKY 대학 경제학과, 좋은 성적,  
스펙은 필요 없다. 나는 생각한다.  
여드름 자국 없는 고운 피부가  
바로 취업의 자격이다.

## BEFORE & AFTER



요즘 남성들은 여성만큼이나 피부에 관심이 많다. 첫인상에 결정적이나만큼 연애나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고운 피부 가꾸기는 필수. 그만큼 피부 트러블, 특히 트러블 후 남은 흉터 때문에 고민하는 남성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줄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을 만났다.

## 이로 행위는 계약

### Q1. 아직 한의원에서 여드름이나 피부 흉터 치료하는 걸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은데요?

**손철훈 원장** : 아직 생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만, 저희 예한의원은 줄곧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 치료에 집중해왔습니다. 현대 서양 의학과 한의학을 접목해 보다 효과적인 여드름 치료, 특히 피부 트러블로 인한 흉터 치료에 획기적인 시술 기법을 개발했지요. 실제로 도쿄에서 열린 국제중앙의학 학술 대회에서 저희 SK 흉터 재생술이 뜨거운 반향을 얻었습니다.

### Q2. SK 흉터 재생술이 뭔가요?

**손철훈 원장** : 네. SK 흉터 재생술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면 좀 복잡하지만 ‘기적의 재생 시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피부 흉터 치료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시술한 결과 환자의 만족도는 기대 이상입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대개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만족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만큼 피부부대 해산 전문가 수준으로 까다롭지요. 그분들의 기대치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 Q3. 좀 더 구체적으로 SK 흉터 재생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손철훈 원장** : 피부 흉터 치료로서 3세대 기법으로 최신 중의 최신이라 자부합니다. 기존 피부 흉터 치료 시술은 한계가 많았어요. 치료 효과가 분명치 않았죠. 왜냐하면 우선, 흉터마다 적합한 크기의 자극을 준 후 피부 재생 시술이 필요하지만 이게 없었고요. 두 번째는 피부 재생 효과가 탁월한 약을 개발이 없었습니다. 저희 예한의원은 피부 흉터의 형태에 따라 자극의 크기를 상세하게 조절해서 자극한 후 SK109를 투입해 피부 재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크닉을 갖고 있습니다.

### Q4. SK109는 어떤 약인데 그러한 효과를 보이나요?

**손철훈 원장** : 저희 예한의원만 갖고 있는 피부 재생 치료제입니다. 흉터에 알맞은 자극을 준 후 흉터 조직 사이에 SK109를 투입하는데요. 기존 치료보다 3배 정도 피부 재생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치료가 어려울수록 깊고 흉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흉터의 50%가 재생되면 성공적인 시술이라고 합니다만, 저희 병원은 성공적인 시술의 기준을 80%로 할 만큼 피부 흉터 재생 시술에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 Q5.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획기적인 피부 흉터 시술인데요. 마지막으로 피부 흉터 등 피부 질환으로 고민이 깊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철훈 원장** : 요즘 피부 흉터 등으로 고민을 하는 남성분들이 많습니니다. 저희 병원을 찾는 남성이 여자에 비해 64 정도는 많은 게 단적인 예입니다. 피부 흉터 치료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한 환자분들이 많습니니다. 저희 예한의원은 흉터 치료를 할지와의 계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흉터 재생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드린다는 약속이죠. 피부 흉터 등 트러블로 고민하는 남성분.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놀라운 경험을 약속드립니다.



**예한의원  
손철훈 원장님**

강남예한의원 원장  
한의학 박사  
前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  
경희대 한의과대학원 강사  
피부카리스마 저자  
한방비만학회 정회원  
एस-한국아카데미 공동대표  
스포츠한의학회 회장

**Ye ORIENTAL MEDICINES CLINIC**  
**예한의원 예메드스파**  
<http://www.sear114.com>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37번지 호산빌딩  
1층 TEL. 02-564-2060

# MISS MAXIM OF THE MONTH

MAXIM 홈페이지에 올린 강렬한 스타킹 셀프  
화보(?)로 예선 4회 차 우승을 거머쥔 베이글  
녀 서진아가 스타킹을 벗어던지고 비키니로  
같이입었다.

by 김희성

PHOTOGRAPHS BY ABC STUDIO

HAIR 심나리(에엑스다 02-548-7787) MAKE-UP 고영은 FILM 김진욱

COOPERATION 북시(02-546-7764) 장소 힐튼 대명리조트 (1588-4888)

2011 MISS MAXIM CONTEST  
THE 4TH SEMIFINALIST

## 서진아

### MISS MAXIM 신청하기

2011 MISS MAXIM CONTEST는 지금도 계속 진행중이다.  
MAXIM의 여성 독자들에게 다음달 MAXIM 잡지를 당신의  
송마하는 화보로 장식하라. 50만 MAXIM 독자들이 당신의 팬  
이 되어있을 거다.

#### 참가 신청 방법

-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 접속한다
- 우측에 MISS MAXIM 참가 신청 버튼을 클릭한다
- 독자들에게 오뜨랄 예쁜 사진 20장을 업로드한다

자세한 내용은 MAXIM 홈페이지를 참조하라!

문의: 에디터 김희성 070-4010-8995 [alice@maximkorea.net](mailto:alice@maximkorea.net)



**생년월일:** 1988년 7월 13일생  
**직업:** 회사원

**주요 서식지** 클럽 매스

**클럽에서 나를 알아보는 법** 몸에 딱 붙는 원피스를 입은 채 봉 위에 올라가서 신나게 춤추는 애가 바로 나다.

**별명** 허풍녀. 웃기고 심어서 이야기를 지나치게 과장한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야구 관람

**미소천사** 살짝 바보 같기도 하지만 아무 때나 잘 웃는다.

**이성에게 가장 많이 듣는 말** “남자친구 있어요?”. “몇 살이에요?”

**해수욕장 헌팅 경험담** MAXIM 촬영 덕에 처음으로 바다에 놀러 왔다! 이번 주 일요일에 친구들이랑 오션월드 가기로 했는데 거기서 누가 말을 걸어주면 좋겠다.

**서천이 공략법** 나한테 헌신적인 사람이 좋다. 진실만 보여주면 바로 끝!

**가장 최악의 직업** 멘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남자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 코. 다음은 끝판. 그리고 배레니아웃이 있는 남자가 좋다.

**MAXIM 독자들에게**

“우리에겐 MAXIM을 사랑한다는 공동 점이 있어요. 친해지고 싶어요. cyworld.com/seojina880713 으로 일촌 신청해 주세요.”



비키니와 비치타월 모두 목시

촬영 현장  
침투하기



# RAWLED

“초코파이 주시지 않습니다”

개봉: 7월 20일  
감독: 장훈

출연: 신하균, 고수, 류승수, 고창석, 이재현, 이다윗, 김옥빈



출연 발단은 적지만 사랑은 독재시 했다 훗 1992년 7월



말은 적지만 사랑은 독재시 했다 훗 2012년 7월

## 슬픈 땅따먹기 고지전

우리가 미처 몰랐던 한국전쟁의 끝 이야기 by 송종민

연필이 나오는 예고된 보기



한국전쟁이 1950년 6월 25일 시작해서 1953년 7월에 끝났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록은 1951년 1·4 휴전의 국군의 반격, 그리고 휴전 협정으로 끝나버린다. 2년 2개월의 가나긴 휴전 협정 기간 동안 국도의 최전선에서는 휴전을 목전에 두고 영토 1cm를 위해 하루에 두 몇 번씩 고지의 주인이 바뀌는 고지 쟁탈전이 멈추지 않았다. 인제가 필지도 모른 채 끝없이 고지를 뺏고 뺏기는 전쟁을 벌여야 하는 중대원들은 이미 서로 싸우는 이유조차 잊어버린 지 오래다. MAXIM 한 권 없는 지옥 같은 전장에서 중대원들의 유일한 위안은 북한군의 편지 속에서 찾아낸

차태경이란 여인의 사진이다. 몽실 언니 머리를 하고 순박한 웃음을 짓고 있는 태경의 모습은 누구나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순수한 매력이었다. 이는 거라고는 이름뿐이지만 그녀는 이미 관음대에 붙어 있는 소녀시대야냥 막연한 애정과 친한 그리움의 대상이다. 그러나 사진 속의 주인공은 사람이 먼저 쓰러지고 정확히 2초 후 총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2초'로 불리는 인민군의 엘리트 저격수, 인간적인 위로와 공포의 대상이 같은 존재라는 사실이 전쟁의 비극을 극대화한다. 서로에 대한 동질감과 알 수 없는 이질감에도 불구하고 남과 북이라는 벽은 서

로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다. 잔인하게 적을 저격하면서도 두려움과 망설임이 가득한 그녀의 슬픈 눈망울은 쉽게 잊을 수 없는 가슴 시린 여론이 된다.

시사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옥빈은 차기작 《시체가 돌아왔다》 촬영 때문에 선명한 핑크색 머리를 하고 나타나 여기서도 전장 한가운데서 피어난 장미꽃 같은 존재감을 뽐냈다. 순수함과 도발적인 매력을 한자리에서 확인한 기자들은 모두 “옥빈이 참 아름답다”를 연발할 수밖에 없었다.

창작뮤지컬

# Miracle

미라클



“커다란 우주속에서,  
영원의 시간속에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것...”

미라클  
공짜로 보기



OPEN RUN 작/연출 김태린 | 제작 (주)PAMA프로덕션

대학로 미라클 씨어터 1관 평일 8시 | 토, 일, 공휴일 4시, 7시 (월 없음)  
일반 30,000원 대학생 25,000원 청소년 20,000원  
문의 02.742.7261/2 | 예매처 인터파크 1544-1555 티켓링크 1588-7890



# 올 여름 빅 4 한 핏줄 영화



블록버스터  
예고된 보기



부모 없는 자식 없듯 뿌리 없는 영화 없다. **이승훈**만



**픽(7월 20일 개봉)**  
스피드왕 퀵사미맨이 민기가이 벗으면 타지는 헬멧을 쓴 옛날 여자를 태우고 폭파범의 명령대로 30분 안에 서울 곳곳에 폭파물을 배달 한다. 사정을 알리 없는 열혈 경찰이 뒤를 쫓는다.

## 한 핏줄 영화

**트렌드포터** - 네 말 안 들으면 꼭 타릴 거야!  
**스피드** - 폭탄 해체하려고 하면 꼭 타릴 거야!  
**아일랜드** - 고를 트럭에서 떨어지던 LPG 가스통들이 <포> 주인공, 그를 쫓는 화양리 라이더스를 잡는다.  
이 모든 폭발 액션은 마이클 베이 영화에서 이미 보...



나도 끼워줘

**MAXIM 한 줄 평** 액션 레이스 영화라기보다는 코미디 영화, 기대치를 잘 맞추는 것.



**고지전(7월 20일 개봉)**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한치의 땅을 두고 생탈전이 계속된다. 그러다 국군 지휘관이 야군 총알에 전사한 사건이 발생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해 방한해 조사관신하군이 파견된다.

## 한 핏줄 영화

**공공경비구역 JSA** - 바깥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의 동질감. JSA의 원칙자가 <고지전>의 각본을 맡았다. 신하군이 나온다.  
**월린 투 흥막골** - 싸우고 싶지 않아, 싸우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싸우만 하겠지. 신하군이 또 나온다.



이제 누구 편인지 헷갈려

**MAXIM 한 줄 평** 오락영화적 스펙터를 보다는 이야기가 주는 힘이 더 대단하다.

## 7박 8일의 저승 체험

한 김민욱

2011 밀양어름공연예술축제의  
귀신극 특집

연제 2011년 7월 27일 ~ 8월 7일  
어디서 밀양연극촌 성벽극장  
문의 055-355-1945~6



## 귀국 핏길

국립 남도국악원의 창작극 <핏길>은 바닷가를 폐회하던 할머니가 투신 자살을 한 후 귀신이 되어 귀편으로 돌아와 한평생 묵은 원한을 국의 형태로 풀어내는 내용. 12명의 자식을 낳은 빅마더인 할머니의 원망 섞인 이야기로, 남자는 역시 그것을 할부로 누리면 죽어서도 욕을 먹는다는 교훈을 준다.



## 순속의 어머니

죽을 날이 가까운 어머니. 이번에는 귀신들이 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꿈과 현실이 겹쳐지고 그 속에서 역시 혼란들이 대가 순연해 어머니를 흔든다. 특히 어머니 역할의 순속이 인 다력으로 개성적인 캐릭터를 보여주었다. 어머니가 저승으로 가는 마지막 장면에서 밀만 한 당산도 엄마를 목놓아 부를 것이다.



## 오구

초연 이래 귀신 불은 연극이라고 불릴 정도로 베스트 맨 스테디플레이 (오구). 역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머니가 귀편을 받아와 귀신들을 불러내라는 내용이다. 귀신 종합 세트라고 할 정도로 무대 위는 개관...아니 귀신편이다. 당신이 놀라는 것은 귀신이 달고 다니는 존슨의 크게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은 여기서 나왔다.



**7광구(8월 4일 개봉)**  
아무리 후회 해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제7광구의 석유 사추신 이름리스. 결국 철수 명령이 떨어지지만 석유가 있다고 확실하는 해준(하지원)은 마지막 시루에 나선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은 기대와 너무도 달랐다! 우리

기대에도 너무 다르지 않기를.



**최종병기 활(8월)**  
신(이복해)은 여동생 자인의 혼례를 지켜보며 역적으로 몰려 가족을 잃고 어렵게 떠돌던 과거가 떠올라 회개가 남다르다. 하지만 그 경사스러운 날 하필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올 줄이야. 하필 자인을 납치해 갈 줄이야. 하필 신이

가 조선 최고의 신궁이었을 줄이야.

## 한 핏줄 영화

**에어리언2** - 이곳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었다!  
**드라이빙** - 특수 효과를 담당할 모백 스튜디오의 장성호 대표는 "레퍼런스 삼은 괴물은 없다"고 했지만 누구나 이 영화를 떠올렸을 거다.  
**괴물** - 80%가 넘는 블루 스크린 촬영은 배우들에게 곤욕이겠지만 3D 괴물 영화를 찍기 위해서는 상성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 익숙해져라지 뭐.

**MAXIM 한 줄 평** 다 좋은데 7광구 개발 의욕을 꺾지는 않을지 하는 쓸데없는 걱정일.

## 한 핏줄 영화

**로빈후드** - 화살 하면 이분이니까.  
**테이큰** - 상대를 잘못 골랐다.  
용서, 타협? 그런 거 없다.  
**최종병기 그녀** - 재욱 누가 지었나. 아휴 갈잡아.



난 왜 배려나

**MAXIM 한 줄 평** 서브 웹폰에만 머물렀던 촬영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느냐가 관건.



# GREEN GROOVE FESTIVAL 2011

8월 13일

LINE UP

unleash your energy

8월 14일

LINE UP

Busta Rhymes

재범 <sup>new</sup> Don Rimini

<sup>new</sup> Drunken Tiger and T.

장기하와 얼굴들 <sup>new</sup> 원디시티

<sup>new</sup> 강민ick 스나이퍼 사운드(MC 스나이퍼, L.T.O, 일리엇)

하우스홀즈 킹스턴 루디카 <sup>new</sup> 여반 자반카

<sup>new</sup> 리스크 리듬 21신 <sup>new</sup> 백세ung <sup>new</sup> with vib(from 3375)

AFROJACK

<sup>new</sup> DJ Soulscape with MC MAKE-1

노브레인 APL.DE.AP of Black Eyed Peas

DAISHIDANCE DATA

<sup>new</sup> 리쌍&정인 <sup>new</sup> UV(유브이) 몽구스

<sup>new</sup> 세렝게티 아스트로보이즈 스카워즈

아광투끼 <sup>new</sup> 슈가팝 고고스타

and more to be announced ~

8월 13일~8월 14일 @ 대천 해수욕장 1일권: 99,000원 2일권: 154,000원 인터파크: 1588-1555



# 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너희 등짝 좀 보자!

개그 프로그램은 KBS 마음대로지만 음악 프로그램은 아니다! BY 김상현



## 1 MBC 쇼! 음악중심

무대 완성도 1등 / 카메라워킹 1등 / 사운드 1등 / 조명 2등 / 물입도 1등 / MC 수치 지원 1등

### 1등

우리라게 음악 방송 중 최고, 무대, 카메라 워킹, 사운드 무엇보다 춤출 때는 데가 없다. 클로즈업할 때와 빠질 때를 아는 노련한 카메라 워킹은 <쇼! 음악중심>만의 배기, 사전 제작한 무대를 보는 재미도 쓸쓸한데 노랑진 수산시장에서 촬영한 노라조의 '고등어'에서 가사예

막막하게 고등어의 눈알을 클로즈업한 장면은 전설이 되었다. 사실 이런저런 걸 다 떠나서 최강 MC 투 돌인 물통 수치와 박예민을 볼 수 있던 것만으로도 <쇼! 음악중심>은 본방 사수할 가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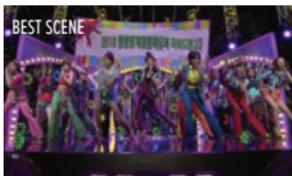


## 2 KBS 뮤직뱅크

무대 완성도 2등 / 카메라 워킹 2등 / 사운드 2등 / 조명 1등 / 물입도 2등 / MC 김민지 3등

### 2등

중국, 독일을 비롯해 72개국에 동시에 생방송되는 음악 방송의 위엄. (가요톱텐) 시청률만 맥을 이어온 관록의 음악 방송이지만 그래서인지 신선한 맛은 없다. 사운드 역시 고만고만한 편. 그래도 관영 방송으로 변신 중인 KBS답게 시원하게 무대에 등질하는 것은 있다. 나름 1위 후보를 선정하는 기준에 디지털 음원 정수를 반영하다 보니 <뮤직뱅크>에 출연하지 않는 임재범이 박재광과 함께 1위 후보에 오르는 해프닝도 있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MC 김민지만큼은 탁월한 선배



## 3 SBS 인기가요

무대 완성도 3등 / 카메라 워킹 3등 / 사운드 3등 / 조명 3등 / 물입도 3등 / MC 아이유, 설리 2등

### 꼴지

이렇게 엉망이어도 되는 건개 작년 연말 가요제전에서 그렇게 욕을 먹고도 나일지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무대는 제대로 된 콘서트 없이 돈만 들이부어 촌티가 짝박 난다. 최근에는 현아의 허벅지를 자궁이 훑아올 정도로 많이 나아졌지만 현기증 나는 카메라 워킹은 여전히 문제다. 얼굴을 잡아야 할 타이밍에 쓸데없는 카메라 신공은 걸그룹 뺨에게 폭풍 까임을 당할 수밖에 그나마 <쇼! 음악중심>이 설리가 MC란 게 유일한 위안이다. MC 분할 영성만 가더라도는 음악 프로그램을 어쩔.

## 펜타포트 VS 지산

이번 록 페스티벌을 정령할 만큼보는 누구?



### ROUND 1

장재민(펜타) <= DOJ DOC(지산)

MAXIM SAYS 록 페스티벌은 가루수 그늘 아래의 장재민보다는 역시 DOJ DOC 같은 사람이야

### ROUND 2

라니니스의 담요(펜타)

> 구남라리아딩스펠러(지산)

MAXIM SAYS 래퍼 아이엠(라니) 역시 유 니크 아이엠을 즐기는 게 타할만한 선택

### ROUND 3

가리온(펜타) > 김완선(지산)

MAXIM SAYS 형님들의 음악이 당신의 숨겨온 마초 반응을 일깨운다. 외쳐 가리온

### RESULT

21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의 승리 쓰. 씨. 이. 머리로 일부를 경유해 한국산 방문하는 뮤지션 수가 줄었고, 한국산 방문으로 매우다 보니 이렇게 됐다. 하긴 꼬부랑에게 땅 깨달고 있을 바엔 신노는 한국 가수의 공연이 많은 펜타포트가 더 즐거울지도

## NEW ALBUM



### MISS A의 (A) 클래스

경쾌한 팝락 리듬이 매력적인 미소 예가 정규 1집 음반 (A 클래스)로 컴백했다. 타이틀곡 '굿바이 베이비'는 개로운 바람둥이를 가차 없이 채버리는 아수체의 이야기. 그녀 둘이 가요계를 떠나 있는 동안 정규 음반 1집으로 독특한 음악 세계를 인정받은 6인. 꾸준의 중박 이상을 차머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다진 시크릿과 타이타 사이에서 수지의 버프를 받은 미소예가 이번 음반으로 얼마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그곳에서 대체 무슨 대화가?

MAXIM의 미녀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 후즈 하이어에서 남성들이 어떤 멘트로 이성에게 접근하지, 그리고 어떤 멘트가 유효했고 어떤 멘트가 씨알도 안 먹혔는지 보여주겠다!

BY 송준민, 조유림

## \*위치가 기반 SNS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자의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에 위치한 같은 프로그램 사용자들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대화의 만남을 유도하는 지역형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최상항 1위

인사, 그냥 인사 | 득표수 214건/511건

인사를 잘해야 이쁨받는다고 배웠지. 하지만 받은 메시지의 절반이 '안녕하세요'인데 그 녀가 당신의 '인녕'을 눈여겨 볼 것 같아?

2위

영어 드립 | 득표수 74건/511건



영어 드립

너 한국인인거 뻔히 알어. 어대 데고 바질이야? 그나 바 제일 긴 게 화요일이었다. 파인 맥류, 맨주?

3위

외모 칭찬 | 득표수 88건/511건



외모 칭찬

아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겹긴 하지만... 그래도 너 사랑할 줄 아는구나?

4위

통네 친구 드립 | 득표수 24건/511건



통네 친구 드립

우리집을 네 놓 인커밍 풀 더 더나들 듯 하겠다는 뜻 이라던 꺼져줄래.

5위

사진으로 கே그 시도 | 득표수 18건/511건



사진으로 கே그 시도

레인 부츠 보고 이런 게그 친 분이 너 포함 347명째. 난 택재훈이 아니잖아.



## 우리들의 플레이 그라운드

대표적인 위치기반 SNS 애플리케이션



후즈 하이어 (Who's Here)

원조답게 이용자가 가장 많다. 각종 커뮤니티에 이 앱을 통해 많은 만남을 경험했다는 간증도 올라오면서 더더욱 사용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설정에 따라 아주 근거리부터 5,000km 떨어진 지구 반대편 여자들까지 검색할 수 있으나 과연 글로벌한 스케일로 놓 수 있겠나. 다만 사진 한 번 볼 때마다 피씨통신 시절 사진 자료실 생각날 정도로 느려 타쳐서 감질난다.



1km

국산인데 서버 속도와 처음부터 한글로 디자인된 인터페이스는 빠르고 눈에 잘 들어온다. 후즈 하이어의 차별을 위해서인지 한 화면에 9명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활동이 많은 것이 타로남 뿐이다. 9인 중 1~2인만 여자였다. 남방미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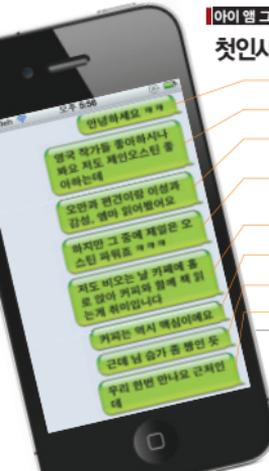
하이 데어 (Hi There)

블로그 + 트위터 + 위치 기반 만남 시스템이 결합되어 상대방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사전에 얻을 수 있다. 관심사의 블로그를 살펴보면 취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오직 위치가 좋다는 뜻이다. 예전에 미투데이처럼 '위치' 기능이 있어서 인기 인물에게 접근하기도 좋다. 전체적으로 가장 발전된 시스템이긴 한데 가장 노골적인 시스템이기도 해서 엔지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오직 만남을 위해 구성되고 매진 커뮤니티라나, 좀 뽀뜨깝잖아?

## 아이 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 첫인사, 이렇게 해봐

- 쓸데없이 웃지마. ㅋㅋ, 님아. 자스 같은 똥신 일부는 네 영어 자수를 나타낼 뿐이다.
  - 프로필이나 사진 보고 관심사 파악. 같은 관심사는 대화의 물고기를 트기에 최고다
  - 식객된 실컷 드러내려고 경의는 하지 말 것. 모르면 그냥 검색하고 질문한 척 좋아하는 여자는 없다. 또 너무 아는 척하면 검색한 거 티내서 말을 줄여
  - 게그는 자제. 너 혼자 웃고 있는 거 안 보여? 제한된 정보로 치는 게그는 이미 남들도 했을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 허세 부리지 마. 허세가 용서되는 건 친구들 뿐이야. 네 프로필 사진을 잘 보도록.
  - 게그릴 자제하나라구. "집지는 역시 MAXIM 이호?" 도 사실 추천하기 어렵지. 공..
  - 성희롱 하지 마. 쇠광 찬다. 칭찬을 할거면 좀 더 진지하게. 디테일하게
  - 서투르지 마. 발정남 놔먹어 보여. 첫인사라는 걸 잊지 마 좀 더 순계
- 마지막 충고: 대화가 잘 풀려 간다고 생각되면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봐서 그리로 옮겨 가라. 순회율 90%인 60%는 네가 마음에 드는 말이다. 성공한 독자들은 독자 사연으로 후기 좀 올려줘라 버디. 아직도 안 된다고 눈만만 하는 애들 분명 있거든.





### → 윤정민

1981년 3월 30일생

장점 KTF 스타크래프트 1 프로게이머  
현재 공TV 게임 연출

테린이 좋은 이유: 손쉬운 조작, 만능 유닛 해병 그리고 지게차의 존재

아구와 (스타크래프트 2) 공통점: 맨 달 스포츠, 치밀한 물밑 작전, 잉손을 사용하는 스포츠

가장 좋아하는 프로게이머: 문성원  
최저성, 장마철 그리고 일요일  
최고의 게임: (스타크래프트 1, 2), (디아블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 NO.1 Game Director 윤정민

당신이 신나게 (스타크래프트2) 중계를 볼 수 있는 건 이 남자의 세심한 손놀림 덕분이다. 이름은 들어봤나? '게임 연출'이라고? **BY 박성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 게임 연출자를 여전히 '옵저버'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다. 본인의 일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겠다. 무대 뒤편에서 일하다 보니 게임 연출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 하지만 내가 연출하는 화면에 따라 시청자가 재미를 느끼고 호응해준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워크래프트3〉, 〈외우〉, 〈이바〉 등 다양한 게임을 연출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이 정도면 질리겠다.

일단 게임 연출이 결정되면 미친 듯 물러야겠다. 게임을 알아야 연출이든 워드 할 게 아닌가. 재미없는 게임을 무한 반복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토 나온다. 상상하기도 싫다.

프로게이머 출신인데 (스타크래프트 2) 선수로 활동하고 싶은 욕심은 없었나?

배타 시절부터 준비했다. 작년 GSL 오픈 시즌 예선도 참가했는데 인간 성능이 떨어져 깨끗이 포기했다(웃음). 가끔 방송으로 경기를 보면서 '내가 해

도 이기겠다'고 탄식하지만 절대 프로 선수를 이길 수 없다. 그들의 노력과 연습량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말이다.

프로게이머에서 게임 연출로 전직했다. 급진적인 부분은 만족스럽나?

공TV 클레스 시절엔 방송이 많이 없었어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방송 횟수가 많아져서 공TV 제작팀 중 가장 고소독자인 말도 듣는다(웃음). 오히려 선수가 더 힘들다. 상위권 선수 외에는 배가 많이 고픈 직업이다.

최신 유행 빌드는 물론 선수들의 특징까지 꿰뚫고 있어야 한다. 내린김에 해설까지 말고 싶진 않았나?

공TV 초창기 시절에는 말 두번이 없어서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제의가 온다면 도전해볼 의향이 있다.

해외에서도 당신이 연출한 게임 영상을 보기 위해 공TV를 고집하는 (스타크래프트2) 팬이 많다고 들었다.

요즘 더 높고 있다(웃음). 외국은 캐스터나 해설진이 직접 게임 연출까지 도맡아서 방송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높은 퀄리티의 화면을 원하는 해외 팬들은 내가 연출하는 공TV 중계를 찾는다.

지금이야 이렇게 훈남이지만 프로젝트 이머로 활동할 땐 경기에서 지면 마우스를 던져버릴 정도로(?) 한 성격하는 남자였다.

사실 훈남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 난 그냥 미남이다(웃음). 그리고 지금도 한 성격한다. 20대 초반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다칠질이다(웃음).

키 184cm에 돈도 잘 벌고 게임도 잘하니 여자한테 인기가 뜨겁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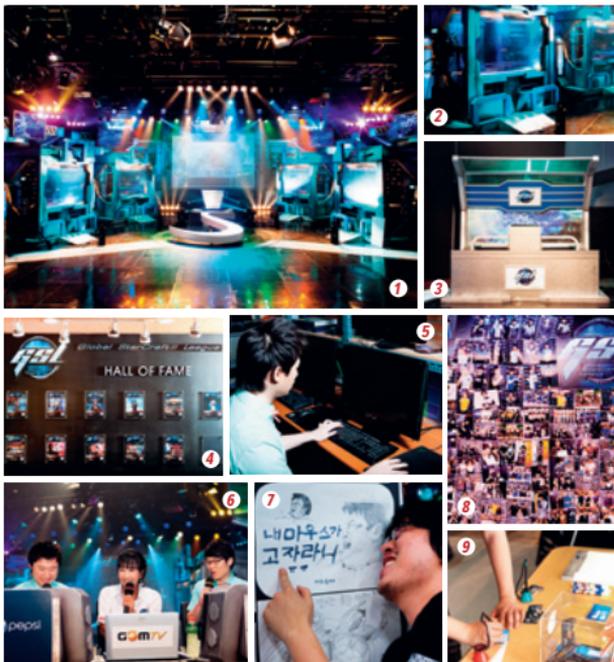
몇 달 전에 더 큰 동안 만난 여자친구와 헤어져 외로움이 하늘을 찌를 기세다. 내 작업을 이해해주는 착한 야기사와 빨리 만나고 싶다. 물론 예쁘면 금상첨화.

GSL 환경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스타크래프트2)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관련 포인트를 알려달라. 화면 좌측 상단에 보이는 생산, 유닛, 손실 등의 메뉴를 체크할 것. 경기 중 마우스 모인토로 알려주는 정보창을 확인하면 배는 재미가 훑힐 거다. **☞**

게임 연출이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게임 연출'이라는 직업은 낯설 뿐이다. 하지만 (스타크래프트2) 팬이란 '옵저버'라는 말로 친숙한 직업 중 하나. 프로스포츠의 카메라 감독처럼 E 스포츠 사임을 시청자에게 빠진단 있게 전달하는 게임 연출자의 역할. 경기의 맥을 잡아주는 또 한 명의 해설자다.



(1) GSL이 펼쳐지는 목동 영상고등학교 내에 위치한 곰TV 스튜디오. 고등학교 안에 스튜디오를 꾸린 것이 인상적이다. 경기가 된다는 날은 100여 명의 스태프가 중계를 위해 투입된다. (2) 프로그래머가 경기를 진행하는 부스. 복잡한 BENQ 모니터가 눈에 띈다. 저점에서 (스타크래프트 2)를 플레이하면 자신도 프로그래머인 양 부지불식간에 손이 빨라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3) 롤러코스터처럼 생긴 이곳에서 프로그래머들이 대기한다. 자리 앞에는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선수의 경기를 감상할 수 있다. (4) GSL 명예의 전당! 지금까지 우수한 선수들의 영광의 순간을 촬영한 사진이 한쪽 벽에 빼곡하게 메우고 있다. 과연 12번째 사진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가? 7월 30일 결승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경기 해설 중인 유저버블에서 게임 중인 안준영 해설위원. 재미 있는 해설로 (스타크래프트2) 팬들에게 인기가 높다. (6) 리하설 중인 곰TV 중계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안준영 해설위원, 이현주 캐스터, 채정민 해설위원이다. 예능감이 좋은 중계진답게 경기 도중 병행 티지는 웃음을 선물했다. (7) 스튜디오 한쪽 벽은 팬들의 재미 넘치는 치어블(응원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다. 요즘 모 에디터의 상징을 잘 표현한 치어블이 있어 하나하나 소개한다. (8) (스타크래프트 2)를 좋아하는 팬들의 사진으로 가득 찬 벽면 (9) 응모권을 작성하자 어느 줄이 좋은 재미있는 경기 도 보고, 레이저사의 키보드나 마우스를 득템할 수도 있다

## 곰TV 마스코트



“곰녀가 왔어! 곰 부우~!” 목동 스튜디오를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매력 만점 그녀를 MAXIMI가 놓칠 리 없지. 여러분의 반응이 궁금하다면 9월 MAXIM에서 또 만나볼 수 있음치도!



연간 총 5개의 리그로 구성되며, 각 리그는 시즌으로 구분된다. 리그의 성격에 따라 연간 1회부터 7회까지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다. 2011 GSL 투어 시즌1 코드S 결승전은 7월 30일 토요일 15시 10분 연세대 체육관에서 진행된다.

## PRO'S GEAR



아니 거길 왜 물어가는대?

## 당신도 게임 연출자가 될 수 있다.

적어도 정비만큼은 인간 성능은 커버 안 된단 건 알고 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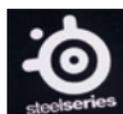
컴퓨터 (스타크래프트2) 게이머일 정도의 조립 PC



마우스 RAZOR KRAIT



키보드 TESORO M7 LED 기계식 축축



마우스패드 STEELSERIES QCK

교체사: 3개월

## 우쿨렐레 피크닉, 히와이에서 물 건너 온 4줄짜리 현악기 우쿨렐레로 청량한 여름 음악을 들려주는 밴드가 왔다. 그들의 음악을 듣노라면 온몸이 뽀송뽀송해지는 기분이 절로 들 거다.

### 정바비가 만난 여름 밴드



**오**랜만에 악기 상가를 찾았다. 깜짝 놀랐다. 민속 악기 전문점에서나 볼 수 있던 우쿨렐레가 사방에 널려 있었다. 길이 50cm, 지면이 이담해 손이 작은 사람도 곧잘 칠 수 있는, 무엇보다 네일숍에서 손질한 손톱을 굳이 깎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서 아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우쿨렐레! 새로 나온 음반 중 팬과 나누고픈 음악을 골라 한자리에서 들어보는 정바비(리스닝 캠프리현션)의 이달의 주인공 역시 우쿨렐레를 국내 최초로 전면에 내세우며 활동하는 우쿨렐레 피크닉이다. 작년 여름 '작은 고양이'로 많은 사랑을 받은 그들이 2집을 들고 우리 곁에 돌아왔다. 그들의 대화 중 역키스만 '모아, 모아시, 모아시' 소개한다.

**프로듀서 이병훈 씨는 1집에서는 한발 뒤로 물러나 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2집에서 첫 곡의 첫 소절은 당신 쪽이다. 방향의 전환이 있었던 건가?**  
**병훈:** 원래 그 곡은 음반 중간 즈음에 가볍게, 단순한 느낌으로 나 혼자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만나다 보니 태준과 진아도 함께 부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처럼 확장했다. 1집 때도 그랬지만 나는 전면에 나설 생각이 없었다. 노래를 땀 지 3년이나 됐다. 춤을 땀 지는 벌써 12년 됐고(웃음).

**이번 음반은 피커션(타악기) 위주의 1집보다 확 한 밴드의 느낌으로 편성한 곡이 많다.**

**병훈:** 공연 때 좀 더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넣고 싶었다. 1집에서 태준(타)이 공연에서 잘 놀더라. 그런 장점을 살리고 싶었다.

**진아 씨는 국악 그룹 아이에스에서 가요계를 연주 중이다. 우쿨렐레 피크닉에서 노래하는 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진아:** 아이에스에서는 가요계를 쳐야 하기 때문에 노래에 100% 집중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우쿨렐레 피크닉에서는 싱어로 참여하는 거라 노래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24현인 가야금에 비해 줄이 4개인 우쿨렐레는 배**

**우기 한결 쉬웠을 텐데?**

**진아:** 아니다. 줄 수와 상관없이 어느 악기든 배우기는 어렵다(웃음).

**병훈:** 아니. 난 이렇게 우쿨렐레를 빨리 배우는 사람은 처음 봤다. 배운 지 고작 한 달인데 우리 음반에 수록된 곡을 거의 다 연주할 줄 안다.

**프로듀서로서 진아 씨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듬을 생각이었나?**

**병훈:** 진아는 항상 웃는 밝은 사람이랑 발랄한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지만 사실 어두운 노래가 잘 맞는 목소리를 가졌다. 특유의 서정적인 느낌이 인상적인데 이번 음반 수록곡 '편지'에서 그런 매력 이 잘 들어난다.

**'바다'라는 노래의 가사는 내가 썼는데 데모곡을 받았을 때 파일림이 '광식이 동생 광태'였다. 영화 <광식이 동생 광태> 사운드트랙 작업 중 만든 곡인가?**

**병훈:**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봉태규와 김아중이 다시 만날 때 흘러나오는 '재회'라는 연주곡이다. 영화와 별개로 해낸 느낌이 잘 사는 노래로 다



최담희 영상 보기 가기



시 만들어 발표하고 싶어 이번 음반에 수록했다.

**여름 음반이나 늦지 않게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을 거다. 한정된 시간에 집중적으로 작업하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병훈:** 우쿨렐레 음반을 만들 때는 열여덟에 것에 집중했다. 가능한 많이 덜어내야 우쿨렐레만의 매력 이 돋보이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 고민은 계속 했지만 작업 자체는 비교적 편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곡은 별로 편곡이 인상적이다.**

**병훈:** 태준이 올 초 하와이를 2달 정도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만든 노래 중 하나다. 듣자마자 첼로 가 음악에 걸리면 잘 어울릴 거란 생각이 들었다. 진아가 합류하면서 가이군 연주도 함께할 수 있어 더 좋았다.

**태준 씨는 하와이 스타벅스에서 이 곡을 썼다고 들었다. 너무 뒷담화스러운 것 아닌가?**

**태준:** 사실 하와이의 유명 커피 전문점을 갔었는데

주문이 너무 복잡해서 부담스러웠다(웃음). 그래서 나중에는 주문하기 제일 편한 스타벅스를 즐겨 찾았다. 하와이에서는 몸 컨디션도 좋았고, 참 행복했다. 계획을 세운다기보다 한 가지 생각이 집중할 수 있다는 느낌이랄까? 주위가 산만해서 책을 거의 읽지 않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집을 봤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란 시가 특히 감동적이었고, 내가 만든 멜로디를 붙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와이에 머무를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많았을 것 같다.**

**태준:** 출국 직전에 있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와이 가기 전날 과음으로 당일 비행기를 놓쳤다(웃음). 공식 환송회 한 3번 하고, '나가 가라 하와이' 란 이름으로 환송 공연까지 시끌벅적하게 했고, 출국할 때 가방 안에 선불로 받은 선크림만 5개나 있는 상태라 망연자실했다. 친구에게 전화해 인천공항 안에 잠할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물어봤더니 그냥 차를 타고 20분만 나가면 울왕리 해수욕장이 있다더라(웃음). 그래서 그곳 '카리브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다

시 비행기를 썼다.

**작년에 태준 씨가 만든 우쿨렐레 교재 <조태준의 셀리브 우쿨렐레>는 절친리 판매 중인가?**

**태준:** 꽤 잘 팔렸다. 책을 보는 일도 없는 사람이 책을 만든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 소속사 정우초 실장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 처음 우쿨렐레를 배울 때 교재가 없어서 하나에서 열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익혔던 애환을 떠올리며 열심히 만들었다. 우쿨렐레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아:** 나도 그 교재로 우쿨렐레를 배웠다. 제가 세 쌍둥이 자매 중 첫째인데 집에 책이 하나밖에 없어서 매번 서로 보겠다고 싸울 정도다(웃음).

**병훈:** 작년 발매한 우쿨렐레 피크닉 1집보다 책이 훨씬 잘 나갔다(웃음). 물론 제일 덕을 본 건 우쿨렐레란 악기 자체다. 한 달에 3,000대씩 팔리다고 들었다. 이미 영국에선 전체 악기 판매 순위 2위가 우쿨렐레라더라.

**우쿨렐레 불에 우쿨렐레 피크닉도 한했을까.**

**병훈:** 1집처럼 2집도 여름날 조금씩 들어놓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음반이다. 여러분이 한 장씩 구입해주면 고맙겠다(웃음).



병훈



진아



태준

정바비의 신보 청취회 (리스닝: 컴프리헨션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정바비의 오피셜 블로그(bobby-chung.com)에서 신청하기 바랍니다.

## 정바비가 말하는 우쿨렐레 피크닉



우쿨렐레 피크닉이 1년 만에 2집 (일로)하 기본 좋은 인트로로 돌아왔다. 리듬이 병훈은 (준)가운 인생. (어) 복이 달라라. (황)애 등의 사운드트랙으로 잘 알려진 신년 음악감독으로 삼수 년 전부터 우쿨렐레 마니아이자 전도사 역할을 도맡았다. 일렉

스의 프리프로자코로 유명한 '남쪽곰'의 원곡자 조태준(DJ)이 밴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1집의 보컬 케피에 이어 2집에서는 곡작 세쌍둥이 그룹 아이메스(3)의 진아가 힘을 보탤다. 그들이 들려주는 상쾌한 여름 음악을 놓치지 말 것!



# S+STUFF

## FLY HIGH!

## HTC FLYER

펜을 담은 태블릿 HTC 플라이어.  
아이패드 대항마로 날아오를 가능성을 보여준다.

BY 김성현 PHOTOGRAPH BY ARC STUDIO



10년 전에는 MP3만 들고 다녀도 얼리어답터였고, 5년 전에는 하드드라이브처럼 생긴 PMP에 동영상만 넣고 다녀도 낄놈했다. 하지만 이제는 개나 소나 스마트폰에서 음악, 동영상은 물론이고 웹서핑과 게임까지 즐기는 게 기본인 세상이다. 심지어 스마트폰의 4인치 액정도 답답하다며 7인치 이상의 큼직한 화면을 자랑하는 태블릿에 관심이 옮겨가는 추세다. 아이패드 특유의 패색성이 싫어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고려하고 있는 이라면 HTC의 플라이어를 눈여겨볼 만한 거다.



## 태블릿의 참맛 타치펜질의 회귀

가장 큰 특징은 타치펜의 부활이다.

아이패드도 대표되는 태블릿, 소위 정전식 타치를 활용하는 제품군에서 타치펜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플러이어의 펜은 그리는 용도로 국한되었지만 액정에서 펜질을 하던 과거 태블릿의 손맛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액정에 타치펜이 닿는 순간 화면이 캡처되기 때문에 여기에 메모 작성 및 그림을 그릴 수 있고, 파일로 저장은 물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바로 쓸 수 있다. 문서 파일은 기본이고, 웹서핑 중에도 언제든 화면을 캡처해 메모할 수 있다. 것도 플러이어만의 강점. 직장인이려면 기본 탑재된 녹음 기능과 함께 활용하면 별도의 회의용 작성이 필요 없애질 거다. 태블릿에 메모할 때 녹음된 시간까지 기록되기 때문에 메모와 함께 녹음된 음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당시 상황을 복기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하지만 인터넷에도 재생 중인 동영상에서는 타치펜 입력이 불거해서 화끈한 아들의 중요 장면을 캡처해서 메모하는 건 어렵다. HTC, 이 바보 영종애

### 삼성 N1M1 표준이 뉴들이 텃밭 모르면 아쉬운 삼성이 비자료를 할 수밖에

삼성전자도 글로벌 5대 출판사가 공동 설립한 전자집시 유통회사 N1M1과 손을 잡았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탭 10.1에서 (GO), (부고), (코소모플러틴) 등의 잡지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을 판매하여야 하니 삼성이 똥을 빠지게 뛰어나고 있는 거다. 그나마 삼성 갤럭시탭은 국내 유통도 전자 출판물을 보고 싶으니 호갱님 취급은 이제 그만

## 장점

- 1 역시 휴대용 태블릿은 7인치에
- 2 어설플 허니콤보다는 안정된 진저브레드 타치펜으로 짜릿한 손맛을 느껴라! 그러, 그러는 거다!
- 3 HTC가 자랑하는 센스 3.0의 날씨 위젯은 역시 명불허전.

## 단점

- 1 HTC의 고질적인 마감 문제.
- 2 이어폰 단차 여행...
- 3 갑갑하지 아닌 타치펜의 한계. 세밀한 조적은 못하네.
- 4 같은 7인치인 갤럭시탭보다 약 36g 정도 무거운 무게.
- 5 듀얼코어가 판치는데 싱글코어가 여긴 어인 일이어.

## 올리관 스펙

HTC의 선택은 탁월했다. 무늬만 듀얼코어일 뿐 퍼포먼스는 후진 테그라2를 제외하고, 과감하게 싱글코어지만 클럭을 높인 1.5GHz 퀄컴 CPU를 선택했다. 대신 낙낙한 1GB 램을 탑재했다. iOS처럼 폐쇄된 플랫폼이 아닌 안드로이드는 멀티태스킹을 위한 가용 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연도 모바일 시장의 압도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순정 상태로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HTC의 손질이 더해졌다.

## 작렬한 카메라

'든 자리는 플라도 난 자리는 안다' 는 말처럼 이제는 태블릿에도 카메라가 없으면 허전하다. 플러이어 역시 전면 130만 화소 카메라, 후면 5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했다. 디지털 줌이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줌인&아웃도 가능한다. 다양한 이미지트 적용이 가능하니 촬영한 사진을 재미있게 만들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동영상 스키치는 물론 마이미플, 스카이프 종류의 어플을 활용하면 영상 통화도 된다.

## 낙낙한 내장 용량

HTC 제품답지 않게 32GB의 낙낙한 내장 용량을 자랑한다. (카우보이 비법) 예나 아니든 안드로이드용 버전이 약 17GB(총)으로 넣고도 15GB 정도가 남는다. 여기에 32GB 마이크로 SD카드를 탑재하면 최대 64GB 기기로 거듭난다. 지금까지의 500만 이상의 (웹퍼스) 및 (강철의 연금술사) 예나메이션 모두를 따르리 담을 수 있던 예기다. 어지간한 PMP 따위는 발라버리고도 남는다.

## 쾌적한 웹서핑

1GB의 램 버퍼 덕분에 웹서핑도 쾌적하다. 웹 표준인 HTML5는 물론 어도비 플래시 10.2를 지원하기 때문에 액티브 엑스와 플래시 도배집이 미더운 우리라니 웹 환경에서는 아이패드보다 속 시원한 웹서핑을 즐길 수 있다.

### 앱 스토어의 워업 사람들이 죽어라 앱 스토어를 파는 이유가 있다.

75	→	기기 1개당 평균 75개
10,000	→	아이패드 전용 앱 수
425,000	→	앱 스토어에 지금까지 누적된 총 앱 수
200,000,000	→	지금까지 팔린 iOS 기기
2,500,000,000	→	개발자에게 지금까지 돌아간 금액 <small>*달러 기준</small>
15,000,000,000	→	지금까지 누적 다운로드 횟수



# 브랜드별 디카 영상 촬영 성능 테스트

영상은 캠코더로만 찍는다는 건 전두환 전 대통령 워스 바르던 시절 얘기다.  
성능 테스트를 핑계로 요즘 잘나가는 디지털 카메라 4대를 들고  
모령의 아가씨(는 134p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에게 테스트를 신청했다.  
요놈들,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도 괜찮은데?

BY 박한빛누리의 PHOTOGRAPHS BY ARC STUDIO  
주소: 영천 대령리조트(1588-4888)



## CANNON EOS 600D



1,800만 화소의 고화질만 제외하면 눈에 팔 것도 없는 무난한 녀석인 줄 알았더니, 동영상 기능만 살펴봐도 이전 모델 5500D의 뺨치귀를 한 대 올려 다. 영상이라고는 아동안 봐은 문화란이라도 비디오 스냅 기능을 이용하면 괜찮은 작품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동안 연신 거대한 망원렌즈를 들고 다니며 망가여 왔던 줌 기능 따위는 개나 쥐버리고 디지털 10배 줌으로 실컷 도촬해보세~

**GOOD** 최대 10배까지 줌거주는 디지털 줌 / 바람 소리 제거 기능과 다양한 프레임레이트 지원 / 간단한 편집과 배경음악까지 넣을 수 있는 비디오 스냅 기능

**BAD** 소음이 크고 다소 느린 처리 속도의 AF / 초점을 잡을 때 변경되는 노출

가격 1,168,000원

문의 [www.cannon.co.kr](http://www.cannon.co.kr)

02-2191-8559



## NIKON D5100



아간 촬영은 이 녀석을 당할 재간이 없다. 나이트 비전 모드는 고감도 성능을 원기옥처럼 끌어올려 어두운 곳에서도 깨끗한 촬영이 가능하다. 다소 가벼운 무게임에도 배터리 하나만큼은 번강 식라 불릴 만큼 만족스럽다. 다양한 특수 효과 촬영 기능으로 하세 가득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다. 다른 타 기종에 비해 가격 거품을 뺐지만, 같이 빠져버린 AF모드 때문에 초점을 수동으로 맞춰야 한다는 게 다소 아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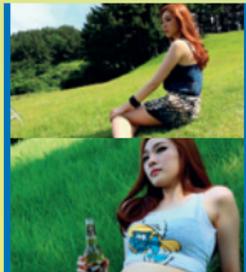
**GOOD** 어두운 밤에도 선명한 도촬을 가능케 하는 고감도 성능 / 심형래도 울고 갈 다양한 특수 효과 촬영 기능 / (번지의 제왕)을 찍을 만큼 뽕뽕한 배터리

**BAD** 수동으로 잡아줘야 하는 포커스 기능 / 저장 용량을 잡아먹는 2Mbps의 낮은 비트레이트

가격 752,700원

문의 [www.nikon-image.co.kr](http://www.nikon-image.co.kr)

02-6370-3132



## SONY A55



DSLR라고 2행을 떨어 DSLR을 무시하는 배알 꼴리게 만드는 녀석이다. DSLR는 Translucent, 즉 반투명 거울을 장착했다는 건데, 반사거울로 촬영되는 타 기종과는 달리 카메라 센서 깊목에 하이패스를 단 것처럼 동영상 촬영 중에도 반셔터 동작으로 조용하고 빠른 AF가 가능하다. 본체에 내장된 흔들림 보정 기능은 어떤 렌즈와도 호환 가능하여 아간. 실내 구분 없이 그녀와의 뜨거운 영상까지 남길 수 있으니 알림지만 탐이 날 수밖에.

**GOOD** 반투명 미러 기술과 워셔로 빠르게 잡아내는 AF 기능 / 다중프레임 노이즈 감소 기능으로 실내, 아간 촬영도 OK / 수전증 환자를 고려한 본체 내장식 흔들림 보정 기능

**BAD** 다양하지 않은 렌즈 / 초보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아래쪽에 달린 LCD 힌지

가격 1,048,000원

문의 [www.sony.co.kr](http://www.sony.co.kr)

02-6370-8060



## PANASONIC LUMIX G3



뷰파인더를 장착한 렌즈 교환식 하이브리드 카메라 중 가장 작고 가벼운 녀석임에도 DSLR 형님을 못지않은 성능을 지녔다. 동영상 촬영 도중 LCD 터치만으로도 자동초점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튼 하나만으로도 영상 스틸 컷 촬영이 가능하다. 동영상 부활 기능을 통해 필요없는 영상 따위는 단숨에 삭제할 수 있으니 메모리카드엔 이쁜 이들도만 가득할지이다.

**GOOD** 당신 주둥이만큼 가볍고 작은 본체 / 터치만으로 조작 가능한 간단한 메뉴얼 / 동영상 촬영 중 사선 촬영이 가능한 스틸 컷 기능

**BAD** 작은 보디만큼 소심한 배터리의 조루중 / 아들에게 약한 여행용 감도

가격 899,000원 / 문의 [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02-556-5421

# HOT SUMMER GEAR



바닷가에서 {x}처럼 뜨거운 아낙네를 닮아 질펀하게 놀고 싶다면 이 정도 징비쯤은 챙겨두자.

모름지기 계절질드 징비빨이 받쳐줘야 하는 법이다.

BY 강산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STYLING 교현희 FILM 강민숙 HAIR 심나리(베네스다 02-546-7767) MAKEUP 교영은 MODELS 아진아, 조유림, 이보라, 최인영

COOPERATIONS 북시(02-546-7764) 코대주점바인 이너웨이(02-3444-7722) 밀러브푸틴코리아(www.miller.co.kr) 정스 협인 대영리조트(1588-4888)



## LOGOS

### 250FR+Z TENT

보통 텐트는 방수가공하기 때문에 바깥 공기와 텐트 안의 온도 차가 크다. 이것 때문에 바깥의 비바람은 피해도 텐트 안은 습기가 엄청나 옷이나 침낭이 축축해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이 녀석은 위아래에 게폐 가능한 창이 있어 환기가 탁월해 눅눅한 공기는 이제 굿바이다. 텐트 안에서 BBDO를 비롯해 화기를 사용하는 일이 잦은 걸 고려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원단을 채택, 미국의 난연성 기준 CPAI-84도 통과했으니 당신이 불에 타서 죽을 확률도 대폭 줄었다. 유해 자외선 98% 차단과 360° 최전식 지퍼는 덤!

가격 390,000원 문의 [www.logoscorp.co.kr](http://www.logoscorp.co.kr) 02-817-3888



## AQUA PACK

### SMARTPHONE & IPAD PACK

인터넷에서 싸게 파는 아쿠아팩만 믿고 스마트폰과 카메라를 물놀이에 나섰다가 개피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닐 거다. 일명 찌꺼기를 불인 후 돌돌 마는 싸구려 방수팩은 수중에서 잠깐은 버틸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방수 능력이 급방 고지가 된다. 물 건너 온 아쿠아팩은 가격이 다소 비싸지만 공기마저 참고는 특수 버퍼와 방수팩 재질이 거의 완벽하게 물을 막아주는 데다 터치까지 문제없다. 아쿠아팩과 함께라면 물에서 MAXIM 아이패드 매거진을 보는 신세계를 체험할 수 있을 거다.

가격 35,000원(스마트폰), 43,000원(아이패드)

문의 [aquapackkorea.co.kr](http://aquapackkorea.co.kr) 02-332-4783



LOGOS G | COT-4

가격 148,000원

문의 [www.logoscorp.co.kr](http://www.logoscorp.co.kr)  
02-817-8888

주황색 비키니 코데조컴바인 이너웨어



**BACKTRACK GPS**  
BUSHNELL

바닷가에서 (1박 2일) 여행 체험을 하고 싶다면 GPS는 필수다. 아심한 밤, 장사전을 이룬 텐트촌 사이에 들어가면 한강강과 상실하기 딱 좋고, 흑여 실수로 남의 텐트에 들어갔다 간 거사(?)를 치르는 커를에게 따귀 크리를 맞을지도 모른다. 부시넬의 백트랙 GPS는 3개 지점까지 위치 저장 가능하니 차와 텐트, 그리고 마음에 드는 처지가 묵는 숙소의 위치를 저장해두면 한결 스마트한 여름휴가가 될 거다.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주머니에 꼭 들어가는 사이즈니 휴대 걱정도 끝!  
가격 155,000원 문의 [www.netpx.co.kr](http://www.netpx.co.kr) 1661-5915



**Kozel Dark**  
일리브루잉코리아

코젤 다크는 체코를 대표하는 흑 맥주로 달콤한 카라멜 향이 유럽 여행 중 다녀왔다는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해 지는 해변가에 그녀와 앉아 병을 기울이면서 리브러브 모드를 조성하기 좋다. 알코올 도수는 3.8도, 용량은 500mL.



**OUTDOOR SURVIVAL TIP**

**1** 거꾸로 치는 파도를 만났을 때

파도가 갑자기 먼 바다 쪽으로 빠르게 되돌아가는 현상을 '이인류'라 한다. 이인류에 휩쓸리면 시커먼 물 밑에서 뭔가 다리를 잡아당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여태껏 물귀신인 줄 알았지? 이인류에 휩쓸리면 아무리 해변으로 해엄을 쳐도 다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고 만다. 수영을 못하면 기만히 구조를 기다리고 해엄을 치려거든 45° 각도로 더 먼 바다를 향해 해엄치는 게 이인류를 벗어나는 길이다. 일단 이인류의 흐름을 벗어나면 다음 해변으로 유유히 헤엄쳐 오도록!

**2** 모래늘에 빠졌을 때

모래늘은 살려고 비동거림수록 점점 더 아래로 빨리 들어간다. 그러나 다음 단계를 아주 느린 속도로 실행하자. 먼저 막 대기를 모래 위에 놓고 그 위에 등을 대고 누워서 다 이상 아래로 빨리 들어가는 걸 방지하자. 그런 다음 줄이나 채찍을 근처 나무에 휘감아 묶고 조금씩 빠져나오면 된다. 채찍이 없으면 망하는 거네!

**3** 멧돼지를 만났을 때

멧돼지 앞에선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등을 보여선 안 된다. 그러면 직감적으로 당신이 겁먹은 걸 안 멧돼지가 즉발당수로 날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멧돼지 앞에선 선착하는 게 유리하다. 멧돼지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거나 우산 등을 펼쳐 당신을 비우려 착각하도록 만들어라. 침고로 멧돼지는 사색이 나쁘다. 근대 이게 다 실전에서 기억이 날지..





조목색 베카니 록시



**DIVOOM**  
ITOUR-WOW

여행에 음악이 빠질 순 없다. 그렇다고 모양 빠지게 노트북 스피커로 딱 막힌 소리를 듣고 싶진 않다면 이 녀석을 관심목록에 올려둘라.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이 일단 먹고 들어간다. 집게손가락 2개 정도 되는 사이즈인 주체에 6시간 정도는 밥을 먹지 않고도 버틴다는 것도 만족스럽다. 스마트폰과 연결해 쓰기 딱 좋고, 그게 귀찮다면 SD카드에 음악을 담아 MP3P처럼 활용해도 된다. FM 라디오도 들을 수 있으니 파도 소리 칠랑거리는 바닷가에서 머리맡에 놓아둘 녀석으로 안성맞춤. 소리로 병방거리지 않고 시원한 편이다.

가격 45,000원 문의 [www.joygear.co.kr](http://www.joygear.co.kr) 070-8688-7889

**GOAL ZERO**

SHERPA 50+NOMAD SOLAR PANEL

야영할 때 제일 피곤한 일은 전원 확보다. 하지만 당신이 가는 곳에 햇빛은 차고 넘친다면 이 둘만 챙기면 끝이다. 휴대용 전원 장치인 셰르파가 있으면 노트북으로 최대의 욕대(싱기생연) 4편을 정주행하는 건 문제없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도 3일 정도는 배터리 걱정 없이 쓸 수 있다. 12V 충전 포트를 제공하여 차량용 소켓 및 USB 단자로도 충전이 가능하다. 무게가 1kg이 채 되지 않아 휴대하기 좋다는 게 강점. 술과 페넬은 말 그대로 태양 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녀석이다. 당신의 노트북을 굴리기 위해 힘이 빠진 셰르파의 기력을 되찾아준다. 셰르파50을 기준으로, 충전하는 데 해가 쬐하게 뜬 날은 9시간 정도, 흐



LOGOS G | G0T-4  
 가격 148,000원  
 문의 [www.logoscorp.co.kr](http://www.logoscorp.co.kr)  
 02-817-3888



린 날은 30시간 정도 걸린다. 패널에 별도의 고리가 있어 텐트에 걸거나 이동 중 배낭에 걸어두ں 채로도 손쉽게 충전이 가능하다. 패널끼리 연결해 한 번에 많은 양을 충전할 수 있으니 충전이 급하다면 같은 패널을 가진 이와 힘을 모아 시간을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가격 498,000원(패키지)  
 문의 [www.xlife.co.kr](http://www.xlife.co.kr) 053-246-5895



## 4 곰을 만났을 때

곰은 청각과 후각이 발달해 보기와 다르게 민감한 냄새이라 사람이 오는 기척이 들리면 피하는 습관이 있다. 깊은 산 속에선 소리 나는 방향을 배낭에 달아 당신이 여기 있다는 걸 곰한테 알려라. 그럼에도 곰과 딱 마주한다면 마친가지로 등을 보이지 말고 조용히 벗어나거나 급소를 보호하는 자세를 취해 엎드린다. 참고로 곰이 앞발로 가격하는 힘은 소나 사슴을 죽일 정도로 세다.



## 5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구조대도 오지 않고 주위가 완전 캄캄해져서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다면 최소한 동시하는 것만큼은 피하라. 거울광이든 양손을 끼고 무릎을 세우고 웅크려 앉으면 체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다 갑자기 멧돼지가 나타나면 온몸을 최대한 크게 벌리는 거 알지?



## PANASONIC TOUGHBOOK CF-52

이름과 제품이 이렇게 잘 어울리기도 힘들 거다. 파나소닉의 티프북은 미국 국방부 규격을 만족시키는 노트북. 한마디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티프한 녀석이란 얘기다. 딱 보기에도 비싸 보이는 마그네슘 케이스는 76mm 높이에서 낙하해도 열병하고, 물을 키보드에 끼어들어도 끄떡없다. 비를 맞으면 노트북으로 타이핑해보자 같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라. 당신의 몸무게가 0.101이 아니라면 노트북을 밟고 지나가도 부서질 일 따윈 없으니 걱정 붙들어 매라. 가격 빠른 출점을 데 없는 최고의 아맛도어용 노트북이다.  
 가격 3,680,000 원대  
 문의 [www.panasonic.co.kr](http://www.panasonic.co.kr) 1588-8452

이외 촬영장  
옛보기



페이지서 비카니 코덱스컴바인 안내해어

## PENTAX

### WG-1

방수 카메라로 팬택의 옴티오 WG-1을 추천하는 이유는 막 굴리가 좋기 때문이다. 사실 물놀이에 가서 카메라를 애지중지 모시기가 어디 쉬운가. 이런저런 호젓한 사진을 잡아내려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지면에 번지 점프하는 일도 심심찮게 발생하게 마련이다. WG-1은 1.5m 높이에서 떨어 저도 끄떡없고, 수중 10m 깊이에서도 버티는 데다 물속에서 2시간 정도는 거뜬히 촬영 가능하다. 디지털 현미경 모드도 제공하니 이참에 당신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같은 여자친구를 찾아보는 것도(응?).

가격 400,000 원대

문의 [www.pentaxkoreaservice.com](http://www.pentaxkoreaservice.com) 1588-2708



## LIQUID IMAGE

### VIDEO MASK 320

비닷가에서 해파리처럼 튜브를 타고 떠다니는 건 죽기보다 싫은 차도 남아라면 이참에 비디오 마스크나 하나 질러보는 건 어떨까? 스노클링, 수상스키 등 수상 레저에 최적화된 이 녀석은 마스크에 내장된 카메라로 20m 깊이의 바다에서도 수준급의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내장 메모리도 16GB로 넉넉하기 때문에 기기에서 지원되는 해상도의 동영상(720×480 해상도, 30프레임)이라면 추가 메모리가 굳이 필요 없을 정도. 비닷가에서 물놀이용 안경과 캠코더를 한방에 해결하고픈 실은 이에게도 추천.

가격 235,000원 문의 [www.vellatrix.co.kr](http://www.vellatrix.co.kr)



## LOGOS

### MOBILE SHOWER PUMP

바닷가에서 물놀이 후 근처의 샤워장을 찾아 편물을 씻어내는 게 여간 성가시다.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샤워장을 찾을 수 없는 노릇. 그러나 바다로 떠날 거면 일찌감치 모바일 샤워 펌프를 하나 장만해두자. 모터가 장착된 부분만 물 안에 넣어두면 열심히 펌프질을 해 샤워기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전용 바스켓 또는 양동이에 물만 확보해두면 어디서든 손쉽게 샤워할 수 있다. 건조지 4개로 5시간을 버티는데 차량 시거잭으로 연결해 사용도 가능하다.

가격 49,000원

문의 [www.logoscorp.co.kr](http://www.logoscorp.co.kr) 02-817-3888



오늘 반찬은  
너님이다!



## OUTDOOR SURVIVAL TIP

### 6 상어를 만났을 때 1

이제부터 바다에 갈 땐 반드시 건조지를 휴대하자. 상어는 다른 어류보다 전류 감지 능력이 뛰어나 물에 건조지를 빠뜨리면 그 전류를 감지해 건조지 근처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따워 만명인 새 건조지를 물에 넣으면 강력한 방전이 발생해 1.5볼트 건조지는 약 1분 정도, 1.2볼트 건조지는 약 20초 정도만 효과적이다. 도망간 상어들이 다시 하나 둘 모여들기 전에 물에서 재빨리 빠져나올 것.

### 7 상어를 만났을 때 2

생리중인 여친과 함께 바다에 뛰어들면 상어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파냄새가 상어를 유인하기 때문이다. 상어와의 조우를 더 양망기고 싶으면 해가 질 무렵 수심이 깊자기 깊어지는 곳으로 헤엄쳐 갈 것. 상어는 해질녘에 수면 가까스로 올라오거나 수심이 낮은 곳에 숨어 있다!



### 8 차가 물 속으로 가라앉을 때

차가 물 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하면 일단 창문 하나를 재빨리 열자. 비록 당신의 몸이 빠져 나갈 만큼 충분히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차 안으로 물이 차 들어오면서 안과 밖의 압력이 동일해져 문을 열기가 수월해진다. 차가 물에 잠기게 되면 수압 때문에 차 문 열기는 힘들어 지나까 하아쿠! 하아쿠!



STUFF

# Boom Boom Box

여자친구와 달밤에 조용히 분위기 잡을 때는 Y작과 헤드폰이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놀아 재밌을 때는 빅사운드 붐박스가 제격이다. 여름밤을 볼태우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솔루션은 없다!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MODEL 조유림  
장소 협한 대명리조트(1588-4888)

## ▶장점

- ✓ 아이폰 못지 않은 모던한 디자인
- ✓ 직관적이고 간지나는 라이트 업(Light Up) 터치 패널
- ✓ 이퀄라이저를 단순화해 손쉽게 저음과 고음의 양감을 취향대로 조절
- ✓ 전자기타용 6.3mm 플러그를 연결하여 앰프로도 사용 가능
- ✓ 무엇보다 야외에서 들을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서 가장 고출력!

## ▶단점

- ✓ 들고 돌아다니면서 들으라는 포터블은 아니다.
- ✓ 콘센트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지가 '달이' 필요하다.
- ✓ 미묘한 플레이어 거치대가 없다. 내 아이팟은 대체 어디에 뒀어 해?

## TDK 붐박스 삼총사 선택가이드

에디터 추천

### → 사운드 큐브

가로 세로 25cm 큐브 모양의 붐박스 패밀리 막내. 하지만 두 개의 스피커와 두 개의 우퍼로 유닛 구성은 가장 풍성. 덕분에 저음이 오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장 흥미로운 사운드를 들려준다. 무게도 가장 가볍고 가격도 가장 저렴하다.

가격 499,000원



### → SP-XA6802 2스피커 붐박스

보질 양감이 뛰어나 끝이나 특 사운드를 흥미롭게 재현한다. 하지만 음역대가 그리 넓진 않아 관악기나 현악기의 고음을 시원하게 들려주지 못하고 유닛이 붙어 있어 공간감이 적다. 일렉트로나 기타 재즈에는 추천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디자인은 심형제 중 최고!

가격 699,000원



### → SP-XA6803

#### 3스피커 붐박스

2스피커 붐박스에서 아쉬웠던 저음역대를 보강한 모델. 대부분의 음악적 특성이 유사하지만 합합 음악을 좀 더 흥미롭게 들려준다. 바뀐 값을 하는 거지, 그렇지 만 속형들도 피동 싹 만한 무게는 어쩔 견대?

가격 899,000원

문의 라미전(02-749-0461)



## 2권 이상 무료 배송 배송비 합계 기준 인터넷 최저가

MAXIM을 인터넷 서점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다면?  
지난 호 MAXIM을 보고 싶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으로 오라!



## MAXIM DIGITAL CONTENTS

그대가 진정한 MAXIM의 마니아라면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으로 당장 달려와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자!

- 수시로 타지는 이벤트와 쏟아지는 선물 세레
- MAXIM 고화질 화보와 앨범이더 다운로드 서비스
- 잡지보다 저렴한 가격의 MAXIM e매거진 보기
- 촬영장의 생동감이 살아 있는 MAXIM 영상 화보 무료 공개
- 잡지에는 없는 미공개 화보 킷과 기사 감상
- 연예인보다 섣시한 여성 독자 모델들의 사진 감상과
- MIS MAXIM 투표 참여

## MAXIM AUGUST 2011

정기 구독 신청 안내

**6** 개월 정기 구독

정가 ~~32,400원~~

할인가 29,400원

3만원 할인  
+1000매 적립

**12** 개월 정기 구독

정가 ~~64,800원~~

할인가 57,800원

1만원 할인  
+2000매 적립

**24** 개월 정기 구독

정가 ~~129,600원~~

할인가 114,600원

1만5천원 할인  
+4000매 적립

**36** 개월 정기 구독

정가 ~~194,400원~~

할인가 164,400원

3만원 할인  
+6000매 적립

**48** 개월 정기 구독

정가 ~~259,200원~~

할인가 209,200원

5만원 할인  
+8000매 적립

배송보다  
배품이  
더 큰  
MAXIM의  
정기 구독  
사은품!

사은품 확인  
하러가기



가스비 퍼펙트 스킨케어



연극 (키사라기 미카)



명품 가죽 코팅제 에방실 일로



반다이 정품 프리모델



연극 (웃음의 대학)

MAXIM 웹사이트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정기 구독 신청 배너를 클릭하거나 MAXIM KOREA로 전화하세요. Tel. 02-323-1182

### 결제 방법

- 1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에서 신용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
- 2 무통장 입금(예금주, 주식회사 와이미디어)
  - 하나은행 599-910012-00904 국민은행 189801-01-004866
  - 농협 355-0006-4797-03 신한은행 100-026-074070
  - 우리은행 1005-701-637646 기업은행 208-107032-04-013
  - SC제일은행 117-20-225316 우체국 012559-02-079161

\* '백'은 MAXIM 홈페이지에서 결제 시 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포인트입니다. (1백=1원)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과월호 1년 패키지 (1-12호)



TASK 셀프 탭



# TRUE ORIGIN OF TRANSFORMERS



영화는 끝났지만

사이버트론은 영원히 우리 곁에.

BY 송종민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전영훈  
COOPERATIONS 헤즈브로 코리아(www.hasbro.co.kr)

90년대 반다이 건담 프라모델의 등장에 밀려 미국으로 건너간 타카라의 변형 완구(다이아크론)와(마이크로맨) 시리즈는 완구와 미디어 믹스 전략의 파괴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를 만들었다. 거대 완구 회사 헤즈브로는 코믹북 시리즈를 마블과 발매하는 한편, 삼부작 파일럿 애니메이션을 선보였는데 이게 대박이 나서서 4년간 4시즌에 가까운 텔레비전 애니메이션 시리즈와 극장판 영화를 만들기에 이른다. 그동안 완구가 불타나게 팔렸음은 물론이다. 헤즈브로는 미디어아말로 캐릭터 상품 흥행을 견인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임을 증명하며 최고의 토이 프랜차이즈를 갖게 되었다. 이 전설적인 완구 시리즈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트랜스포머>다.

그리고 방금 영화를 보고 나온 당신이 이 장난감이 미치도록 갖고 싶은 것도 27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헤즈브로의 전략이 또다시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물론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기쁘게 걸려들어주겠지만!

## 헤즈브로 트랜스포머 선택 가이드

변신 메카니즘 아티스트의 철저하게 계산된 디자인에 의해 서서히 변해가는 완구는 장난감임 넘어 거장의 경지에 이른다. 하지만 구조가 정교해 질수록 변형 난이도도 올라가는데 패키지를 싹 펴보면 총 3단계로 표시된 레벨 미터를 볼 수 있다. 3단계는 꽤 어려우니 설명서를 오래 들여다 봐야 할 거다.

- ▶ **리더** 25cm급으로 가장 크고 누르른 소리가 나는 기믹이 포함된다. 장난감이라기보단 소장용.
- ▶ **보이저** 20cm 정도 크기로 표준이라 할 만하다. 가격대 성능비로 꽤 만족을 줄 것이다.
- ▶ **디럭스** 15cm 정도 크기로 주머니가 가벼운데 꼭 장난감을 사이겠다면 이걸 고르자.
- ▶ **휴먼 알라이언스** 인간 파츠를 탑재할 수 있는 특별 세트. 삼킬 수 있으니 주의
- ▶ **캐릭터, 리전** 아이들을 위한 초산본 버전. 당신을 위해 딱이다.

▶ 제트왕 유티머스 프라임  
제트왕, 타카라, 토퍼  
리더급 유티머스에 대한 제트왕과 친함 미니건이 포함된 버전. 아쉽게도 브래일언어로 변신하지 못한다.

▶ 센타럴 프라임  
▶ 제트왕 헤즈브로  
리더급 사이즈로 대형 방패와 가래한 칼이 포함되어 있다.  
로켓배우어 쉘서 소항자로 변신

# 맥가이버, 시계와 사랑에 빠지다

맥가이버 칼 빅토리눅스와 균용 시계를 만들던 스위스 이미가 동거를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2011년 둘 사이에 태어난 이 녀석들. 애디 애버를 꼭 빼달았네? BY 박민빛누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 ● ALLIANCE Chrono 241481

MOVEMENT: SWISS-MADE QUARTZ MOVEMENT ETA 251.272  
CASE SIZE: 42mm

일본도로 내려쳐도 간지러울 스테인리스 보드에 스위스 ETA 무브먼트의 퀴츠 크로노그래프를 꽂았다. 일반 브랜드 시계의 무브먼트가 레고 인형 수준이라면 ETA 251시리즈는 건담 프라모델처럼 정교하고 복잡한 시스템으로 시간의 오차 범위를 줄였다. 가운데 박힌 크로노그래프는 1/10초, 60초, 30 분까지 측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쓸모 없다. 너무 조폭스럽지 않은 금장 장식도 이 녀석을 더 탐나게 하는 이유다.

문의 02-546-7764  
가격 1,250,000원

## ● ALLIANCE 241476

MOVEMENT: SWISS-MADE QUARTZ  
MOVEMENT RONDA 715  
CASE SIZE: 40mm

120년 전통의 나이프 종가집 빅토리눅스의 스틸 광범은 이미 견고함 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게다가 이 녀석의 심장은 미 해군 특수부대원들이 쓰던 스위스의 RONDA 715 무브먼트로 움직인다. 애초부터 균용으로 생산되었으니 내구성이나 방수 성능을 논하면 입만 아프다. 알맹이는 369와 날짜 표시밖에 없는 단순한 녀석이지만 아들을 거쳐 손자의 손목에까지 채워져도 손색이 없다.  
문의 02-546-7764  
가격 665,000원



시계 자세히 살펴보기



### WATCH THIS!

2008년 이후 태어난 빅토리눅스 스위스 이미 녀석들은 사전처럼 시계 다이얼에 Victorinox Swiss Army라고 적혀 있다. 앞면에 Swiss Army, 시계 뒷판에는 방패 로고와 Victorinox라는 글씨가 적혀 있어야 진짜베기다.

### 사파이어크리스털 글래스

강도로는 둘째가라면 딱 적당한 사파이어에 스크래치를 막아주는 총력방지 3중 코팅을 입혔다. 생활 속 스크래치는 완벽하게 방어하지만 다이아몬드로 시계를 내리 찌거나 나뭇가지 칼럼을 댄 싹땀 긁힐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전 여친 재탕 하는 법

떠난 남의 마음도 돌리는 필살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묻고 싶지만 원래 질척한 사랑일수록  
헤어나오기 힘든 법이다.

Recycle ♻️

> 여자의 심리는 도저히 복잡해서 알 수 없기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기도 하다. 특히 방금 이별을 겪은 여자의 심리는 더더욱.

> 당신이 찾든 찾지 않든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다. 당신과 당신의 전 여친이 연인사이를 종료하기로 한 순간부터 둘 사이는 완전히 돌아간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사귀는 동안 당신이 그녀를 더 좋아했는지 덜 좋아했는지를 따져봤자 뭐하겠느냐는 일단 헤어지고 나면 일종의 주도권 싸움도 완전히 돌아가게 된다. 사귀는 동안 여친에게 질질 앓던 당신이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

> 헤어지고 난 후의 첫 연락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판도가 바뀐다. EX-GIRL에게 이미 문자, 전화로 당신의 아픈 심정을 구구절절 토로한 상태에서 '여친이 도저히 내 마음을 안 알아준다'고 징징대 봐야 때는 이미 늦었다. 여친과 헤어진 직후부터의 전개를 온전히 당신의 페이스대로 끌고나가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만 알려주겠다.

# LOVE

## 헤어친 다음 날

### STEP 1. 인생을 걸러라

■ 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지만 헤어진 지 한 시간도 안 돼 그가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그 다음 날 바로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니 시시하게 느껴지는데? P(25세, 레이스 모델)

■ 갑자기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할까봐 늘 속속생설 메이업돌 한다. H(22세, 대학생)

**ALICE SAYS** 당신은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그녀에게 차인 경우라면 더욱 지켜야 할 덕목 No. 1이다. 그녀가 당신을 먼저 찾다고 해서 헤어진 뒤에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 병신 쓰레기 짓을 했다면 모를까... 그런데 게 아님 이상 한 때 연인 사이였던 당신이 잠시라도 생각하고 보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이다.

자신의 입으로 아픔을 통보한 그녀의 마음엔 옛 남친에게 한동안 미안한 감정이 남아 있다. 그렇게 헤어지고 싶어 안달이었다라고 먼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미안함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온갖 좋은 점을 떠올리게 된다. 그래도 '내가 제일 애쓰는데', '참 잘해줬는데', '영등이가 참 실했는데'라며, 그러다 어느 순간 그가 아주 괜찮은 남자였다고 굳게 믿어 버리게 된다. 이미 그녀의 머릿속에 당신은 비스트보다 더 멋진 남자가 되어 있다.

**DO** 무조건 참는다. **DONT** 헤어친 날 술길에 그녀에게 전화를 건다. 그 순간 그녀의 환상은 깨지고 만다. 당신은 이제 그녀 친구들 사이에서 '예전 남친'이 아니라 '그 짜질이 새끼'로 통용될지도 모른다. 감유신의 애마도 아니고... 속눈썹을 잘라야 하나?

## 일주일 경과

### STEP 2. 인생은 타이밍

■ 이노무시키가 사귄 댄 내가 예쁘다고~ 예쁘다고~ 그렇게 막상 헤어지니까 문자 한 통도 없네? P(25세, 레이스 모델)

■ 갑자기 집 앞으로 나오라고 할까봐 늘 속속생설 메이업돌 한다. H(22세, 대학생)

**ALICE SAYS** 자, 지금이 적다. 이때쯤 되면 그녀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나?'라는 생각에 살짝 뽀루뽀루해진다. 동시에 '별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혹시 불차병에 걸려 나와 헤어지자고 한 건 아닐까', '깜짝 이벤트로 나를 놀라게 하진 않을까', '집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등 병병생생각으로 지금 그녀의 머릿속은 상당히 복잡하다. 앉으나 서나 온통 당신 생각뿐이라는 거다.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애써 현실을 부정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DO** 이 타이밍에 그녀의 전화벨을 울리게 하면 게임 오버. 그동안 잘 참았다. 헤어친 지 일주일 지난 지금이 적다. 그녀가 당신에게 투정을 부리고 열미만 짜증을 내는 건 그만큼 당신이 보고 싶었던 거니까 별말 말고 그냥 다독여주면 된다. 토닥토닥~ 쓰드쓰드~ **DONT** 그녀의 집 앞에 찾아가는 건 아직 이르다. 전화만 해라. 당신이 그녀 앞에 나타나 버리면 '나도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다시 만나줘!'라고 말하는 꼴이다. 그녀의 마음 속엔 핑고도 심은 옥구가 다시 꿈틀거린다. 빛이 그리워어도 한 번에 환하게 하늘이 열리면 시시한 법. 원래 희망의 빛은 한 줄기만 뿌려주는 거다.

## 보름 경과

### STEP 3. 둘은 핑게로 만나라

■ 그가 매일같이 전화해 다시 사귀려고 핑게를 떠운다. 그에게 날이 있던 좋은 감정마저도 죄다 사라질 지경이다! S(24세, 아나운서 지망생)

■ 그가 자꾸 만나자고 해서 아예 연락을 끊은 적이 있다. L(28세, 레스토랑 운영)

■ 그가 나의 집 앞에 왔다고 해서 그와 밤을 보낼 준비까지도 하고 나갔다. 그런데 예전 그답지 않게 나를 고이 집에 데리고 오는 거! 왜, 왜지? K(26세, 홍보 대행사)

**ALICE SAYS** 그녀와 만나고 된다고 한 거지 사귀자고 말하는 건 아니다. 발뺌거리는 당신의 주니어는 실패도 단 감에 뱉어버리는 게 좋지 않겠냐고 끊임없이 당신을 설득하겠지만 막상 당신이 "여분, 우리 오늘부터 다시 1일 해용~♡"같은 실망스러운 제안을 하면 기껏 떨어왔었던 그녀의 마음이 급격히 싸늘하게 식어 버린다. 여자, 여자, 여자. 그의 이름은 갈대야!

그녀를 좀 더 안달나게 만들어라. 단지 한동안 굶어서 아쉬운 마음에 한 번 만나 섹스나 할 목적이었다면 상관없었지만 다시 제대로 사귀어를 요랑이라 하면 "보고 싶었다"는 말은 해도 '사귀자'는 말은 아껴 둘 것. 대의를 위해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위네 **DO** 만날 거라면 간접적이고도 번거롭지 않은 핑게를 대자. 그녀에게서 빌려간 책을 돌려주겠다고 참 시간 집 앞으로 나와 달라고 말한다. 그녀의 책을 담은 종이방에 당신이 새로 산 책을 슬쩍 끼 놓는다. 그녀가 집에 가서 종이방을 열어 보고는 당신



의 섹스와 마음 씀씀이에 감탄할 거다. 서점에 책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면 '일 랭드 보통'의 책이나 일본 소설류를 골라라. 여자들이 웬만한 좋아할(물론 AJUCE도) 실패율 제로에 가까운 초이스다. 그녀는 당신이 준 책에 나오는 연인들의 가슴 아픈 엇갈림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당신을 향한 그리움이 활발 타오르기 시작한다. 물론 당신은 그 책의 내용도 모를지 모르지만 말이다.

**DONT** 책을 돌려주었던 핑계로 만나 술을 마시거나 섹스를 하는 건 그녀를 조금 더 안달하게 한 다음으로 미루자.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난 첫 날은 특히 더 참아야 한다. 물론 그녀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욕정을 풀사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거다. 그녀가 당신과 자고 싶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조금만 더 애대워라. 헤어지고 나서 매달리는 건 이제 당신이 아니라 그녀다!

#### 한 달 후

##### STEP 4, 그녀를 우물하게 만들어라

■ 강의실에 누군가 배달한 참이꽃이 왔다. 나한테 보낸 건 줄 알았는데 전쟁 때 기질에가 주인공이었다. L(26세, 대학원생)

**ALICE SAYS** 헤어진 남자친구가 '똥' 하고 나타나 혹시 이벤트에 해주는 건 아닐지 여자들은 매일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한다. 혹시 그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못 보고 자기-질세라 걸가리 현수막, 벽보에 자기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긴다. 길을 가다 사람들이 모여 조금만 웅성대

는 걸 봐도 '어머, 저런 혹시 나를 위한 그의 이벤트?' 하며 심장이 쿵덕댄다. 거짓말 같지만 진짜 여자들은 그렇다. 아야, 이런 이별의 충격으로 생긴 일종의 정신병인가?

**DO** 그녀의 강의실이나 회사로 꽃이나 먹음 걸 보내라. 문자 메시지로 커피 전문점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도 아주 센스 있는 선택이다. 그러니까 그녀가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한테 자랑을 할 수 있을 만한 선물을 혹은 그녀가 손쉽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물을 보내라는 거다. 참고로 비싼 꽃바구니 보단 장미 한 송이가 더 감동적이나 괜히 돈 많이 쓰지 말 것. **DONT** 명동 한복판 밀리오레 무대 위에서 세레나데합시고 노래를 부른다. '난 이제 지쳤어요 ~ 땀뻑(X) 기다리다 지쳤어요 ~ 땀뻑(X)' (거짓말 같지만 AJUCE가 겪었던 실화다) 선곡을 지극히 하려는 게 아니다. 여자들은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지만 이런 류의 쪽팔리는 이벤트는 사양이다. 물론 당신도 쪽팔리겠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물을 주거나 이벤트를 하려거든 그녀가 우뚝해질 만한 결핵이 최소한 본진은 찾는 거다. 기프티콘 하나라도 그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데 굳이 사서 고생하지 말!

#### 그 이후

##### STEP 5, EX와의 섹스

■ 예전 남자친구와 오랜만에 만났다. 한 석 달쯤 됐나? 술 한잔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취해가다 보니 누가 먼저인지도 모르게 키스를 하고 있었다. 단지 키스만 했을 뿐인데 온몸이 저릿저릿했다. 아야, 이렇게 설레는 감정은 뭐지? 당신이 내 소울메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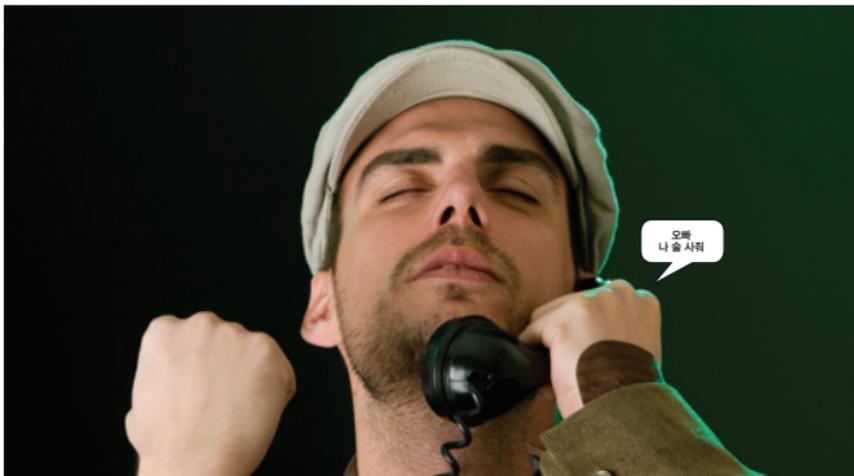


(29세, 초등학교 교사)

**ALICE SAYS** 그녀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까지 타들어 갔다. 이제 앞으로의 관계를 풀어나갈 모든 키는 당신이 쥐고 있다. 지금 예디터는 주도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개인적으로는 말당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당신만 만날수록 애대우는 건 싫으니가 적당한 말당을 하라는 거다. 섹스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자. 처음엔 '한 번만 넣어볼게'라며 당신이 먼저 애대워지만 진짜 한 번만 넣었다 빼면 그녀가 죽을상을 쓰는 것처럼.

'연애라는 게임에서는 덜 사랑하는 쪽이 유리하다'는 말을 항상 기억할 것. 진짜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덜 사랑하는 척 하면 당신의 고지가 유리해진다. 다시 시작한 그녀의 연애에는 더 행복하길 바란다.

**DO** 관심님에게 작입결도 진도를 천천히 빼는 게 포인트다. 당신의 EX는 예전 당신과 사귀기 때와는 또 다른 파릿함을 느끼게 될 거다. 그리고 새로운 남자와 만나는 것 같은 스릴도 느낀다. 그녀는 계속 해서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다! **DONT** 예전 여친 이라고 편한 마음에 하는 마구잡이식의 스킨십. ☹



# MOTOR

MAXIM의 모든 스타프가 미스MAXIM 최혜연과 함께 바캉스를 떠났다. MAXIM의 악동들이 더 뜨겁게 여름밤을 보낼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된 렉서스 CT200h와 스바루 OUTBACK을 타고 말이다. 물어들은 프리미엄급 일본 차와 함께. 이구~요!!

MODELS 2010 MISS MAXIM 최혜연, MAXIM 에디터 김희성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심나래 (에디스다 02-548-7787) MAKEUP 고영은  
장소 명천 대명리조트(1588-4888)

## LEXUS CT200h COMPACT LUXURY CVT

엔진	1.8 VIT-4
연료	휘발유+자동기
공인 연비	CVT 25.4km/L (1등급)
승차 인원	5인승
공차중량	1,455kg
배기량	1,796cc
최대 출력	990마력
최대 토크	342 kg·m
구동 방식	앞바퀴 굴림



원색 기다린 프레디

AUGUST 2011 MAXIM 65

# CAR WASHING BABES

MOOTOR

차를 씻으면 응당 잘 씻어서 돌려주어야 하는 법. 옳지, 옳지.  
BY 유승민 FILM 박한빛누리 ASSISTANT 송종민, 이보라, 장미연, 장영준, 홍승희  
COOPERATION 슈즈원(02-3443-1703) 프레스(02-546-7786) 세상터(02-548-3956), TOYOTA KOREA



## 1. START

그냥 흔한 스타트 버튼이잖아? 뭐, 그렇지. 하지만 굳이 한이더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 예디터가 그랬듯 CT200h의 운전석에 앉은 모든 사람은 이 버튼을 꾀다 갖다 반복 심장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고? 시동이 안 걸린 줄 알고 차부 다시 시동걸까? 버튼은 그냥 뭐 "키를 누르면" 소리가 들리지만 CT200h는 달릴 준비를 마친 상태다. 마치 조용한 전자제품의 전원 버튼을 누른 것처럼 말이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 전기 모터가 움직이면서 거짓말처럼 차체가 스스로 미끄러져 나간다.

## 3. DRIVE

CT를 처음 밟을 때 가장 이질적인 건 기존 자동차들이 갖추고 있던 기본 틀을 완전히 갈아엎은 센터페시아다. 딱딱한 전자 제어 시스템을 파악하려면 최소 5분은 기능 파악에 나셔야 한다. 그중 가장 새로운 건 바로 전자식 무단 변속기(E-CVT). 기존의 변속기들이 원하는 기능에 레버를 가져다 놓아야 하는 기계식이었다면 이젠 움직여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조이스틱에 가깝다.

## MOUSE?

4.

이 부분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몰라도 생긴 건 영리없는 마우스다. CT200h가 아무리 첨단 전자제어 무장했지만 마우스로 조작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여기에 달린 360도 회전식으로 LCD 창에 보이는 커서를 움직이고, Menu, Enter 버튼과 다양한 기능을 제어해보면 마우스라 불러도 큰 지장 없겠 생각이 든다. 각 버튼은 인체공학적으로 손가락 끝이 자연스럽게 머무는 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다.

## 2. DISPLAY

POWER 버튼을 누르면 손건 대시보드 상단이 열리며 도도하게 8인치 LCD창이 위로 올라온다. 전에도 수 차례 언급했듯 각종 단속카메라의 존재를 알려주지는 않는 토요타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어전했다. 아마 MAXIMS 직잡이 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듯 하자, 변속기 레버를 후진으로 놓으면 후방 카메라에 보이는 길옆이 끊어지면서 주차를 도와준다. 안전을 위해 주정 중에는 내비게이션 조작을 못하게 막아 놓았는데, 차를 멈추기 전까진 목적지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도 좀 무관하다. MAXIMS 동해바다를 향해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목적지점 변경할 일이 생겨 아찔 수 없이 것위에 비상 정차할 해야만 했다.

## 5. ECO & SPORT

이 하이브리드 ECO, NORMAL, SPORT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손쉽게 택할 수 있다. 왼쪽으로 돌려 ECO 모드를 택하면 하이브리드 카의 워킹 연비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SPORT 모드를 택하면 민첩하고 강력한 스포츠카의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주행하는 중에이 자유로이 모드를 전환할 수 있다. 막히는 길에선 ECO 모드로 연비를 아끼다가, 길이 풀리는 순간 스포츠카로 변신해서 다른 차들을 제치고 뛰어 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 2011 LEXUS CT200h



스튜디오 신들 슈즈원

동해안에 위치한 대명 슌비치 호텔에서의 촬영을 위해 MAXIM 전 스태프가 5대의 차에 나눠 타고 2박 3일로 서울을 떠났다. 에디터는 LEXUS CT200h의 운전대를 잡았다. 장거리 뛰는 길에 제대로 연비 테스트를 해보려고 ECO 모드로 MAXIM 사육을 출발했다. EV 모드(엔진을 전혀 안쓰고 배터리로만 주행)로 돌아보고도 싶었지만 거리가 가리인 지라 '45km/h로 2km를 배터리만으로 운행 가능'하다는 사전 정보로 만족하기로 했다. 내리막이나 제동 상황에서 대시보드 왼쪽에 위치한 하이브리드 인디케이터의 바늘이

Charge 쪽으로 쏠리며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달릴수록 아금아금 배터리가 충전된다.

한참 가다 나만 영동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4대가 모두 서울-양양 고속도로를 타는 동안 CT200h만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대전(?)을 향하고 있었던 거다(영청해서 그렇다). 한참 후에야 깨달은 렉서스 탑승팀은 일행을 따라잡기 위해 양양 방행으로 차를 돌렸다. 연비 테스트니 뭐니 원래 계획은 절로 'SPORT'로 다이얼을 돌렸다. 엔진 소리가 달라진다. 푸른 하이브리드 인디케이터

가 사라지고 붉은 RPM 타코미터가 나타난다. 핸들은 마치 스포츠 세단처럼 민첩하게 반응한다. 땀 뚫린 고속도로를 향해 가속페달을 밟자 몇 초 안 지나서 100km/h를 돌파한다. 하이브리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반응 속도다. 속도계는 곧 180km/h를 가리킨다. 3년 전 6250을 뒀던 때가 생각난다. 정통 스포츠카 만큼이나 낮은 시트가 더 낮게 깔리는 듯 날카로운 코너링을 선사한다. 그때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평균 속도 무려 145km/h. 지름길로 달린 4대의 일행 차량 중 3대를 제치고 2등으로 도착했다.



4,770 만 원

LEXUS CT200h COMPACT LUXURY CVT

강정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해 턱없이 비싼데도 CT200h가 돋보이는 이유는 1시간만에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하이브리드'는 단순히 '휘발유 엔진 + 전기 모터'가 결합했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CT200h의 '하이브리드'는 이중 인격에 가깝다. '교련비 철혈검'과 '다이내믹 스포츠 세단'이라는 전혀 다른 두 성격을 하나의 차 안에 녹여냈기 때문이다.

가운 하이브리드가 합리적인 소비생활의 초석이었다면 CT200h는 필요에 따라 그 초석함과 이성적인 섹스 여성을 넘나드는 욕망쟁이라는 애가다. 심지어 대시보드의 블랙이트도 ECO에선 은은한 푸른색 SPORT에선 강렬한 붉은색으로 변한다. 무단의 컬러로 운전자의 감성마저도 저질 앤 하이드처럼 변화시키고 있는 거다. ☺



MAXIM vs MAXIM  
최종 판권  
최종 판권



LEXUS & HYUNDAI

# SPARK vs MORNING

## Round 4



예고

스파크와 모닝 대결의 하이라이트,  
연비 대결의 전선이 무르익고 있다

MAXIM의 신인사원인 SPARK군과 MORNING군의 대결이 예고만 해놓고 왜 나오지 않는지는 지적을 한 독자가 있었다. 날카로운 지적에 감사한다(홍유, 유유 차세히 읽어 주고 있었어). 예고했던 대로 두 국민 경차의 다음 대결은 연비 대결이다. MAXIM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뽑아내기 위해 두 녀석의 주행거리를 같이 맞추고 있는 중이다. 현재 SPARK는 4,200여 km를 먼저 뒀 반면, MORNING은 3,900km 정도를 뒀었다. 왜 주행거리를 맞추느냐고? 연비 테스트 결과는 주행거리가 얼마만큼이나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너무 많이 타서 차가 삭아도 연비가 낮아지지만, 주행 거리가

너무 짧아 길이나 들었어도 최상의 연비가 나오지 못한다. 최적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주행 거리는 대략 4,000km 안팎.

참고로 몇 달 전 MBC 경제매거진에서는 주행거리가 현저히 차이나는 SPARK와 MORNING을 가지고 연비대결 시켰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다.

테스트에 사용된 SPARK는 주행거리 4,000km 정도의 길이 아주 잘 든 차였고, MORNING은 그에 한참 못 미치는 2,000km 주행차량이었다. 품종에 따르면 세보레 혹은 MBC에서 연비테스트를 한다는 걸 알고 이를 철저히 대비한 차량을 내놓은 데 반해, 기자들조차 측은 뭐 하지도 잘 모르고 아무 차량이나 보냈다는 거다.

결과는 공인연비가 2km/L나 더 낮은 SPARK의 승리. 공인연비를 뒤집은 세보레는 신사서 즉시 이런 광고를 뿌리고 다녔다.

현재 MAXIM이 연비테스트를 위해 구매한 SPARK는 4200km에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

모닝이 이에 도달하는 즉시 면밀한 연비대결이 시작될 거다!



## 제4회 MAXIM 무료 튜닝 당첨 독자는?



이렇게 응모하면 되는 건가? 그간 MAXIM 정가구매하면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에게는 보여주지 않고 혼자만 봐서 조금 마냥했었다. 그러나 MAXIM이 우리 아들을 위한 선물을 꼭 주면 나의 미안함이 좀 덜어지지 않겠는가? 이 녀석, 언제 머리가 굽어져서 이제 아바랑 놀러 안 다닌다고 할 지 모른다. 내 품에 지식일 때 많이 데리고 다녀야지. 이번 여름, 아들과 함께 시원한 바다로 피사기려고. 멋진 스포티지 R 을 질렀다. 뜨거운 휴가길에 솔라가드 열차단 스티킹이 함께하면 아들을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거다. -KS Jung

이 사람이, 당신 차 튜닝이 무슨 아들을 위한 선물이냐? 아마 아들은 MAXIM을 보게 해 주길 더 원할 거다. 정가구매 보낼 때 MAXIM 피어낸 한 권 더 보낼 테니, 깨끗한 길자는 아들 취미, 아들과 함께 열차단 스티킹을 차 안에서 시원하게 MAXIM착용하길 바란다.

제4회 열차단 감광창 근외 솔라가드 튜닝 후기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은...

최첨단 필름 제조 신기술인 스페르광경을 개발해, 세계 최초로 항공 우주급 NASA의 우주 개발에 참여했다. NASA의 우주선에서 태양열을 차단하는 용도로 사용된 바로 그 13년 전통의 명품, 솔라가드 열 차단 필름이다

## MAXIM MOTOR 독자를 위한 SPECIAL EVENT

더위 죽겠다. 차 안은 찜통이다. 이 끔찍한 찜통 안에서 어디 사랑을 꽃피울 수가 있겠나? MAXIM이 당신의 차에 최고급 솔라가드 열차단 스티킹(선팅을 빌려주겠다! 차 살 때 받은 기본 튜닝에는 보통 가장 중요한 앞유리 튜닝이 빠져있다. 오늘을 위해 비싼데 앞유리에 솔라가드를 끼었자. 매달이 다르니까?)

- ▶ **응모 기간** : 2011. 7. 21 ~ 2011. 8. 18
- ▶ **상품** : 22만원 상당의 열차단 스티킹 시공 (전선 시공, 즉 후면 제외)
- ▶ **응모 방법**
  1. 예외의 할매 픽은 사진들 MAXIM으로 보내라.
  2. 사진 속에 MAXIM 이면 후기 나오면 더 좋다.
  3. 재미있고 윗말만 사진이 곱들여야만 한한 후기
- ▶ **보낼 곳**
  - event@maximkorea.net으로 사진의 사연, 연락처를 보내라.
  - 010-5199-1821로 문자로 전화를 해서 문의사항을 보내라.

# OUTBACK on the SOL BEACH



MAXIM 여름 엔티는 스바루 아웃백과 함께 멀리서 MAXIM 여직원들의 비키니 패션도 끼었었다.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BY 유승환 PHOTOGRAPHS ARC STUDIO

MODELS 2010 MISS MAXIM 최혜연 MAXIM STAFF (왼쪽부터) 최인영, 송종민,

장미연, 조유림 이보라, 김상현, 김희진, 김중국, 김진욱, 고경희, 전영준

ASSISTANT 박한빛누리, 홍승희

COOPERATION 오비 맥주(www.obbeer.co.kr), SUBARU KOREA

주소 인천 대명리조트 1588-4888)



※SPEC

엔진	수평대향 6기통
연료	가솔린
배기량	3,600cc
최대 출력	260마력
최대 토크	342 kg·m
평균 연비	9.9km/L(4등급)
변속기	자동 5단



4,790만 원



장기투자자님,  
완전 사랑해요♥

우울한 7거리의 사진 속 그녀는?  
당신이 MAXIM으로 전환한 책이 있다면 한 번쯤 목소리를 높일것 MAXIM의 장기투자 담당자다.

### ▶ VANGUARD

스바루를 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 랜서에 볼루션과 생백을 이룬 '스바루 임프레자'에 관해서만 들어왔기 때문에 전부터 '내 첫번째 스바루'는 당연히 임프레자일걸 바랄때랜서 애볼루션의 굉장함은 이미 잊을 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스바루 차녀 주행이 임프레자가 아니라 사실에 약간 겁이 섰다. 임선생님을 위해 지켜온 순결을... 아흑! 아웃백의 운전대를 집기 전까지 그랬다.

그런데... "어우구리? 이것 보라?" 그리고 보니 지난 겨울, 홍미로운 자동차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다. 지난 스카프 상급자 코스를 차가 거꾸로 올라가는 미션이었다. 황당한 시도를 버트던 구경꾼들의 눈은 곧 휘둥그레졌다. 그 차가 슬로프를 힘차게 치고 올라가는 광경이 눈 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잠시 후, 이번엔 그 슬로프를 내리막길 상아 힘차게 내려오는 모습에 구경꾼들의 입가엔 웃음이 사라졌다. 그게, 그때 그 차 이름이 아마 스바루... 아웃...음?

얼마 전 스바루의 라이벌 미쓰비시가 한국 시장을 접었다. 그만큼 한국 자동차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장 중 하나다. 그런 곳에 도전하면서 팀의 간판 스타인 임프레자가 아니라 아웃백이 선풍적으로 팔리는 데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다.

### ▶ ECONOMICAL

비닷가 호텔 근처를 쓰다니면서 30여 명의 스태프가 이 차 저 차를 오가며 타고 다녔는데, 여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게 바로 아웃백이었다. 하하! 같이 이번에 끌고 온 차 중에 아웃백의 뒷좌석이 가장 편하고 입을 모았다. 타고 싶다고 다 태워주냐? 한 정된 자리는 비키니 착용자에게만 허락되었다. 서울을 오갈 땀 사람 가득, 짐 가득, 현장에선 여자 직원들, 뒷자리와 옆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부하 직원들을 태우면 자연스레 가속페달에 얽힌 발에 괜히 힘이 들어가는 법. 이번 운전과는 정말 거리가 먼 상층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이번 MAXIM 여름 오펀티에 동원한 시승차 중 연비 킹은 의외로 아웃백이었다. 쓸비치로 떠날 때 모든 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지만,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주유를 하지 않은 차는 아웃백 뿐이었으니까. 출발할 때 연료 게이지는 여전히 반 이상을 가리켰고 심지어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4분의 1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다. 공인 연비는 9.1km/L에 불과한데 실제 연비는 이를 훨씬 상회한다는 개선이 나온다. 정말이다. 스바루 코리아에서 차를 넘겨받을 때 시승 담당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가장님 이름 몰아보시면 연비 보고 초콜 놀라실 겁니다."

### ▶ BIG & STRONG

아웃백 시승이 결정된 후 인터넷에서 아웃백의 이미지를 찾아봤을 때는 뭔가 보통의 SUV보다는 콤팩트한 사이즈의 크로스오버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난 아웃백은 '오차'를 뜻하는 이름만큼이나 정통 아웃도어 레저 차량으로 전혀 손색없을 녀치고 웅장한 사이즈다. 작제 공간도 전혀 고민이 생기지 않을 만큼 넉넉하고, 보통의 SUV보다 훨씬 굵고 튼튼한 루프 레일(지붕)에 짐을 실을 수 있도록 양쪽에 설치한 바를 보니 서빙보드든 미니보드든 올리고 싶어 건널 수가 없다.

결모습엔 아니다. 아웃백의 Symmetrical AWD 시스템은 운전 중에도 시시각각 네 바퀴에 최적의 동력을 분배하기 위해 스스로 분배 비율을 조정한다. 아예 미끄러지는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다.

재판! 상의 엔진 이름도 좀 생소할 거다. '수평대형' 박서 엔진? 피스톤이 일렬로, V자형도 아닌 수평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되면 피스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해서 승차감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이런 형태의 수평대형 엔진을 만드는 녀석들은 스바루외에는 포르세가 아마도 유일하다.

기술력에 대한 스바루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 가나?





## 중세 유럽 맥주, 허브를 탐하다

주머니가 비어도 손에서 술잔을 놓지 않는 당시의 강한 의지

오직 폭탄주 제조 실험을 위해서만 쓰이는 천재적인 창의력. 먼 옛날 유럽인은 역시 미친가자였다.

**“그들은 몸집이 크고, 성품이 천박하며,  
예절도 모르고, 무지 몽매하다.  
북방 저 끝에 사는 자들은 특히 우매하고 잔인하다.”**

**당**신이라 한 말 아니나 화제사 마라. 10세기 이람의 저명한 지리학자가 ‘야만적인’ 유럽인을 보고 한 말이다. 당시 동로마제국이나 이슬람 문명에 비해 한참 뒤떨어진 서유럽 사회를 이런 비웃음과 혐오를 받았다. 1050년경까지 서유럽에선 월제 농기구는 고사하고 목재 농기구조차 찾아야 겨우 힘들었다. 7세기에서 11세기 중반에 이르는 유럽의 중세 초기, 사람들은 먹고살기 위해 말 그대로 ‘맨손으로’ 거친 자연과 씨름야 했다. 이 시기 유럽은 대부분이 매일 굶주림으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비참한 시기였다. 사냥 먹음 곡식도 부족한 시절, 흉청양성 술을 빚어 마시는 게 어려웠지만 괴로움 또한 술이 포함되어 어찌 안 마실 수 있겠나. 유럽 중세 초기에도 맥주가 있었다. 다만 호프가 맥주의 주재료는 아니었다. 맥주 양조와 관련해 호프가 언급된 건 팔라아 1079년 무렵이다. 호프 대신 무엇을 사용했을까? 바로 그루이트(Gruut)다. 그루이트는 야생 허브를 일컫는 독일 옛말이다. 엄밀히 말하면 야생 허브의 배합물이라 할 수 있다. 야생 허브는 맥주에 맛과 향을 더하고, 맥주의 보존성을 높였다. 소고 열매로울 한 것의 들베르다우(Boog Myrtle)는 프랑스에선 낙태 약으로, 중국에선 위장약으로 쓰였는데, 당시 맥주를 만들 때 거의 빠지지 않는 허브였다. 가에가 가끔 살균성이 좋은 야생 로즈마리를 더했다.

### 그루이트의 등장

이 시기엔 온갖 식물이 맥주 양조에 사용됐다. 서양 들꽃, 썩, 들버드나우, 헤더, 레브라도 차, 생강, 계피, 육두구, 캐러웨이 열매, 아나스 열매, 노간주나무 열매, 샬비어 잎 등 다양한 허브들이 맥주에 투신했다. 핀란드 전통 맥주 사티(Sahti)는 여전히 호프가 아닌 노간주나무 열매와 잔기자를 이용한다. 노성의 여자는 있지만 이 당시 사용한 허브나 허브 배합들은 다소 독특한 들베르다 할 수 있다. 사리를, 빌라드나 같은 맥독성 허브들을 사용하기도 했

는데, 진통제나 마취제와 같은 약리적 효과를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고대부터 화살촉에 바르는 독의 원료로 사용한 벨라도나는 로마의 아그리파가 남방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독살할 때, 스코틀랜드의 맥베스 왕 영국 왕 해럴드의 군대를 중독시켜 물리칠 때도 등장한다. 하지만 독은 약으로도 쓰이는 법. 민간에선 벨라도나를 19세기 무렵까지 두통, 열정, 해열, 염증, 임피 등에 효험이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애용했고, 심지어 르네상스 시대에는 여성들 사이에서 눈의 통증과 화상까지 예방 보기에 쓰는 안약으로 화창통처럼 사용했다. 이탈리아 말로 ‘예쁜 여자’를 뜻하는 벨라도나라는 이름은 여기서 유래한다. 스페인즈 좋은 건 당시 아나우도 알고 있었던 얘기지.

### 동공과 아름다움의 상관관계

알고 안 된다고? 동공계축학의 창시자인 예르하르트 베스키가 했던 독창적인 실험 결과를 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 헤스 박사는 똑같은 두 명의 매력적인 여성 사진을 남자들에게 보여주던 실험 사진 한편은 농도가 더 커 보이도록 연필로 조작했다. ‘아는 쪽이 더 마음에 드는가’ 질문에, 남성들은 한 결같이 동공이 크게 팽창된 여자의 사진을 골랐다.

### 귀한 물 납시었다

이러니하하게도 맥주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그루이트는 아무나 채취할 수 없었다. 카를필거 왕조의 사울마뉴 치세 이래 신하에게 할당된 영지를 제외하곤 모든 땅의 명맥학 주인은 왕이었다. 땅을 쪼개서 외한와 성직자들에게 영지로 나누어주듯이 야생 허브 채취권을 하사할 수 있는 사람은 왕이요. 일했다. 채취권은 양도, 임대, 매매가 가능했으니. 어찌됐건 왕이아랄로 그루이트의 가장 근원적 소스였다고 할 수 있다. 맥주 양조를 독점하기도 양

조권을 제한하지도 않았지만 그루이트의 독점 분배는 황제의 배타적 권리임을 천명함으로써 왕권은 맥주 양조를 통제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채취권의 봉건적 수여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였을까? 두말할 필요 없이 수도원을 비롯한 교회 측이었다. 프랑크 왕국 이래 유럽에서 세속 정치 세력과 베네딕트 수도원을 위시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결속이 강화된 걸 생각하면, 허브 채취권을 수도원을 비롯한 교회 세력이 독점하시라! 했다는 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교회의 실질적인 그루이트 독점은 이후 독일에서 교회를 견제하기 위해 영주들이 교회의 그루이트 대신 호프 사용을 장려하는 정치적인 움직임의 중요한 배경이 된다.

야생 허브로 만든 맥주는 영국을 포함한 유럽에서 대략 16세기 무렵까지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 호프를 넣은 맥주와 그루이트로 빚은 맥주는 평화로써 공존하기를 거처게 된다. 독일은 보통 수출용 맥주에는 호프를, 자국 내 소비를 위한 맥주는 그루이트를 썼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뛰어난 호프의 보존성이 큰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호프의 전격적인 사용 이후 사라지긴 했지만 그루이트와 야생 허브를 이용한 맥주는 투숙 맥주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가치는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주목을 받는데, 이때 한창 벌어지던 마이크로브라이언스규모 제조 맥주 운동과 관련이 깊다. 중세 초기의 맥주에 관심을 가진 몇몇 사람 가운데에는 심지어 이름 붙여서 상품화하기도 했다. 이렇듯 맥주를 위한, 맥주에 의한, 맥주의 실현은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것이었다. 허기 위한 인간의 열정과 창의력, 그 끝은 어디까지일까?





**이**제 남은 건 오프라인에서 책을 팔든 온라인에서도 제값을 받고 전자출판물을 판매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온라인에서는 모든 게 공짜여간 한다는 요구가 거대어 콘텐츠는 공짜로 배포한 후 유료로 수익을 거둘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직 대세가 정해지지 않은 시장에서 누구의 논리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 '모든 것이 정답이다'는 말처럼 성급하게 유료화를 밀어붙였다가 프리첼처럼 말할 수도, 돈을 내고 구매하는 게 당연해진 음원 시장처럼 정착할 수도 있다. 갈대 같은 소비자의 마음과 광고주의 마음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해야 하기에 출판사 입장에선 정교를 거듭할 수밖에 없다.

**한**때 데스크톱 메신저를 지배하던 MSN 메신저는 공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앞세운 네이트문에 의해 침몰했다. 지금 스마트폰의 메신저계를 주름잡는 카카오톡도 이걸 위해 지금껏 공짜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많은 사용자들 확보하려고 용을 쓰는 중이다.



**히**지만 분명히 건 전자출판물 같은 콘텐츠 산업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산업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사실이다. 메신저나 SNS 산업은 얼마만큼 많은 사용자가 이용하느냐가 유일한 관건이다. 지면의 '공짜 경쟁력'이 있다. 반면, 콘텐츠 산업은 얼마만큼 '좋은' 줄길 거리를 만드는지가 관건이다. 좋은 콘텐츠가 좋은 값을 받은 이곳에선 '공짜=짜구려'가 되기 쉽다. 차이는 그 뿐이 아니다. 무료 서비스가 많은 사람을 모아오는 메신저나 SNS 산업에서는 처음에 한 번 서비스를 만들 때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다. 그에 비해 콘텐츠 산업에서 한 번 잘 만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계속 잘 만들어야 살아 남을 수 있다.

**출**판은 대표적인 콘텐츠 산업이다. 단순히 공짜에 유혹된 소비자를 진즉 모은다고 성공하는 산업이 아닌 해가다. 공짜라고 아무 출판물이나 주워 읽을 만큼 소비자들이 명성하지도 없다. 지금까지 콘텐츠 무료화의 결과는 참담했다. 인쇄업계에서 나온 탄탄했던 인쇄책 시장은 불법 스캔본이 P2P 사이트에 무료로 공유되면서 만화 잡지 판매를 비롯해 다양한 수가 줄어들며 시장 자체가 급속히 위축된 바 있다. 히트 곡을 내면 음반을 팔 수 있었던 대중음악계는 불법 MP3 파일 다운로드가 일반화되면서 길고 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야 했다. 만화와 음악, 두 콘텐츠 산업의 위기는 인터넷, 스킨, MP3 플레이어, P2P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함께 찾아왔다. 공동정범 짓고 있지만 결과는 전혀 다른 영향을 띠고 있다. 우려곡절 끝에 유료화에 성공한 음원 산업은 기사화생했지만, 이에 실패한 만화 산업은 몰락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번엔 전자 출판이 사례대에 올랐다. 글과 사진을 종이에 인쇄해서 본다는 패러다임을 한 순간에 뒤엎는 신기술이 태블릿 PC를 타고 불어오면서 출판은 만화와 음악이 처했던 기로에 다시 서 있다.

**콘**텐츠의 무료화가 가능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광고 수익이 필요한데 광고 시장은 여전히 전자출판물의 광고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며, 관심을 보인다고 해도 턱없이 적은 비용만 할애할 뿐이다. 아직 전자출판 시장의 광고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 출판사가 막연하게 광고 수익을 바라고 무료 콘텐츠 서비스에 뛰어들었다간 망하기 십상이다. '네이버의 막대한 광고 수익이 보여주는 광고 메니는 소위 '되는' 매체 한두 개에만 쏠리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콘텐츠 자체를 판매하는 수익을 올리지 못한다면 전자출판물에서도 광고가 물러나는 몇 개의 출판사를 제외하곤 모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전자출판물 또한 과연 소비자가 즐겨 볼 만한 양질의 콘텐츠일까? 모든 산업은 돈을 주는데 이게 충족된다. 전자출판 산업이 광고비에 충족되는 것으로 재편된다면 돈을 주는 이가 소비자가 아닌 광고주일진대, 더 이상 '소비자가 보고 싶어 하는' 콘텐츠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콘텐츠만이 생산될 뿐이다. 전자출판 산업은 광고비를 주는 이에게 충족되지 않고, 책 값을 주는 이(소비자)에게 충족되지 않는다. 광고주보다는 소비자의 눈치를 보게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된다면 일부 기업이 신문사에 주로 써먹는 광고 길들이기에서 벗어나 천사가 생긴단 얘기고, 그만큼 독자가 원하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일 역시 가뒀어진다. 기사인지 광고인지 모호한 글들을 잡지에서 걷어낼 수 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가!

**과**도기를 겪는 지금, 전자출판 산업은 두 갈래로 갈렸다.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걸 확신한 이들은, 무료화로 광고주의 시선을 끌며 애쓰고 있다. 반면,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콘텐츠가 팔린다는 사실을 인지한 출판사는 유료화 입장을 하고 있다. 당장은 힘들지만 콘텐츠가 생명이 이곳에선 고래의 만족도가 높으면 유료 구매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자출판물은 오프라인처럼 얼마나 팔릴지도 모른 채 책을 찍는 도박을 짊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자 '판매량=수익'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최고의 선택지다. 결국 전자출판물의 유료 판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광고에만 목매던 오프라인 시절은 잊고, 하루 빨리 전자출판물의 유료 판매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지금 전자출판 시장은 아이패드로 대변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진정한 전자출판 시장이 시작됨을 선언할 아이패드3 출시도 멀지 않았다. 남은 건 출판사가 공짜 콘텐츠를 광고를 얹어 넣는다는 근시안적 전략을 버리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 합당한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선구조를 만드는 일뿐이다.

# 세상의 제일 높은 것들!

수컷이라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곳을 정복해보고 싶단 생각을 한 번쯤은 했겠지. MAXIM 이 친절하게 오르내리는 시간을 숫자로 정리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도 낙하(?)하는 시간은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일단 오르기만 하면 내려오는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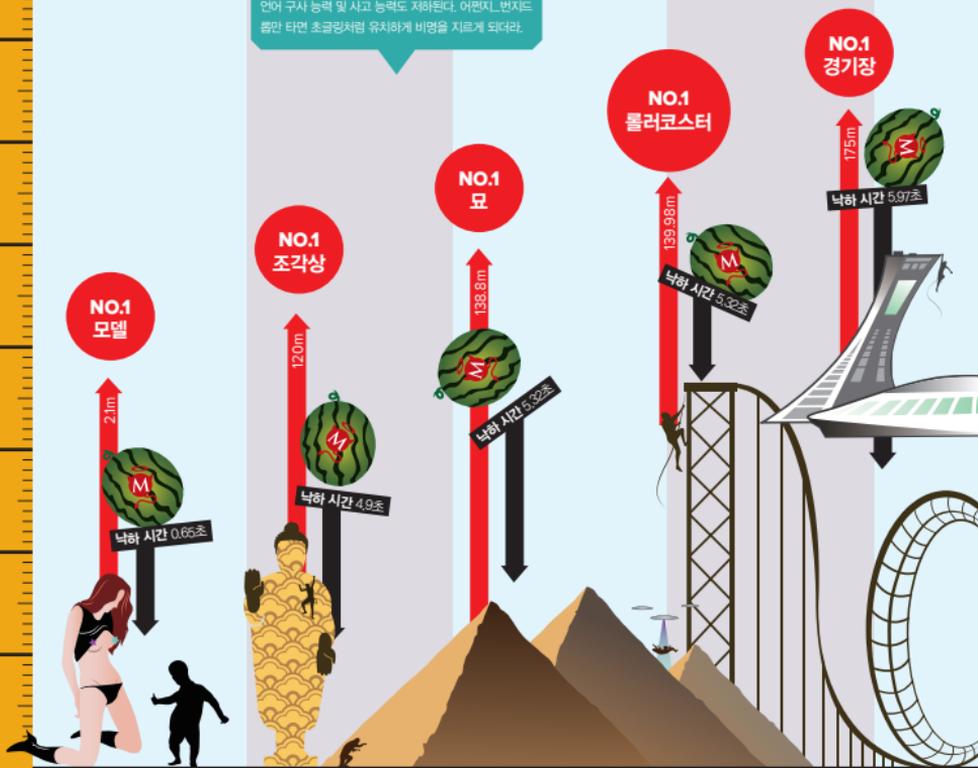
BY 김상현 ILLUSTRATIONS 권영호

## 고소공포증이란?

높은 곳에 올라가면 피동을 싸며 추락할 거란 두려움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뛰어들 것 같은 충동에 힘입어는 일종의 정상병(노이로제)이다. 하지만 높은 곳만 피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신경증에 비해 처리(극)당하는 경우가 많다.

## 중세

구역질은 기본에 현기증과 호흡 곤란 크리티컬이 터지며, 입안이 건조해지거나 심하면 심근 경색까지 올 수 있다. 언어 구사 능력 및 사고 능력도 저하된다. 아편진..벤즈드펜민 타면 초코링처럼 유지하게 비명을 지르게 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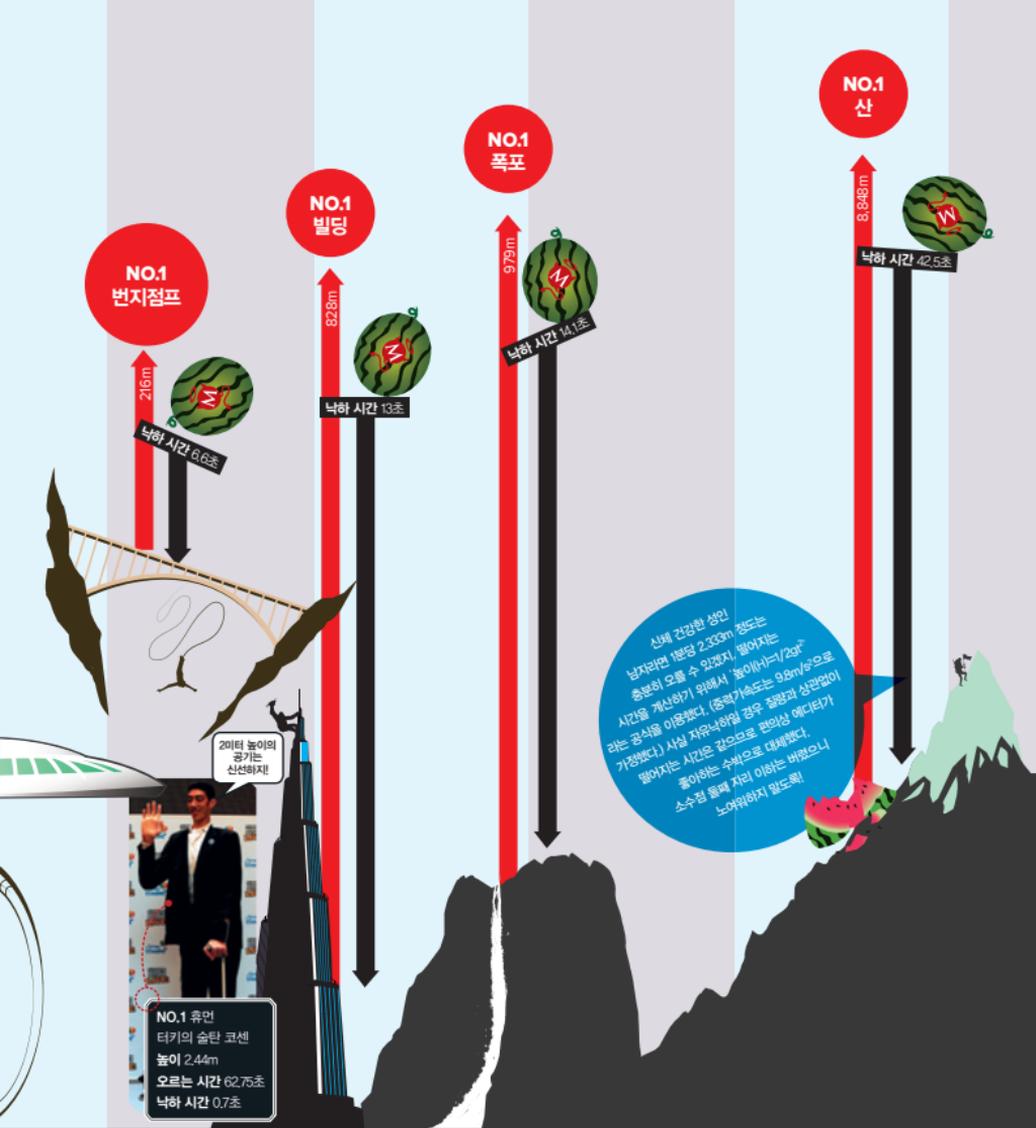
**NO.1 모델**  
미국의 아이azon 이브  
높이 21m  
오르는 시간 54초  
낙하 시간 0.65초

**NO.1 조각상**  
일본의 우시쿠대불상  
높이 120m  
오르는 시간 0.86시간  
낙하 시간 4.9초

**NO.1 묘**  
이집트의 기자 피라미드  
높이 138.8m  
오르는 시간 1시간  
낙하 시간 5.32초

**NO.1 롤러코스터**  
미국의 킹다카 롤러코스터  
높이 139.98m  
오르는 시간 1시간  
낙하 시간 5.32초

**NO.1 경기장**  
캐나다의 올림픽 경기장  
높이 175m  
오르는 시간 1.2시간  
낙하 시간 5.97초



**NO.1 번지점프**  
남아공의 플라우크란스 다리  
높이 216m  
오르는 시간 144시간  
낙하 시간 6.6초

**NO.1 빌딩**  
UAE의 부르즈칼리파 빌딩  
높이 828m  
오르는 시간 6시간  
낙하 시간 13초

**NO.1 폭포**  
베네수엘라의 엔젤 폭포  
높이 979m  
오르는 시간 7시간  
낙하 시간 14.1초

**NO.1 산**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  
높이 8,848m  
오르는 시간 1.51일  
낙하 시간 42.5초

# ROSE

장·미·인·애

*in*

# LOVE



————— 소울메이트를 애타게 찾는 장미인애와 가슴 뛰찬 데이트를 했다. —————  
장미인애와 사랑할 준비가 됐나?

BY 교경희 WORDS BY 박한빛누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심나리(에테스타 02-549-7787)  
MAKEUP 교영은 FILM 김진욱 ASSISTANT 조유림

COOPERATIONS 러브제이([www.lovej.co.kr](http://www.lovej.co.kr)) 수즈원(02-3443-1703)  
장소 함천 대명리조트(1588-4888)



나일 중립미스  
109,000원 러브제이

GO TO  
MAXIM  
PAD



마xima



에스닉 스타일 플렌미스 82,000원  
핑크&그린 칼러 수공예팔찌 8,000원  
낙타털을 영색해 만든  
블루 칼러 수공예팔찌 8,000원  
모두 러브제이



**더**운 날씨에 촬영하느라 수고가 많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촬영하니가 생각해. 그리고 스태프가 모두 젊고 예뻐서 더더욱 좋다.

**MAXIM에는 장미안애와 씨만큼 예쁜 사람이 없다. 그나저나 작품 활동이 많이 뜸했는데, 어떻게 지냈나?**

작품 선정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었다. 요즘은 동양화 놀이에 푹 빠졌다.

**우리가 아는 배우 장미안애와 실제 장미안애는 많이 다른 것 같다. 그동안 맡았던 도도하고 새침한 역할들은 실제 나와 전혀 다르다. 내가 얼마나 털털하고 장이 많은데**

**정 많은 사람치고 술 안 좋아하는 사람 없다.**

술자리 분위기도 좋고, 각기 다른 맛의 술을 즐기는 것도 좋아한다. 주량은 소주 한 병 정도?

**여자들은 다 한 병이라고 하는데 믿을 수 없다.**

솔직히 주량을 잘 모르겠다. 기분에 따라서 다르다. 한번은 영화 팀과 회식을 한 적이 있는데 스태프와 돌아가면서 잔을 주고받았다. 그때 여행은 마신 것 같다.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피아노를 친다는 기사를 봤다.**

어려서부터 음악이 하고 싶었다. 사실 난 꽤나 감상적이다. 가곡들도 음악을 참 좋아한다. 어머니, 애완견 미순이랑 루비몽까지...

**루비몽? 명품 똥만 싸나?**

루비몽은 영치가 큰 프렌치 불독이다. 이 녀석을 처음 집에 데리고 왔는데 발귀 냄새가 장난이 아니더라. 그래서 '루비몽'이다.



**다 예쁘지만, 가장 자신 있는 부위는 어디인가?**

입술, 서구적인 체형도 마음에 든다. 비지 입을 맨 조 금 불편하지만...(웃음)

**몸매 관리는 어떻게 하나? 무작정 굵는 건 아니었지?**

먹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꾸준히 관리를 한다기보 다는 일이 다했을 때 열심히 운동하는 편이다. 오늘 MAXIM 촬영을 위해 어젯밤도 늦게까지 운동했다.

**누드 화보 소식에 많은 팬이 놀랐다.**

외국은 누드를 하나의 작품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곱지 않은 시선과 답답한 시교방식을 깨고 싶었다.

**본인의 누드가 그런 시교방식을 많이 바꾼 것 같나?**

그런 것 같다. 누드치고는 조신한 이미지인지 종종 하는 사람도 많다. 나름대로 큰 도전이었는데, 부 듯하다. 영화만 동시에 개봉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

**화보와 더불어 당신의 소핑물도 화제다. 수입이 꽤 나 째짤할 것 같다.**

바는 족족 다시 도 투자를 한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 지출이 더 많다.

**장미인에 하면 <소울메이트>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만큼 정말 재밌게 촬영했다. 그 이후에도 작품을 몇 개 했지만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소울메이트'라는 게 진짜 존재한다고 생각하나?**

오래 알고 지낸 지인들과 대화하는 것으로도 큰 힘 이 된다. 하지만 '소울메이트'처럼 정말 운명적인 사 람은 아직 못 만나본 듯하다. 그런 남자 좀 소개시 켜달라.

**나는 어떤가? 연하는 별로인가?**

예전에 연하는 여러 보기가만 했는데, 나이가 좀 드 니까 그 친구들이 더 이상 예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 이런 연하도 좋다(웃음).

**어떻게 해야 당신의 남자친구가 될 수 있나?**

아직까진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 는 사람이 좋다. 배우로서의 나와 보통의 나를 동시 에 인정해주는, 그러이 큰 사람. 그리고 내가 존중할 수 있는 면을 가진 편안한 사람이면 좋겠다.

**모두 내 얘기다. 정말 싫어하는 남성성이 있다면?**

지금 앞에 있다고 하지는 말아달라. 정말 센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강한 사람보다는 부드러운 사람이 좋다.



**남자친구에게 집착이나 질투가 많은 편인가?**

전혀 없다. 그렇다고 방목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거다. 사랑한다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너무 불안한가? 집착을 좀 해야 하나?

**당신의 집착이라면 얼마든지 환영한다. 결혼은 언제쯤 할 생각인가?**

작년까지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너무나 하고 싶어졌다. 남자만 있으면 말이다.

**이 인터뷰에서 살짝 슬리고 조만간 결혼 발표하는 거 아닌가?**

아니다. 정말 남자가 없었나?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 MAXX에 제일 먼저 알려주겠다.

**아... 말만으로도 슬퍼진다. 배우 장미애가 해보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겉보기엔 그녀)의 전지현. 달달한 성격이 실제 나와 달랐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공백이 길었다. 이제 하고 싶은 역할 보다는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배우로서 중요했던?**

고현정 선배님처럼 '나이가 들수록 아름다운 배우'라는 말을 국민에게 듣고 싶다.

**아름다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장미애에게 필요한 것은?**

타인의 인생을 대신 살아보고 표현하는 것이 배우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 나는 내 도래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겪었으니 이제 그것들을 보여줄 일만 남았다.

**자, 이제 그럼 귀여운 연하남 에디터를 사육하는 신선한 경험을...**

☺

니트 48,000원  
핑크색 비키니 61,000원  
오두 러브제이  
핑크 컬러 구두 슈즈원



원술더 비키니 32,000원  
골드 컬러 뱀규 14,000원  
클래지상의 핏제 14,000원  
모두 리브제이  
블러 컬러 구두 슈즈원



사진 보단  
동영상







SEX EXPENSE

# 섹스의 경제학

당신이 여자를 만나 뽀짝 치는 게 얼마나 눈 번쩍이기 쉬운 일인지, 이 글을 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거다. 암, 바뀔 거야. 여자를 꼬셔서 거사를 치르기 위해 드는 비용이 이렇거나 많이 든다.

## CASE 1 타인에서 연인으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으면 딱딱부터 인자까지, 초장부터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건 자제해라. 재미도 못 보고 돈만 고스란히 땅바닥에 처박을 확률이 높으니까 말이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릇만 나빠져.

**접근**

비싼 케이크에 꽃다발과 카드 드림은 명랑의 지름길이다. 그냥 적당한 기프트콘(3,200원) 하나를 센스 있게 선물하여 커피나 한잔 같이 하자는 액션이 적절하다.

**첫 번째 데이터**  
가볍게 커피나 한잔 마시고, 근처 공원에서 산책해라. 8월이면 장마도 끝날 즈음이니 날씨 좋잖아?

**공편까지 이동 비용**  
1,300원

**그녀와 마시는 카페에 2잔**  
4,100원 × 2 = 8,200원

**그녀를 비싼다주는 비용**  
1,300원

**그녀 집에서 당신 집으로 가는 비용**  
1,300원

**중간 합계**  
12,100원

**두 번째 데이터**  
여름이라고 어설픔뜨게 바다 가서도 드림치지 말고, 가까운 한강으로 이동하자. 애꿎은 당신 차 기름 값은 누가 책임지겠나?

**공편까지 이동 비용**  
1,300원

**편한 식당에서 점심과 디저트 섭취**  
15,000원 × 3 + 10,000원 = 40,000원

**후식으로 커피 한 잔**  
2,900원 × 2 = 5,800원

**그녀를 비싼다주는 비용**  
18,000원

**그녀 집에서 당신 집으로 가는 비용**  
1,300원

**중간 합계**  
66,400원

**세 번째 데이터**  
이제 술을 사걸지 여부를 결정할 타이밍이다. 그녀가 당신이 마음에 들었던 사귀자는 고백에 스톱북 응할 테고,

**영화관까지 이동 비용**  
1,300원

**영화 보기 전 저녁 먹는 비용**  
20,000원

**커피 먹고 나와서 차리는 비용**  
5,800원

**영화 티켓 ((트렌스폼어 3) 3D) 2장에 커피 콜라까지**  
16,000원 × 2 + 9,000원 = 41,000원



그녀를  
바래다주는 비용  
18,000원



그녀와 집에서  
당신  
으로 가는 비용  
1,300원

중간 합계  
87,400원

### 네 번째 데이트

이제 서로 별 것도 없는 사이다. 괜히 헛돈 쓰지 말고 시원한 모텔에서 쾌적한 데이트를 즐겨 보는 건 어떨까?



드라이 모텔 숙박  
10,000원

대실 비용  
30,000원



치킨에 맥주 한 잔으로  
단백질과 기력 채우기  
18,000원(종류)+4,000  
(생맥주 2잔)=22,000원



그녀를  
바래다주는 비용  
18,000원

중간 합계  
80,000원

지금까지 총 비용  
245,900원

이 돈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군:  
닥터오 몬스터 비트 헤드폰  
= (강철의 연금술사) 27권+(은혼) 36권  
= 닥터마틴 1460시리즈

## CASE2 여자친구와 칩거

여자친구와 떡을 칠  
때도 투자는 필수다.  
그래도 돈이 세계 먹힌  
다는 사실은 분명하지



그녀와 집에서  
만남다  
0원



그녀와 집에서  
점심을 시켜 먹는다  
20,000원



그녀와 집에서  
영화를 본다  
0원



그녀와 집에서  
저녁을 시켜 먹는다  
20,000원



그녀와 집에서  
거사를 치른다  
0원



퇴실 걱정 없이  
한술 폭 잔다  
0원

그녀를 집에서  
내보낸다  
0원

지금까지 총 비용  
40,000원

이 돈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군:  
유니코 ES-703 이어폰  
= 유니클로 청바지 레플릭 타입

## CASE3 원 나이트 스탠드

클럽에서 한 명  
눅는 것도 쉽지 않다.  
누는 여자랑 자는 건  
그보다 배는 더 어렵다.



MAXIM 정기  
파티 티켓 구매  
30,000원



클럽으로 이동  
1,300원

클럽 내  
부비부비 비용  
10,000원  
(병맥주)



눅은 아끼에게  
알코올 투척  
50,000원  
(소주+맥주)



가까운 모텔로 이동  
10,000원

대실 비용  
30,000원



모텔에서 당신  
집으로 가는 비용  
1,300원

지금까지 총 비용  
132,600원

이 돈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군:  
롯데월드 연간 이용권 1매  
= 소니 MDR-PC2 헤드폰 2개

## CASE4 EASY WAY

그냥 다 포기하고  
유중업소에 영혼  
을 판다만...



안타깝으로 이동 후 택배집  
18,000원(택시)+  
+180,000원(택배집)=198,000원

송리, 콜방에  
물 흔 주다가



집으로 가는 비용  
1,300원

지금까지 총 비용  
199,300원

이 돈으로 구매 가능한 제품군:  
보스 블루투스 헤드셋 = 금 1톤

빅토리아  
시크릿의 천사,  
〈트랜스포머 3〉의  
새 여주인공, 그리고  
MAXIM HOT 100  
대망의 1위.  
로지 헌팅턴  
휘틀리를 만나보자.



BY JESSE BRUKMAN  
PHOTOGRAPHS BY RUSSELL JAMES

최초 촬영장  
구경하고  
트렌스포머  
모자 받기



Huntington-Whiteley



악당 로봇으로부터 지구를 지킬 땐 옵티머스 프라임이 필요하다. 수십억 달러 단위의 메가 액션 블록버스터에서 매간 폭스를 대신할 매력적인 여 주인공을 찾는다면? 영국 출신의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자 2011 MAXIM HOT 100에서 No.1을 차지한 로지 헌팅턴 휘틀리가 그녀이다. 매력적인 외모에 재치를 겸비한 심자어 기분에 따라 입술 색이 변하는 바로 이 여인 말이다. 새로운 할리우드 섹스 심벌로서 떠오른 그녀를 지금 만나보자.

**《트랜스포머3(Transformers: Dark Of The Moon)》는 어떤 내용인가?**

지구를 구해야 하는 쉰사이아 라보프 분에게 새 여 주인공 필라가 있다. 나는 영화에서 칼리를 연기했다. 영화 초반에는 그렇지 않다가 점점 어두운 사건들이 펼쳐진다.

**매간 폭스가 왜 3편에 나오지 않는지 그 배경도 영화에 나오나?**

맞다. 영화에서 설명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더 이상 밝힐 순 없다. 영화는 새롭게 연인 관계가 된 우리들 이야기로 시작한다.

**극적으로 평가가 폭발하면서 그 이야기가 밝혀지나? 마이클 베이 감독 영화나까 말이다.**

음. 폭발 장면이 있고 라보프와 내가 화영에 힘써이긴 한다.

**마이클 베이 감독이 워튼 '투왈' 터프리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따부로 느껴지던가?**

마이클 베이의 영화 세트장에 '적당히'란 말은 없는 것 같다. 모든 것은 현실보다 10배 행복하다. 불도 더 많이, 소음도 더 많이, 폭발도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 모든 걸 보고 있자니 스릴을 안 느낄 수가 없었다.

**모델들이 영화에서 중요한 배역을 맡는 게 요즘 트렌드이지만, 열심히 일하는 배우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뽑아가는 게 좀 치사하다고 생각하진 않나?**

그럼 열심히 일하는 모델들 주머니에서 배우들이 돈을 빼가는 건 안 치사하고? 최근 5년간 여배우들이 패션 사업을 모조리 장병해갔다. 진짜 대규모로. 이제 모델들이 복수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거다.

**MAXIM HOT 100 리스트의 맨 꼭대기에 이름을 올린 게 그 복수의 시작이었지.**

정말 굉장한 칭사다. 지금도 어인이 병병하다. 내 경력에 아주 큰 영광이다.

**최근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사했다. 고향이 그리프나?**

매일 그리다. 영국은 나의 영혼이다. 모든 게 그리다. 사람들, 문화, 음식...

**잠깐만, 세계 화약이라고 정평이 난 영국 음식이 그리프나?**

오, 진짜. 진실으로 무척아! 모든 사람들이 영국 음식은 맛이 없다고 하는 데 이해할 수 없다. 나한테는 정말 맛있는데 말이다. 진짜하게 고민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 전에 문득 아침 식사로 토스트에 콩을 곁들이는 건 좀 이상할 수도 있었던 생각이 들었다.

**당신은 그런 걸 먹고 자했나?**

나는 농장에서 자랐다. 닭, 양, 말들이 있었고... 그것들로 우린 배를 불렀지.

**부디 말을 먹진 않았지 바쁘다!**

철대 내가 유일하게 먹지 않은 게 말이다. 어릴 때부터 사냥과 사격을 하며 자랐다. 난 말광림이었다.

**당신 입술은 정말 핏다. 노력해서 만든 건가?**

내 몸의 다른 부분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유일하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입술이다. 이게 참 웃긴 게, 기분에 따라 색깔이 바뀐다. 내가 화가 났을 때, 열정이 넘칠 때는 아주 아주 붉다. 가도 절망적인 기분이 들거나 지쳤을 땐 창백해진다.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겠지.

**음, 아는데...**

기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요술 팔찌 알지? 내 입술도 요술 입술이다.

**이제 당신의 입술을 알아보는 사람이 더 많아졌겠다.**

얼마 전에 운전 면허 때문에 교통국에 갔는데, 운전 지도관이 얼굴을 보고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이군요" 하고 알아보더라. 비록 최종 운전 테스트의 결과는 절망적이었지만 그는 나를 합격시켜줬다.







“  
난 어릴 때부터  
사냥과 사격을 하며  
자란 말괄량이였다.  
”



## 로지 헌팅턴 휘틀리

생년월일: 1987년 4월 18일

태어난 곳: 영국 데본

### 끊을 수 없는 유혹:

"먹는 것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몸에 진짜 진짜 나쁘다는 걸 무척 즐겨 먹는다. 예를 들어 구운 고기와 초콜릿 빵, 느끼한 버터 푸딩 같은 것."

### 심단 변신?

"모델에서 배우가 되고 배우에서 팝 스타가 되는 건 관심 없다. 하지만 사실 내 안 깊숙한 곳엔 절망에 찬 록 스타가 있다."

### 화려한 발재간:

"사람들은 학비 등을 마련하려고 바에서 일하거나 식당에서 웨이터 일을 한다. 나는 나이트클럽의 전문 댄서가 되고 싶었다."

###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가장 우선은 서핑 배우기 그리고 두 번째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기!"

### 직업 윤리는 필수:

"유머 감각이 있고 자신감 넘치는 남자가 맘에 든다는 말은 지루하고 식상하다. 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사람에게 끌린다."



# RUN! SHOOT! CRUSH!

## 우리나라 땅개의 주력 전차 K-1&K-1A1

마린이 스탬팩을 맞고 설치됐자 통통모로 밀고 들어오는 시즈 탱크 앞에선 답이 안 나온다.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의 전자 부대에 시원하게 강냉이를 털린 우리나라 땅개 전차에 환상하는 건 당사 아니겠나? WORD BY 김대영



김대영

용인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0여 년간 온·오프라인에서 국방 관련 칼럼을 기재해온 밀리터리 전문 칼럼니스트, 육군 웹진 아미진(ARMYZIN)에서 (영화 속의 전쟁)을 기고했다. 현재 네이버 캐스트와 조선닷컴에서 군사 관련 기획물을 연재 중이며, 인텔넷에서 국방소사팀 팀장을 맡고 있다.

홈페이지 [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http://www.cyworld.com/undercoverbrother)

**1** 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은 메카닉 유닛 구소련 T-34 전차를 필두로 38선을 돌파했다. 바이오크 유닛이 전부였던 우리 군은 순식간에 피떡이 됐고, 전쟁 발발 3일 만에 커맨드 센터인 서울을 탈탈 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했다. G.G를 쳐야 하는 극한 상황에서 연합군의 물량 버프를 극적 부활(?)에 성공했고, 3년여의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북한의 끝내주는 전자 부대는 여전히 우리 군의 골치거리로 남아 있다. 다행인 건 그때와 달리 우리나라 땅개도 K-1과 K-1A1이라는, 북한군 전차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릴 A급 전차를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 이름표를 붙여, K-1으로

1975년 당시 우리군은 전차 수량 면에서도 열세였고, 성능 또한 북한군 전차에 비해 부족했다. 결국 맨땅에 헤딩하는 방식으로, 한국형 전차 개발사업을 시작한다. 군이 요구하는 한국형 전차는 당시 최첨단 전차인 독일의 레오파드 2전차나 미국의 M-1 전차 수준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러한 전차를 만들 기술이 없었다. 결국 1976년 미국의 크라이슬러 디펜스사와 한국형 전차의 설계와 개발에 합의하게 된다. 이후 한국형 전차사업은 88전차 사업으로 불린다. 1987년 9월 17일 육군 승전 사격장에서 K-1 전차 명명식과 함께 성능 시험이 화끈하게 진행됐



다. 1990년대 중반까지 K-1 전차는 1,000여 대가 생산됐고, 1996년 4월 26일에는 K-1 전차에서 공격력과 방어력을 업그레이드한 K-1A1 전차가 등장했다. K-1A1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총 480여 대가 생산되었다.

### K-1과 K-1A1의 화끈한 공격력

K-1 전차의 주포는 북한군의 주력 전차인 T-55/62는 물론 신상 폭풍호 전차도 날려버리는 105mm 김선포(KM68A1)다. 특히 K-1A1 전차는 주포를 120mm 활강포(KM256)로 업그레이드해 주변국의 주력 전차와 맞항을 떠도 풀리지 않는다. 이 외에도 부무장용 전차장용 12.7mm K6 기관포 1정, 7.62mm M60E2-1 동축 기관총과 M60D 탄약수용 기관총 등 총 2정을 장착해 화력도 화끈하다.

## FORTRESS RIVAL

### 이웃나라 탱크 열전 |

K-10이 쳐부수야 할 탱크를 모아봤다. 다량인 권 K10이 이놈들에 비해 풀리는 게 없다는 거다.



#### 북한 폭풍호 전차(M-2002)

폭풍호는 2010년 3월 조선중앙TV에 등장하면서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2년에 이미 람이 연방시는 폭풍호 전차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M-2002라는 코드네임을 붙여왔다. 북한의 최신형 전차였던 천이호보다 화



력과 기동성, 생존성을 업그레이드한 폭풍호는 강력한 14.7mm KPV 대공 기관총에 신형 주포 125mm (또는 115mm)를 탑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레이저 거리 측정기[와 적외선 탐조등을 통해 기존 북한군 전차보다 확대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장착됐다.



### K-10I 자랑하는 헨타-킬러 기능

K-1은 '헨타-킬러 기능' 덕분에 전차장이 새로운 표적을 조준하면 사격이 끝남과 동시에 주포를 전환해 재사격할 수 있다. 사격 시간이 줄기 때문에 다수의 표적과 싸울 때 특히 유용하다. 실제로 헨타-킬러 기능을 적용한 미 육군 M-1A2는 M-1A1 전차에 비해 공격력 54%, 방어력은 100% 향상되었다. K-1은 주간에만 '헨타-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후속 기종 K-1A1 전차는 전차장의 조준경에 열영상 장치를 탑재해 야간 사용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K-1은 날림 시스템을 지원한다. 보통 전차는 주포의 -6°~+19° 범위 내에서 사격이 이뤄지는데, K-1은 윗가림 현수장치로 차체 높이를 조정하기에 포격 범위가 넓다. 여기에 1,200마력의 힘 좋은 엔진을 장착. 최고 68km/h의 속도로 쉿쉿 달릴 수 있다.



### 독특한 생김새의 전차 포탑

K-1 전차 포탑은 간결한 모양새가 특징이다. 다른 전차에 비해 차고 높이가 낮아 포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은폐와 열매가 필요한 매복 작전과 이동 공격 시 적에게 발각될 확률이 적다. 대신 전차 승무원의 거주성이 좋지 않다는 건 단점이다. 전차의 포탑에는 포탑을 감싸 안듯 설치된 바스켓과 대응도 함이 보조 장갑 역할을 하며, 측면은 공간 장갑으로 덮여있었다. 덕분에 K-1과 K-1A1은 북한의 다양한 대전차 무기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 전차 몸통의 핵심인 전면 장갑은 양산화 초기에는 미국에서 밀물 상태로 보내준 복합 장갑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국산 복합 장갑을 개발한 후 대체에 성공했다.

### 중국 99식 전차(ZTZ-99)

중국 최초의 3세대 주력 전차로 구소련의 T-72 전차를 닮았다. 1999년 10월 1일 국경절, 인민해방군의 퍼레이드에 첫선을 보이며 99식 전차라는 이름이 붙었다. 구소련의 125mm 활강포를 카피한 것을 주포로 장착했다. 자동 장전장치와 열영상 조준경 및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연동되는 디지털 탄도 계산기를 장착했다. 1,200마력 디젤

엔진을 장착해 강력한 기동성을 자랑한다. 하지만 시험 도중 자국산 대전차 미사일에 전면 장갑이 관통당하는 현상 등을 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방어력을 보강한 게량형이 등장했다.





드림십 없으니  
한겨울에!

## Don't be Evil! 군세어라, 해병대!

해병대는 작년 11월 갑작스러운 북한의 연평도 기습 도발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인 응전에 나서면서 '레일 군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국민의 박수를 한몸에 받았다. 올 3월에는 정상급 스태프 중 한 명인, 한반도 해병대에 자원 입대하면서 해병대 지원율이 치솟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해병대 소장 5명 중 절반에 가까운 2명이, 작속 상근인 사령관을 유해한 형으로 구속됐다. 6월에는 해병 2사단 경계 초빙병들이 민항기를 향해 오인 경고 사격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곧이어 지난 7월 2일에는 해병 2사단 모 부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해병대 내 구타, 가혹 행위 등 악습 사례가 잇따라 불거졌다. 7월 14일에는 30년 가까이 복무한 2사단 다른 부대 소속의 주임원사가 부대 안에서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귀신의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꼬이고 꼬이는 경우는, 아마 해병대 창군 이래 처음일 듯싶다. 어떤 국회의원의 말처럼 지금 해병대 상황은 곳이라도 해야 할 정도다. 그러나 해병대는 귀신도 잡는 부대가 아닌가? 창군의 전통을 이어온 해병대이니 당장의 위기를 넘기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해병대에 남아 있는 구시대적 악습을 털어내면, 오히려 더 강한 군대로 탈바꿈할 수 있다. 부대 해병대가 역사살을 이겨내고, 국가 정예 부대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

### 단박 친구 구난전차 & 교량전차

K-1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서 지원용 차량도 개발됐다. 구난전차는 이름 그대로 전장에서 손상된 전차를 구조한다. 최대 25톤 들어올리는 크레인 시스템은 7본이고 활차를 이용해 최대 70kg까지 견인이 가능하며 전차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탑재했다. 교량전차는 K-1 전차의 차체에 가위 모양의 교량을 탑재한 녀석인데, 현대정공(현 로템사이) 영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했다. 폭 4m, 길이 22m인 다리가 잘리면 60t 차량의 통과도 문제없다. 3분 카레를 태우는 시간 안에 설치가 완료되며, 교량의 화수는 양쪽에서 가능하다. 이들 차량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K-1은 전장에서 막강한 화력을 남김없이 퍼붓는 게 가능하다. 이런 게 바로 진짜 팀플 아니겠나! 사람들이 팀플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거다.



편히 쉴이  
하면!

### 일본 90식 전차(TYPE-90)

일본 육상 자위대의 주력 전차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달았는데 120mm 활강포를 주포로 사용한다. 당시 최고 수준의 사격 통제 시스템을 장착했다. 적을 발견하고 조준을 하면 포탑이 목표를 향해 움직여 조준하는 '축'은' 기능이 있다. 자동 장전 시스템을 사용해 3명의 승무원이 담당하여 복합 정갑 및 1,500마력 엔진을 장착했다.

문제는 살인적인 가격이다. 1대당 가격이 105억 원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차였다. 결국 300여 대 생산은 끝으로 사야노를 외쳤다.





# Wellco Doll

차명적인 매력의 마리오네트로 변신한 나인뮤지스.  
그녀들의 달콤한 보금자리.

BY 김상현 PHOTOGRAPHS BY ARC STUDIO

## 은지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아외 수영장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 비가 올 때  
아외 수영장에서 놀다 빠져 죽을 뻔했다.

1집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좀 더 열심히 준비하지 못한 게 아쉽다. 당시  
에는 멤버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팀워크도  
완벽하지 않았다. 이제는 다들 친해져서 무슨  
일이든 질해낼 수 있을 거다.

이것만은 보여줘야 했는데 라고 생각한 부분은?  
패션쇼와 무대는 생각보다 차이가 크더라. 관객을 압  
도하지 못한 채 어색한 모습을 보였다. 프로다운 모습  
을 보여줘야 했다.



# me To 's House

그녀들의 매력에 빠질 준비가 됐다면 문을 두드려라.  
인형의 집에 온 당신을 환영한다.

WORD&FILM BY 송경민 STYLING 홍해림 HAIR&MAKEUP 윤정은

## 세라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친구와 빗속에서 춤추던 때가 생각난다.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다 답답한 마음에 만행을 저질렀대(웃음).

이번 2집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건가?

70~80년대 미국 팝업 걸 스타일로 멤버 개인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다. 기대해달라.

1집 활동 중 가장 아쉬운 점은?

모델들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노래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 헤미

###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집이 생각난다. 집에서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김치 부침개나 참치전을 해먹는 게 최고!

### 다른 멤버들

압도하는 나의 장점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훨씬 귀엽지 않을까?(웃음)

### 1집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노래 실력을 뽐낼 기회가 없어 아쉬웠다.  
지금 보여줘도 되나?  
(그녀의 노래 실력이 궁금하다면 QR 코드로 확인하시라)



## 이유애린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드라이브가 생각난다.  
차를 좋아하는 친구와 미사리 길이나  
양평 필딩캠 근처를 돌고 온다.

다른 멤버를 압도하는 나의 장점은?  
몸매가 가장 육감적이다(웃음).

1집 활동 중 가장 아쉬웠던 점은?  
언기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다.  
시트콤에 꼭 한 번 출연해보고 싶다.



## 민하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김치 부침개가 생각난다. 동감내기  
혜미와 꿀잠 만들어 먹는다. 쉬는 날에는  
돌이서 맛집 투어에 나선다. 그래서 메뉴 선택은  
늘 우리 몫이다.

1집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첫 방송 무대에 서기 전에는 덜덜했다. 그런데  
사전 녹화를 시작하자 떨리기 시작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 이번에는 긴장하지 않고 준비한  
모습을 다 보여드리고 싶다.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나?

다른 사람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연예인.



## 현아

오늘처럼 비가 내리는 날이면?

빗소리가 들리는 음악을 찾아 듣는다.  
센티멘탈한 음악으로 기분을 더욱 다운시킨다.  
그러다 보면 옛날 생각이 나곤 한다.

1집 활동에서 아쉬웠던 점은?

춤면서 노래를 부르는 게 정말 쉽지 않다.  
라디오에서 노래 실력을 보여주고 싶다.  
나인뮤지스 전에 하우스홀츠와 폴사이드 파티 음  
반에서 움직이던 이들로 참여한 적이 있다.

나인뮤지스에서 해보고 싶은 일은?

연기는 물론 작곡에도 도전하고 싶다.  
우쿨렐레를 배우는 중인데 직접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 멤버들과 인디밴드 처  
럼 유닛 활동을 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

인형의 집  
옛보기



사장님이 같은 소속사 광희랑 자꾸 엮는다.  
그 콘셉트로 가야한다고 하시니 난감하다.

2집 음반에서는  
1집보다 자신 있는 모습을  
기대해 달라!

맛있는 전과 뒤볶음탕은  
홍대입구역의 참새 방앗간이 최고!



리한나의 폭발적인  
허벅지와 피포먼스가  
너무 부럽다.

무대에 서는 게 행복하다.  
징르 구분 없이  
감정의 울림을 전하고 싶다.

국군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8월부터는 나인뮤지스의  
직접(?)적인 응원을 기대해 달라.

서인영 선배와의 작업은  
너무 멀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쉬웠다.



# MAXIM 20 SEXIEST MOVIE SCENES EVER

도저히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두 번 봐도 으쓱한 아랫도리가 뜨거워지는 영화들

BY 김희성

# 20 SEXIEST MOVIE SCENES EVER



## 01 킵 베이싱어 & 미키 루크 나인 하프 워크

모든 음식이 섹스 토이다. 체리, 딸기, 피망, 심지어 사립까지도! 존(미키 루크)이 냉창고에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꺼내 엘리자베스(킵 베이싱어)의 입에 넣어주고 술을 뿌리고 사립을 문지르며 그녀의 오감을 깨운다. 몸에 먹물 걸 채벌차벌다가 섹스로 급히 마무리하는 살색 동영상과 달리 노골적이지 않지만 그래서 여자들을 더 흥분하게 만든다.

**MAKE YOUR MOVIE** 그녀가 집에 들어닥칠 걸 대비해 냉창고에 먹물 걸 잔뜩 비축해놓고 그녀의 눈을 감기고 먹인다. 아, 이런 고문인가?

**BAD CHOICE** 감치, 갓알, 정조림, 열치 북음



## 02 사본 스톤 & 아돌프 슈왈제네거 토틸리콜(1990)

영화의 첫 장면부터 등장하는 모험한 모닝 섹스 장면. 라일리타가 제법이다. 역시 섹스의 기본은 모닝섹스지.

**MAKE YOUR MOVIE** 아아, 옆에 여자 사람이 누워있던 적이 언제인가!

**BAD CHOICE**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양치질 안 하고 잠든 다음 날의 모닝 가스.

"아 유 프리 투나잇?"이라고 걸려온 전화에 "예스"라고 답하거만 하면 이름, 직업 따위 묻지 않고 뜨거운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모임이 등장한다. 상황 자체가 가져다주는 흥분이 무이다!

**MAKE YOUR MOVIE** 아무 변화나 랜덤으로 놀러 "오늘밤에 나랑 놀래?" 하고 물어보자.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아무나 한 명은 걸리지 않겠소?

**BAD CHOICE** 만났는데 친척 누나!



## 03 데니스 리차즈, 니브 캠퍼 & 맷 딜런 와일드 생(1996)

잘생긴 남자 교사 하나를 두고 늘씬한 여고생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든다. (와일드생)은 이 장면 하나로 치정 스타일의 걸작, 쓰리섬 플레이의 최고봉으로 기록했다.

**MAKE YOUR MOVIE** 이게 우리에게 가능해?

**BAD CHOICE** 박지선-오나니 콤보의 더블 액트



## 04 아만 맥그리거 & 이름 모를 여자 다수 더 클럽(2007)



## 05 톰 크루즈 & 가면을 쓴 이름 모를 여자 다수 아이즈 와이드 셋(1999)

어느 날 잠나가는 의사 (톰 크루즈)는 말만 들어도 오금이 저릿저릿한 집단 섹스 파티에 초대받게 된다. 생판 모르는 여자들이 얼굴을 가면으로 가리고 데... 데살!

**MAKE YOUR MOVIE** 그녀의 팬데를 당신의 머리에다 꼭 눌러주고 그녀와 가면놀이를 하자. 반대, 싸이코를 외치며 즐행방을 칠 거다.

**BAD CHOICE** 흥대 클럽급 암수 비율의 섹스 파티



## 06 줄리아 로버츠 & 클라이브 오웬 클로저(2004)

남자는 다른 남자와 자고 온 여자(줄리아 로버츠)와 섹스를 하면서 "너한테서 남자 냄새가 난다", "누구랑 잤나"며 끝없이 추궁한다. 그리고 우리가 친자 꿈꿨던 걸 속 시원히 물어봐준다. "야, 내가 잘하냐. 그 새끼가 잘하냐?"

**MAKE YOUR MOVIE** 그녀와 섹스를 하면서 다른 남자 이야기를 물어보자. 그녀가 더 흥분할지도!

**BAD CHOICE** "그 새끼랑 할 때가 더 좋았어" 라는 그녀의 솔직한 답변.

## 07 추자현 & 다수의 양아치 사랑결단(2009)

미녀에게 발정제보다도 훨씬 강력한 흥을 맞게 하고, 마약에 취한 그녀를 엉망진창으로... 법 망의 테두리 안에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섹스신이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준다. 마약에 취한 지영(추자현)의 항문에도 흥 주사를 놓는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다.

**MAKE YOUR MOVIE** 차마 흥을 맞으라고는 못하겠고 초등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본드 풍선에 활강 성분이 들어 있다는데.

**BAD CHOICE** 관중을 허란 말은 아니었다!

**08** **비네사 켈리도 & 커트 러셀**  
데쓰 프루프(2007)

적당히 술에 취해 바에서 웃고 떠들며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 명의 미녀한테 사이코 패스 벤대 살인마가 접근한다. 육박진 몸매에 80년생만 즐길 수 있는 농염함까지 겸비한 비네사 켈리도 누님은 그가 살인마인지도 모른 채 그를 의자에 앉혀놓고 섹시하게 탭댄스를 춘다. 한어를 가볍게 능가하는 그녀의 엉덩이춤이 3분이라는 초저절한 시간 동안 계속되는데 그야말로 죽음이다.

**MAKE YOUR MOVIE** 탭댄스를 가르쳐주는 학원도 있다. 당신이 등록한다면 청일점이 되겠지. 천국도 이보다 더 좋은 일 있을까!

**BAD CHOICE** 공옥진 여사의 끝사춤

**09** **윤진서 & 유지태**  
올드보이(2003)

'친누나-친동생'이 그것도 학교에서 물레 그 짓거리를 하다 입 썩 녀석한테 들린다. 이 둘은 <올드보이>에서 못다 이룬 패권을 6년 후 <비밀>에서 이룬다. 형수와 쌍둥이 형제로 재회해 제대로 된 댁뺄음!!!

**MAKE YOUR MOVIE** '거울방'이 있는 MT도 있다.

**BAD CHOICE** 거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뱀에서 안이 보이는 유리였...



**10** **데이 무어 & 패트릭 스웨이지**  
사랑과 영혼(1990)

가난하더라도 예쁘고 섹시한 리즈 시절 데이 무어가 몸에 진흙까지 발랐다. 패트릭 스웨이지가 데이 무어의 뒤에서 천천히 진흙을 차버리다가 키스로 이어지는 바로 그 장면은 너무 많이 회자돼서 지겨울 법도 하지만 역시 이만한 러브신도 없다.

**MAKE YOUR MOVIE** 도자기를 만드는 건 번거롭다. 대신 우리한테 초콜릿이나 오일, 보디로션이라는 훌륭한 소품들이 있다.

**BAD CHOICE** 간장, 된장, 고추장



**13** **류현경 & 류승범**  
빙자전(2010)

조여정의 뱀 몸이 화제가 되었지만 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정작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춘경이 보다 더 맛있어? 내가 얼마나 맛있는데?" 라는 황당이의 한 마디였다!

**MAKE YOUR MOVIE** 무슨 말인데 하자. "좋았어?"라는 말만 빼고...

**BAD CHOICE** 말 하느라 오뎅 섹스는 안중에도 없는 여자 당첨!



**11** **제이슨 스타덤 & 에이미 스마트**  
아드레날린(2006)

명할 노무 시기가 1시간 후면 삼장이 맞는 주사를 놓은 절망적인 상황. 그걸 막으려면 아드레날린이 계속 분비되도록 해야 한다. 불에 지지고, 몸에 상처도 내고 온갖 자극적인 걸 다 하다 못해 결국 길거리에서도 섹스를 해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도록 한다. 목숨 건 섹스치곤 자제가 다량한데? 살기 위해 필사적으로 하는 동물적인 섹스신에 당신의 가족 동등이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영화.

**MAKE YOUR MOVIE** 삼장이 안 좋다고 뺑뺑라, 그리고 하면서 외쳐라. "아임 얼라이브!!!"

**BAD CHOICE**

아드레날린이 과하게 분비된 나머지 심장마비로 사망



**12** **레이철 와이즈 & 주드 로**  
에니미 앳 더 게이트(2001)

군복으로도 가려지지 않는 미모의 레이철 와이즈와 주드 로가 전장에서 사랑을 나눈다. 옆에 다른 병사들이 잠들어 있는지 지는 척 하는 건지 확실치 않지만 아이 이놈들 깨어있었을 거야!

**MAKE YOUR MOVIE** MT(모텔 말고) 가서 침대 잠들면 안 된다. 좋은 구경할 기회를 놓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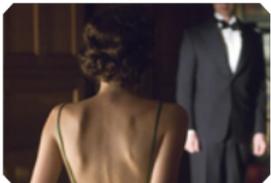
**BAD CHOICE** 이 가는 놈, 눈 뜨고 자는 놈, 참 고대 하는 놈 때문에 아랫도리가 축 처진다.

**14 윤진서 & 윤계상**  
비스티 보이즈(2008)

여자 방에 갔다가 "차츰히 왜 이렇게 많아"라며 물 부짓는 윤계상의 명대사가 탄생한 바로 그 영화. 서로에 대한 갈등이 극도로 치달은 상황에서 하는 섹스가 주는 폭풍 같은 격렬함이 백미. "할 테면 해, 싸"이라며 무표정하게 섹스를 하는데 당시의 내면을 잠재된 가학성을 스물스물 고집어내준다.

**MAKE YOUR MOVIE** 일단 싸워라. 싸운 뒤에 하는 섹스의 격정적인 맛을 한번 느끼면 그녀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싶어질 거다.

**BAD CHOICE** 그녀가 심하게 화난 나머지 섹스도 하기 전에 헤어지고 말았다.



**15 키아라 나이틀리 & 제임스 맥어보이**  
어든인트(2007)

로비제임스 맥어보이가 장난 삼아 "너의 젖은 거기에 키스하고 싶다"고 소 응당한 편지가 세실리아(키아라 나이틀리)에게 전달된 날 밤 서재에서 사탄이 되고 만다. 서재, 서재라...

**MAKE YOUR MOVIE** 그녀를 사재로 이끈다. 방문도 살짝 열어놓으면 스물이 배가 된다. 아. 집에 서재 따위가 있을 리 없지? 너무 슬퍼하진 마. 도서관이 있잖아!

**BAD CHOICE** 너무 격렬하게 하다 그만 책꽂이가 넘어진다. 책 다미 사이에 알몸으로 묻힌 채 119 아저씨를 맞이한다.



**16 정세희 & 앙백조**  
대한민국 헌법 제20(2003)

아담 총수인 국회의원(앙백조)을 죽이기 위해 복상사 전문 킬러(정세희) 투입! 앙백조 위에 올라타 거칠게 하리를 흔들며대는 킬러의 큰 음모는 디름아닌 쓰, 쓰새끼리.



**17 매기 질렌탈 & 제임스 스페이더**  
세크리타리(2002)

리(매기 질렌탈)는 자신의 몸을 확대하는 걸로 만족감을 얻는 전형적인 M 성향의 여자다. 사장은 그걸 또 어떻게 알고 그녀가 타이핑한 문서에서 오다가 나를 때이다. 발을 준다. S와 M이 제대로 만났는데 그 관계가 하필이면 또 '사장-비서'다. 으흐흐 오피스 로맨스가 펼쳐지겠구먼! 찹쌀, 찹쌀 이었

**MAKE YOUR MOVIE** 그녀의 몸에 자잘한 상처와 핏이 많다면 일단 흔내줘라. 자신의 취향을 알아봐준 당신에게서 그녀는 헤어 나오지 못할 거다.

**BAD CHOICE** 알고 보니 넘어져서 생긴 멍 자국이었는데...

**18 이를 모를 여고생 다수**  
여우계단(2003)

깜짝이란한 가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한테 "가슴은 남자가 먼저누야 크는 거"라며 뺨소쿠를 날리는 발리당 까진 여고생들의 대화는 베드신과는 또 다른 '은꼴사' 정도의 기쁨을 선사한다.

**MAKE YOUR MOVIE** 끝무 달린 몸으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건 범죄니 여대생 커뮤니티에 잠입하라.

**BAD CHOICE** 여고 화장실에 잠입하다 들켜 통네서 뵈레로 소문이 난다.

**MAKE YOUR MOVIE** 생판 모르는 미녀가 당신을 먼저 넘어뜨린다면 일단 의심부터 해야겠지?

**BAD CHOICE** 미친 듯이 흔들며대는 그녀의 허리에 음경 꼰정상을 입는다.



**19故 이은주 & 한석규**  
주홍글씨(2004)

기(한석규)은 아내가 있지만 기(이은주)와 수시로 사랑을 나눈다. 트렁크에서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애무하던 그들은 누군가의 가학에 화들짝 놀라 트렁크 문을 닫고야 만다. 그런데 이게 열리질 않는 거지. 대.방.방.

**MAKE YOUR MOVIE** 누가 오면 트렁크에 기여 들어가지 말고 차리의 자동차 밑으로 기여 들어가게 백배 낫다.

**BAD CHOICE** 경문기에서의 오픈카섹스. 지나가던 소가 자꾸 쳐다보네!



**20 김윤진 & 이종원**  
말에(2002)

평범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맞불쯤에 빠진다. 상대는 동네에서 제일 열광한 마술 의사 안규(이종원). 그는 미혼(김윤진)에게 '섹스는 하되 사랑은 하지 말자'는 캐랑이치 같은 제안을 한다. 풀밭에서 격렬한 정사를 벌이는 '어른들의 일애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다. 눈에는 눈. 이야는 이. 불륜에는 불륜이 특히!

**MAKE YOUR MOVIE** 그러다 쓰프가미추성 걸릴래!

**BAD CHOICE** 남편이 음내 나간 틈을 타 벌어지는 마술 이장과의 플레 섹스. 마을 회관 방송실에 숨겨둔 짓가지는 흥오냐! 절정의 순간에 그만 마이크 스위치를 건드리고 만다. 학생기를 타고 울려 퍼지는 사랑의 오메리야!

# Longest Journey

자구는 등그나까 자꾸 달려 나가면 온 세상 라이더를 전부 보고 오겠네.  
바이크를 타고 지구 끝까지 가려면 이 녀석들만이 답이다.  
내가 달리는 곳이 길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리라 한 승승한



## 두카티 멀티 스트라다 1200S Touring

**물**티 스트라다는 Multi(다양한)+Strada(이탈리아어로 길라는 이름처럼 도로를 떠나 어떠한 길이든 달릴 준비가 되어 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언제나 잘 포장된 길만 달릴 수 없다. 모래와 자갈이 가득한 비포장 도로가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 위로 질펀한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모터사이클로서는 난감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지만 멀티스트라다는 천 세계를 달리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에 버든 하나로 대응할 수 있게 설계된 바이크다. '나와라 가게된 만큼 팔'처럼 4단계로 준비된 스포츠, 투어링, 어반, 엔듀로 모드는 선택과 동시에 놀라운 번신을 해낸다. 예를 들어 비포장 도로가 나타나면 엔듀로 모드를 선택해 서스펜션의 작동 범위를 늘리고 차체를 높이 조정해 불규칙한 노면으로 인한 접지력 감소를 최소화 하고 장애물을 타고 넘는 충격을 흡수해 주행 안정성을 높여준다. 150마력의 엔진 파워도 100마력으로 제한해 미끄러운 노면에서 발

생할 수 있는 타이어 슬립을 방지하고 파워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오프로드라고 기여가라는 법은 없다. 착각적으로 타이어를 미끄러뜨리는 쾌관한 드리프트 추행이 가능하게끔 ABS와 트랙션 컨트롤의 개입을 최소화해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놀이도구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투어링 모드는 강력한 150마력을 진득하게 발휘해 주는 여유로운 초고속 투어러로. 어반 모드도 편안하고 경제적인 일상적 용도로. 스포츠 모드는 두카티의 총폭한 레이스 DNA를 그대로 도로에 투여하는 강력한 스포츠 바이크로 변신시킨다. 이처럼 멀티 스트라다는 4종류의 각기 다른 성격의 바이크가 하나로 합쳐진 궁극적 형태의 멀티 퍼포즈 바이크다. 이 말은 결국 어떤 길을 만나건 최고의 컨디션으로, 최고로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바이크라는 뜻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카티의 이탈리아엔 레드는 투박한 오프로드에서도 그 색시함을 잃지 않는다.

### SPEC

가격	35,900,000원
엔진	L형 271cc 수냉 1198cc
최대 출력	150ps/8500rpm
최대 토크	12.1kgm/7500rpm
시트고	850mm
연료탱크	20L
트랜스미션	6단 수동
무게	192kg
타이어	120/70-17 190/55-17

# BMW R1200GS 어드벤처

**B**MW R1200GS어드벤처의 매력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깊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 (Long Way Round)를 보는 것이다. 영화 배우 이만 맥그리거는 모터사이클이란 공통점으로 베스트 프렌드가 된 찰리 부어맨과 그들의 인생을 바꾼 108일간의 모터사이클 대륙 횡단을 나눴다. 영국 런던에서 출발해 유라시아, 알래스카 등을 거쳐 미국 뉴욕까지 20,000마일을 BMW 모터사이클로 여행하는 두 친구는 다들 어지지 않은 도로와 정신없이 변하는 날씨들을 견뎌내며 인생 최대의 모험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이 여행을 통해 어렸을 때부터 가슴속에 꿈들거리던 모험의 꿈을 실현하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낯선 사람들을 만나며 얻은 깨달음으로 인생이 변화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라이더라면, 아니 남자라면 누구나 이 가슴 뭉클한 모험담에 '나도 한번쯤'이라고 생각해 보기 마련이다. 당신이 충분히 용기가 있고 결단력 있

는 사람이라면 그 길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이만 맥그리거에게 그랬던 것처럼 BMW의 멀티 퍼포즈 바이크 R1200GS가 당신의 꿈도 이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데뷔 3주년을 맞이한 GS 시리즈는 BMW의 기술력과 그 도전정신을 모두 담아낸 월드 스타로 전 세계를 무대로 달리는 그랜드 투어의 최정상의 존재다. 길을 가리지 않는 주파 능력과 하루에 1,000km를 넘게 달려도 라이더가 피로하지 않은 인력함은 현대판 천리마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은 그래서 R1200GS를 고르는 데 망설임이 없었고 그만큼 최고의 자리에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는 베스트 셀링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그 거대한 존재감 앞에 수평대향 27리터 박서 엔진의 강성과 첨단 전자 장비 같은 것들은 이미 모두 나중 이야기다. 이 바이크는 당신을 거대한 모험의 한가운데로 인도할 것이고, 결국 당신을 구해낼 것이기 때문이다.



#### ■SPEC

가격	29,800,000원
엔진	수평대향 27리터 1170cc
최대 출력	105cs/7250rpm
최대 토크	11.5kgm/5500rpm
시프크	840mm
연료탱크	33L
드레스시트	6단
무게	256kg
타이어	110/80-19 150/70-17

# KTM 990 SM T

**일**단 990SM T에 대해 이해하려면 KTM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당연한가) 오스트리아에서 온 발랄한 오펜지 군단 KTM은 기종을 가리지 않고 워일드랩 그 자체로 정의된다. 당시 도 죽음의 멜리로 불리는 피라-다카르 멜리의 최강자라는 타이틀을 들으먼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시하라 사막은 물론 계곡과 밀림, 산길처럼 모든 스포츠로 접근 할 수 있는 최악의 주행 환경을 14박 15일 동안 내달려야 하는 무시무시한 대회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참가 마신의 완성도를 증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가 된다. 그래서 이 대회에 참가하고 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술력을 입증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대회에서 KTM은 최근 7년 동안 우승을 놓치지 않고 있으며 참가 마신이 상위 랭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그들의 기술력을 더 이상 입 아프게 떠들지 않아도 되겠다. 이른바 오프로드 최강의 명가인 셈이다. 이 같이 오프로드를 가볍고 경쟁하게 주파하는 엔듀로 마신을 일반 도로용으로 개조한 것이 슈퍼 모터드라는 장르다. 차체는 125cc 차체만큼 가벼운데 힘은 넘치니 스톱만 감지도 앞버

가 들썩거리길 만큼 신나고, 시트고는 높지만 그만큼 넓은 시야가 확보되며, 거대한 스톱로크의 서스펜션은 도심 요철쯤은 가볍게 넘어주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가진다. 이런 설정은 도심에서 훨씬 쾌적하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구성이다. KTM은 이러한 역시 모터드에 만족하지 않고 모터드 라이더들이 아쉬워하는 지점인 장거리 투어용 보강한 모델을 기획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소개 할 SM T(SuperMoto Tourer)다. 990 SM T는 말하자면 사이드 케이스에 각종 짐을 가득 싣고도 날카롭게 코너를 공략하거나 과감한 드리프트 주행을 즐기면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는 마신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라이더에게 투여러러운 인력함과 편안함을 선사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정리는 KTM과 듀얼 퍼포머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뭉쳐졌다. 비록 모든 부분에서 최고는 아닐지라도 그들이 항상 외치는 'Ready to RACE!' 에 어울리는 KTM다운 재미난 정난감으로 완성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SPEC

가격	25,000,000원
엔진	수냉 V트윈 998cc
최대 출력	114ps/9000rpm
최대 토크	9.9kgm/7000rpm
시트고	855mm
연료탱크	19L
프론스미션	6단
무게	199kg
타이어	120/70-17 180/55-17

# Grooming Tip #1

나의 피부는 어떤 상태인가?

귀찮다고 스킨 로션도 안 바르고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거나

혹은 번들번들 기름기로, 검고 까칠까칠한 피부 톤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얼굴은 늘 번들거리는데 왜 수분 공급이 필요한 건가요? 유분과 수분은 50:50으로 피부에 존재해야하는데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수분의 빈 자리를 유분이 채우려 함으로 피부는 지성처럼 보이면서 모공은 점차 넓어지게 되는 것 입니다. 번들거리는 피부 개기를 줄줄 끼는 피부! 아자르 그린 클레이 팩으로 관리해보자

아자르의 성분인 프랑스산 카오령그린클레이는 진흙성분중 최상급으로 곱다나 아자르를 통해 기름기 많은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피부속 넓어진 모공을 타이트하게 조여주고 유분의 자리를 수분으로 채우면서 피지의 분비가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눈에 띄는 효과를 볼수있다 아자르 그린클레이로 번들거리는 피부를 해결하자



시원한 물링감과 함께 고농축의 리퀴드한 비타민이 피부에 흡수되어 촉촉한 수분을 깊이 전달하고 생기있는 피부로 가꾸어준다 스킨+로션+에센스 3in1 제품으로 하나로 스킨케어 마무리가 가능한 프랑스 파리컬러 라베에트와 프랑망에서 판매되는 이세오움사의 토닝젤 비타민 C로 여름을 대비하자

isseo  
HOMME  
GEL TONIFIANT  
A LA VITAMINE C

SOIN QUOTIDIEN  
APRES LE RASAGE  
IS ALCOOL

# Grooming Tip #2

- ✓ 피지로 인해 심하게 번들거림을 본 적이 있다
- ✓ 트러블이 현재 있거나 트러블의 흔적이 있다
- ✓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았는데 모공이 보인다
- ✓ 하얗게 일어난 각질로 피부가 푸석해 보인다

위에 3가지 이상에 체크가 된다면 피지와 수분의 밸런스의 불균형이 일어나 모공이 넓어짐과 함께 같은 지성이면서 실상은 건성피부로 변화되어 가는 중입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빠른 모공 축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부는 점점 노화되어 가면서 거칠어 진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엔 적합한 제품인 이세오움의 비타민C 토닝젤로 부드러운 피부로 가꾸어 보자

# STYLE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 조유림  
 FILM 박현빛/누리  
 HELP 우현수 (로크 코리아 제작)

##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구두

발끝이 살아야 스타일이 산다.

### 한국 구두의 자존심

장인이 직접 찾아와 발 사이즈를 재고, 제작하는 수제화는 이젠 더 이상 해외 명품 브랜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호사가 아니다. 금강제화의 고급 라인인 헤리티지는 값비싼 해외 명품 브랜드를 논하기할 틈을 주지 않는다. 깔끔한 등양인 발에 어울리는 디자인, 거기에 품질까지 더해졌으니 놀라울 뿐이다.



1 여름과 어울리는 밝은 색이한 나뭇결 무늬가 온오휴한 무게감을 주는 스트레이트 팁 슈즈 590,000원 헤리티지(Black-EDWARD\_MDT 9001 CR32) 2 발등에 밴드 장식이 있는 로퍼로, 밴드에 동선 패턴을 넣으면 영도이 온다는 설 때문에 이 디자인을 페니모퍼라고 한다. 550,000원 헤리티지(Black-HENRY\_MDT 9003 CR32) 3 매끈하게 처리된 롱크 스트랩 슈즈 880,000원 차치스 by 헤리티지(BECKET\_MOSS220 CR31) \*차치스는 영국 브랜드

스웨이드 신발은 겨울용? NO!

가죽을 보드랍게 보풀린 스웨이드는 털 느낌이 강해 더워나 풀에 약할 거라 오해한다. 하지만 딱딱한 일반 가죽보다 맨발에 지쿠이 덜하고, 다양한 색상이 어둡고 더욱 잘 어울린다. 의외로 관리하기도 쉽다. 그늘에 말린 후 스웨이드 전용 브러시로 기모만 새워주면 된다. 자세한 관리법은 아래 QR코드 속 영상으로 직접 배워보자. 스마트폰이 없다면 해도 좋다. MAXM 홈페이지에 다 있으니깐.



1 좋은 구두는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슈즈 케어 키트 188,000원 로크 2 페너로피 스타일의 브라운 스웨이드 로퍼가 멋스럽다. 298,000원 로크(Loake Shoemakers- Eton\_Brown Suede) 3 전통적인 장인 정신에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었다. 한국에만 들어오는 MTO(Made to Order, 맞춤 제작 제품으로 레드 러버솔이 특징이다. 328,000원 로크(MTO-Jack\_Navy Oiled Suede) 4 얼은 그레이 스웨이드 제품으로 연비자나 데님에도 잘 어울린다. 298,000원 로크(Design Loake- Almeida\_Grey Oiled Suede)

영국 신사의 합리적인 선택

나라별로 슈트를 입는 방법이 다르다. 대체로 미국은 실용적이고, 이탈리아는 감성적이다. 반면 영국은 숨마저 각을 세워 내뿜어야 할 정도로 단정하다. 영국 신사의 구두도 마찬가지다. 등을 보이지 않는 완벽한 품질과 디자인이 슈트의 각을 더욱 날카롭게 지켜준다. 합리적인 가격대의 영국 구두 브랜드 로크는 굿이 웰트(신발 바닥창을 접착제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중창에 코르크를 삽입한 후 '웰트' 가죽과 어퍼, 인솔과 함께 수직업으로 박음질하는 방법)로 만든다. 그래서 신발 바닥창이 닳으면 전체를 새 창으로 교체할 수 있다. 신발 걸가죽만 잘 관리하면 늘 새 신을 신는 기분을 선사할 거다.

여름철 구두 관리법, 전문가가 알려준다

1 손쉬운 가죽 구두 관리법  
2 가죽보다 쉬운 스웨이드 구두 관리법  
3 얼은 가죽 구두 살리기  
4 얼은 스웨이드 구두 살리기

구두 중창 이벤트 응모하기

238,000원 로크

# JUMPER



→ 캐릭터 없는 높은 인기가 없다.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간절기 날씨일수록 당신에게선 선명한 컬러가 필요하다. 짐퍼부터 손보자.

BY 고정희  
PHOTOGRAPHS BY ARC STUDIO  
HAIR 고정희  
MAKEUP 조하나  
(에스스타 02-548-7787)  
ASSISTANT 조유일  
MODELS  
류성재, 정희수, 허민호



▶ 앞은 스카프 199,000원 시피컴퍼니  
▶ 빨간색 플루츠 420,000원 시스텔움즈  
▶ 앞은 데님 셔츠 100,000원대 프레디메리  
▶ 짐퍼 올인 원 반바지 100,000원대 프레디메리  
▶ 에스파드리유 스타일의 캔버스화 119,000원 리코스테 by 플랫폼



▲ (왼쪽부터)

독특한 디자인의 선글라스 300,000원 수비 by 옵티컬더블유  
 지마와 벨크로(일명 찝찌이)로 이중으로 여인 초록색 점퍼 258,000원 헤지스  
 아예 부분은 스트라이프 무늬인 남색 반스에 티셔츠 88,000원 커스텀엘로우  
 베이지색 면바지 100,000원대 리코스테 라이브  
 주황색 신발 100,000원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트레이닝복 스타일의 파란색 점퍼 100,000원대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연한 베이지색 반스매 티셔츠 39,000원 커스텀엘로우  
 짙은 모래색 반바지 295,000원 스톤아일랜드  
 파란색 신발 100,000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밀리터리 디자인의 노란색 점퍼 229,000원 코데조컴바인 하이커  
 해군 모양을 프린트한 빨간색 반스에 티셔츠 39,000원 반스  
 하복지 부류의 큰 주머니가 실용적인 체크 반바지 198,000원 커스텀엘로우  
 국산색과 오렌지색이 조화를 이룬 신발 66,000원 할렐

COOPERATIONS 헤지스, 커스텀엘로우, 코데조컴바인 하이커, 지마, 지스타로우, 시스텀웬, 시리츠, 스외코브스키, 헌터(02-546-7764) 반스, 벤지플로어(02-514-0693) 스톤아일랜드, 시피컴파니, 할렐(02-3446-9949) 리코스테, 리코스테 라이브, 고베, 아디다스 오리지널스(02-3447-7701) 프레디메리, 수비(02-3446-7725)

빨간색 밑창이 포인트인 신발  
188,000원 구매 by 플랫폼  
주황색 바지  
495,000원 스톤아일랜드  
초록색 반팔 티셔츠  
135,000원 시스템유르  
지퍼와 똑딱이주로  
이중 여밈 잠퍼  
895,000원 스톤아일랜드





▶ 밀리터리 디자인의 핏셔색 정미 328,000원 지마크  
연한 민트색 반소매 티셔츠 99,000원 지스타로우  
파란색 반바지 255,000원 시스탬유르  
등산화 스타일의 운동화 가격 미정 반스

▶ 초록색 작업 정미 가격 미정 리코스테  
초록색 반소매 티셔츠 145,000원 스톤아일랜드  
빨간색 반바지 138,000원 커스텀벨로우





에스피드리유  
란?

해변에서 신는 신발의 일종으로, 바닷은 밑창이나 삼베를  
엮어 만들고, 발등은 천으로 되어 있는 캔버스화다.  
통기성이 좋아 리조트 룩에 어울린다.

▲ 에스피드리유 스타일의 캔버스화 119,000원 리코스테 by 플랫폼  
흰색 버지 135,000원 리코스테  
누빔 처리한 남색 철퍼 248,000원 본지플로어  
데님 셔츠 100,000원대 시리즈

보석을 세공한 듯 렌즈가 돋보이는 선글라스 490,000원 스와로브스키 by 다리인터내셔널  
영양이를 살짝 덮는 남색 점퍼 299,000원 지스타로우  
주황색 반스매 티셔츠 275,000원 스톤아일랜드  
스트레이트 진 329,000원 지스타로우  
선명한 오렌지 형광색이 포인트인 산발 가격 미정 헌터



# PUT YOUR HANDS UP!

사람 피부는 촉촉한 게 좋지만 절대, 특히 여름엔 더더욱 습기가 차면 안 되는 곳도 있다. 어딘지 아는 사람, 손 들어봐!

by 곽병희 PHOTOGRAPH BY ARC STUDIO ILLUSTRATION: 전영호 ASSISTANT: 조유림



데오도란트  
중점 이벤트  
공모하기



## 스파지오움 by 에덤스애플 리프레싱 데오도란트

분사력이 좋은 스프레이 타입이라 목치진 않지만 원하는 부위에 뿌리려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게다가 액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인쇄심까지. 남성적인 스킨 향이 암배고, 맘을 억제하니 좀 참자. 100mL 34,000원

## 휴고 내츨렘 듀얼 액션 폼롤러 데오도란트

100% 먹을 수 있는 재료로 만든 제품이지만 입보단 맘이 솟구치는 부위에 양보하라. 한결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운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거다. 42.5g 16,000원

## 더 바다삼 데오드라이 데오도란트 콜 앤 제스티 돌 온

롤러 형태로 같은 향의 스틱용 제품보다 알코올 함량이 더 강한 만큼 더욱 시원하다. 액체가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옷을 입자. 하루 중일 보송보송한 남에게 만족할 거다. 50mL 14,000원

## 니켈 by 에덤스애플 콜드 스웨트

모공을 막는 알루미늄 솔트와 향료 파르페숨이 들어 있는 알코올 프리 제품으로, 커드랑이에 느껴지는 차가운 기운이 오래 지속된다. 또 남성적인 향기가 약하므로 하여금 당신의 커드랑이에 코를 박고 싶게 만든다.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대신 살이 찌하는 부분이 조금 끈적이다. 75mL 25,000원

## 잭블랙 by 에덤스애플 잭스 드라이 아웃 프릭션-프리 파우더

파우더 형태라서 외출하기 직전에 옷을 입고 뿌렸다가 하얀 기루가 옷에 떨어질 위험이 있다. 샤워 후 제품에 손에 덜어 찜뜨기 난 부위나 맘이 많이 나는 곳에 바르고 두드려주자. 유키능 오이, 녹차 및 라벤더 성분! 피부를 부드럽고 상쾌하게 만든다. 170g 37,000원

## 게스트맨

### 더블 액션 아이스 스틱 데오도란트

알코올 성분이 전혀 없는 제품으로 자극 없이 촉감이 부드럽고 청량감이 좋다. 은은한 향기는 오래 지속되지만, 털이 많은 부위엔 하얀 제품 덩어리가 뭉칠 위험이 있다. 70mL 27,000원



COOPERATION: HS 나비, 제블랙, 스파지오움 (599-5993 www.adamsapple.kr) | 게스트맨 (592-892-777 www.guestman.co.kr) | 더바다삼 (02-2691-7563)



# HOT Summer COOL Drink

\*마키니 촬영에 가까이 응해준 '홍대 최고의 핫한디' MAXIM 여자 스타프에게 감사의 표한다. 하지만 모델비는 없어. 당신들이 촬영 하고 남은 술을 다 마셔버렸잖아

여름 휴가의 로맨틱한 술이 만들고, 그 아찔한 추억은 같이 기억한다.

BY MAXIM 편집부 PHOTOGRAPHS BY ARC STUDIO ASSISTANTS/MODELS 최민영, 조우림, 김중국

## 호세쿠에르보 이스페셜

마기리타보다 여름과 더 잘 어울리는 칵테일이 있을까? 레프사도 급 테킬라의 대명사 호세쿠에르보 이스페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테킬라다. 이윽만 들어도 구강에 침 쓰나미가 몰려오는 라임 조각에 소금, 그리고 화끈한 테킬라 맛이 혼연일체 되어 몸 속 내장을 후끈하게 확인시켜주는 짜릿함도 좋다(이후 이어지는 순도 100% 인산불성과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르는 여자가 옆에 있네' 시주에이션은 덤). 하지만 테킬라의 미덕은 마기리타 칵테일에서 가장 돋보인다. 당신의 바캉스 러브러브 프로젝트에 화룡점정이

될 테킬라를 워칭에 들어부어 보자고!  
문의 [www.pernod-ricard-korea.com](http://www.pernod-ricard-korea.com)

\*레프사도(Reposado): 오크통에서 최소 2개월 이상 숙성하고(숙성 기간은 멕시코 정부가 법적으로 정함) 최소 5%의 아가베 용액을 쓴 테킬라. 요즘보다 높은 레벨은 아녜호(Añejo)라 한다. 1년 이상 숙성되고 100% 아가베 용액을 쓴 테킬라만 아녜호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SUMMER  
DRINK-2  
BEER



### 버드와이저

킹 오브 팝, 킹 오브 곡괘이, 킹오파, 킹조파... 스스로에게 킹이란 칭호를 주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거 좀 부끄럽잖아? 버드와이저는 스스로를 킹이라 부르는 예고 셴 아메리칸 스타일 라거다. 킹답게 단일 브랜딩 판매량은 세계 1위, 너무 무난하다는 평도 있지만 부드러운 알싸함에 숨은 마초적인 매력만큼은 인정한다! 대부분의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도 장점문의 [www.bud.co.kr](http://www.bud.co.kr)

### 카프리

다들 이 트위스트 캡에 당황했던 게 옛것제 같은데, 카프리가 탄생한 지 벌써 16년이다. 뭔가 외국스러운 느낌을 준다며 인기몰이 끈 이 국내 유일의 투명 병맥주는 4.2%의 낮은 알코올 도수와 특유의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다. "다른 맥주보다 칼로리가 20% 가량 낮다"는 것도 여성에게 어필하기 좋은 포인트(자난 6월호 맥주 가이드 기사에서 카프리에게 폭풍 개입을 선사한 게 맘에 걸려 하는 공치사는 아니니 오해하지 마~).문의 [www.cafri.com](http://www.cafri.com)





### 자카파

도끼파도, 막기파도 아닌 자카파 이름만 들으면 알코올이 혀 위에서 희 희를 들고 설치는 신경질적인 술일 것 같지? 자카파는 꿀, 버터, 말린 과일 등의 풍부한 향과 캐러멜, 바닐라, 커피와 카카오, 망고, 계피 등의 맛을 마치 풍만한 여자의 가슴이 허공에 달듯 부드럽게 선사하는, 과테말라산 고급 럼주다. 보통의 럼주들이 이미 설령을 몇 차례나 뽑히고 남은 사탕수수 피크레기로 만들어지는 데 비해, 자카파는 설령을 한번도 내준 적 없는 순결한 '버진 사탕수수 허니'로 만들어 맛이 더욱 진하고 풍부한데, 자카파는 온더락으로 즐기는 게 가장 좋다. 점성이 강한 자카파가 얼음을 타고 흐르는 모습도 상당히 아름답다.

자카파란 이름은 과테말라 도시의 이름에서 따왔다. 생산지는 '구름 위의 집'이라 불리는 해발 2,300m의 과테말라 고지대다. 허리의 장식 끈은 고대 마야 문명인의 페타테 밴드에서 착안했다. 페타테 밴드는 마른 아자수일로 만든 띠 장식이다. 실제로 과테말라 여성들이 수공예로 만든다. 마야인들은 페타테 밴드를 머리에 얹으면 세상을 보는 지혜가 생긴다고 믿었다. 자기 돈 한 푼 안 보태면서 차가 구르다, 모기가 많다, 방이 좁다, 누구는 남친이 해외에 데려갔다더라 칭칭대며 정신 못 차리는 참없는 그녀의 머리에 말없이 밴드를 둘러주자, "헛! 다행!"  
문의 [www.diageo.co.kr](http://www.diageo.co.kr)



EDITOR'S CHOICE

### 그롤쉬

네덜란드 하던 레이 분야스키와 바다 허리 밖에 모르겠지만, 이번 기회에 독특한 두껍을 머리에 인 그롤쉬가 네덜란드의 프리미엄 맥주라는 건 알아두자(나중에 술자리에서 작업할 때 이 말 깔 걸 대비해서). 4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롤쉬는 알퍼 쿨과 개운한 맛도 있지만, 그롤쉬 스윙탑이라는 오프노가 더 흥미롭다. 1897년 조선 땅에 대한제국이 설립될 때 네덜란드 교생이들은 이런 걸 만들고 있었대!

병뚜개 없어도 팔 수 있는 맥주는 야외 활동을 위한 최적의 선택이다. 맥주병 트윈스트 캡을 돌릴 때 손바닥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을 여자 앞에서 억지로 참아야 하는 것에 비하면, 그롤쉬를 따는 일은 무척 재미있고 쉽다. 게다가 이걸 딸 때 나는 독특한 '병' 소리는 마치 삼패인을 따는 듯한 럭셔리한 기분을 선사한다. 잘 열리는 입구 앞에 장사 없다(고양?). 깔 때마다 요한 최열이 느껴지니 여름 밤 해변에 영영이를 붙이고 앉은 그녀와 당신 사이에 한 병, 한 병 쌓이면 그롤쉬 빈 병이 결국 신을 이루게 될 거다. 맥주 한 병을 마시더라도 여자 앞에서 요것 정도는 까줘야 입술이라도 한 번 비벼볼 수 있는 거야. 알겠어?  
문의 [www.grolsch.co.kr](http://www.grolsch.co.kr)

자카파 23은 숙성 기간이 6년에서 23년 사이인 자카파를 볼멘성한 제롬



## 그레이 구스 시트론 & 그레이 구스 도아

그레이 구스가 입안에서 퍼지는 우아한 느낌은 다른 보드카를 그저 평범한 독주로 느껴지게 할 정도다.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탄생한 그레이 구스 보드카는 가격이 6만 원대로 조금 비싸지만 특별한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이만한 게 없다. 그레이 구스 플레이버 보드카는 천연 과일에서 신선하고 은은한 과일의 맛과 향을 취한다. 그레이 구스 시트론(오른쪽)은 프랑스 앙종 마을의 레몰을 사용했다. 민통이 뭐 하는 동네지는 몰라도 맛 하나는 기가 막힌 것 같다. 보드카 특유의 달고 신성한 맛이 레몬향과 퍼져 여운을 길게 남긴다.

자본 6월 세계 최대 국제에 선보인 그레이 구스 포아(왼쪽 아래)는 프랑스의 앙주 배에서 뽑은 에센스와 그레이 구스 보드카를 블렌딩해 달콤하고 상쾌한 맛을 낸다. 둘 중 MAXIM 여자 스타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것은 포아 쪽이었다. 자, 보드카에 알뜰발하게 취한 기분이야 아웅다웅 도래성도 쁘고, 이왕이면 판매장정도 쁘아보자고 문의의 [www.baccardkorea.com](http://www.baccardkorea.com)



그레이 구스 도아



그레이 구스 시트론

## — ANOTHER CHOICE —

### 인생샷 M

특별한 순간에 터뜨리는 삼태인은 식사 전, 식사 중보다는 식후에 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디저트의 함께 달콤하게 즐기는 가벼운 알코올 농도의 스파클링 와인인 돌망의 밀알 여행에서 빠져서 안 된다. 앤젤하트 M은 이탈리아 스파클링 와인으로 모스카토 특유의 스파이스와 달콤한 향에 파인 애플과 정미향이 상쾌하게 어우러지면서 서약 같은 과일맛을 선사한다. 활활 불타는 열혈 춘춘 남녀부터 노부부까지 세상 모든 연인들이 달콤한 사랑을 딱딱 누워길 비라는 선한 마음을 담아 가슴팍에 하트까지 큼직하게 새겼다. 문의 [www.diageo.co.kr](http://www.diageo.co.kr)



### 스미노프 아이스 & 데블블랙 아이스

스미노프 아이스는 세계적인 보드카 브랜드 스미노프 레드와 베이스로 한 알코올을 음료다(이런 기법은 술을 Ready to Drink, 줄여서 RTD라고 한다). 스미노프 아이스는 스미노프 레드와 소디수, 레몬향을 가미한 청량한 RTD로 알코올 도수가 5%로 가볍다. MAXIM 회식 자리에서 이 달콤하고 상쾌한 스미노프 아이스는 여자들에게 인기 대폭 발이었다. 세계적으로도 1초당 25병이 넘게 팔리는 인기 음료다.

오른쪽 사진 속 스미노프 데블블랙 아이스는 국내에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녀석으로, 레몬향, 와인향, 사과향이 첨가되어 달콤함과 상쾌함은 여전하지만 알코올 도수는 6.5%로 조금 높아서 술다운 술을 마신다는 느낌을 준다. 남자다운 블랙 장식의 무명 병은 당신을 세련된 도시남으로 만들어 줄 거다. 문의 [www.diageo.co.kr](http://www.diageo.co.kr)



SUMMER  
DRINK 5  
WHITE WINE



제이콥스 크리 리졸링

호주 No.1 와인 브랜드 제이콥스 크리의 리졸링은 투명한 연꽃빛을 띠는, 어디에나 무난하고 상쾌한 화이트 와인이다. 은은한 꽃향기와 라임, 오렌지 향과 맛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에티카가 술잔을 들고 와인 앞에 있을 때는, 이미 여자 스타일프롬이 마지막 남은 한 방울마저 떨어뜨려버린 뒤라 무슨 맛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문의 [www.pernod-ricard-korea.com](http://www.pernod-ricard-korea.com)

클라우디 네이 테 쿨로

호주와 마찬가지로 햇볕이 많이 드는 맑은 뉴질랜드의 기후는 포도 경작에 아주 좋다. 그래서 뉴질랜드 소비용 물량은 그 산뜻한 산미로 정병이 나 있는데, 그중 클라우디 네이에는 단맛 없이 드라이하고, 다양한 과일 향미가 느껴지는 와인이다.  
문의 02-6911-0835



SUMMER  
DRINK 6  
WINE WITH  
BUBBLES

샴동 NV 로제

페리에 주에 벨레도르

로맨틱한 여름 하늘 아래 그녀와의 첫날 밤, 로제 샴페인 보다 좋은 선택지가 또 있을까? 샴동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샴페인 모엣 & 샴동의 섬세함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하지만 무척 훌륭한 대안이다. 저렴한 가격에 비해 우아하고 신선한 매력은 여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보기와 달리 단맛은 거의 없어 디저트용보단 해산물 요리에 곁들이는 게 좋다. 사진 속 샴동 NV 로제의 가격은 4만 원대, 샴동 NV 브릿은 3만 원대.  
문의 02-6911-0835

황금색 샴페인을 따른 잔 바닥에서 기포가 방울져 끝없이 올라오는 걸 감상하며 그녀와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워보자. 페리에 주에 벨레도르는 '샴페인의 꽃'이라고 할 정도로 고급스럽고 복합적인 향이 난다. 최상급 사도네를 이용하기 때문에 수확이 나쁘면 아예 술도 안 만든다고, 벨레도르는 프랑스어로 '아름다운 사할'이다. 19세기~1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우아함을 뜻한다. 병에 그려진 꽃은 아녜모네다. 꽃보다 아름다운 모나코 왕비 그레이스 켈리는 생전에도 페리에 주에를 무척 좋아했고, 캐서린 제타존스와 마이클 더글라스의 결혼식 때도 이 녀석이 사용됐다. 고급 샴페인의 코르크가 열리는 순간 그녀의 마음도 뚫히고 열리면서 둘만의 특별한 사랑이 방울방울 시작될 테니, 당신은 그저 앉아서 샴페인이 부리는 기적을 구경만 하면 된다.  
문의 [www.pernod-ricard-korea.com](http://www.pernod-ricard-korea.com)

WHO'S  
THAT GIRL

길하라

뜨거운 에너지로 (뜨거운 형제들)을 뒤흔들었던 그녀를 만났다

1탄 홀하우스  
김피 캠페인



그녀에게  
더 가까이



길하라

생년월일 1989년 10월 4일

별명 김연아, "아이러인 때문인 듯 김연아  
신수가 좋은 성적을 올릴수록 나도 영달이  
덕 보는 느낌"

몸무게 임정형, "김초 코의 연가 에 도전해  
보고 싶다. 내가 김초인다는 아니지 않나?"  
스트레스 해소 약기, "밤을 잠만 좋아한다.  
인티유 끝나면 항상 약아미지"

취미 트루터, "공이 전화 안 하고 문자 안  
보내도 항상 힘겨운 느낌이 들어서 좋다."  
소원 "눈이 커졌으면 좋겠다."

목표 좀 더 재능적이고 당돌했으면 좋겠다.  
자민과 오마이 아니라 니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프로 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싶다.'



# CLUB

BY 김희성  
PHOTOGRAPHS BY HOSPITAL PHOTOGRAPH  
COOPERATIONS CLUB ANSWER, ESCAPE KOREA



# THE MAXIM PARTY 2011. 6. 25

비바람도 MAXIM PARTY의 열기는  
막을 수 없었다!



### HOT RAINY DAY

아침부터 내리는 비는  
MAXIM PARTY가 시작하는 밤 10시가 되도록  
그칠 기미를 안 보였다.  
쏟아지는 폭우에 이날 파티는 다소 한산할 것이라  
예상했으나 에디터의 각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MAXIM PARTY에서 불리는 토요일 밤을 보내기 위해  
종출당한 클러버들로  
이날도 에디터는 긴 줄을 서야 했다.





### DRESS CODE: SEE-THROUGH

이날의 드레스 코드는 고관개도 시스루 룩이었다.

리듬에 몸을 맡길 때마다 언더웨어가 살짝살짝 비치는 풍에  
 눈을 놓은 수컷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이 맛에 파티를 열지!

MAXIM 회보에서나 볼 수 있는 핫한 의상을 차려 입은  
 아래따운 그녀가 당신의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면  
 MAXIM PARTY로 컴 온, 베이비~



### HOTTER THAN EVER

내리는 비 때문인지 이날 따라 클럽 안은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웠다.

파티 현장은 추적추적 내리는 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광란으로 치달았다.  
 현란한 조명, 술, 키스, 음악, 춤...  
 만약 지상낙원이 존재한다면  
 바로 여기다!





# SOUL PLANE PARTY

그리고 MAXIMO이 찾은 두 번째 파티.  
바로 스튜디오스 파티다. 날자! 날아보자구나!

BY 김희성  
PHOTOGRAPHS BY IL.photographer  
COOPERATIONS CLUB MASS, MAVE PARTY



## DRESS CODE: SEXY FLIGHT ATTENDANT

섹시한 여자 간호사가 대거 등장했던 파티.  
기억하고 있나?

그 여인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하나의 파티가 열렸다.  
바로 당신의 오랜 팬타지를 실현시켜줄 스튜디오스 파티다.  
트렌스포머에 맞먹는 스튜디오스 유니폼의 무한 변신이  
클럽 매스에서 펼쳐졌다. 스튜디오스 유니폼이 섹시한 줄은  
진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미처 몰랐다.  
이러니 우리가 클럽을 못 갔자...



THE

# MAXIM

2011. 08. 27.

ANSWER

PARTY

escape  
corea

Special Guest DJ  
AstroVoize  
SugarPop

Oguru. Gon. Drill.  
Insidcore and VJ SIN

by ALO  
EYEWEAR SPACE

ReservationsVIP  
01089788017

Performance by  
The Maxim Girls

# MAXIM BUYER'S EDGE

## 레노버, 침 비즈니스 노트북 ThinkPad®X1 출시

레노버에서 ThinkPad®X1을 7월 중에 출시한다. ThinkPad®X1은 인텔® 코어™ 프로세서 패밀리 CPU와 Windows®7 Professional을 장착하였다. 또 부팅이 늦게 편을 도입해 정속성을 보장하여 30분 충전에 배터리 80%가 충전된다. 빠른 부팅, 자동 암호화 드라이브, 하드웨어로 구현되는 패스워드 매니저, 자료 인식 장치, 백업/복원 솔루션 제공으로 비즈니스에 최적화하였으며, 충격에 강한 고밀라 글래스를 장착해 내구성을 높였다. 가격 216만 원

thinkpadx1.event.co.kr



## 호가든, 대용량 500mL 캔 출시

벨기에 프리미엄 화이트맥주 호가든이 500mL 캔 제품을 새롭게 선보인다. 호가든 500mL 캔은 355mL가 부족한, 그리고 수퍼까지 달라질 만족감이 부족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도. 호가든 500mL 캔 제품은 편의점과 대형할인점 등에서 판매되며, 대형할인점에서는 4개 묶음 4개 패키지로도 만나볼 수 있다.



## 스왑치, 풀 블러디드 콜렉션을 출시

스왑치의 대표 패션 워치 브랜드인 스위크한 감성의 크로노그래프 시계 풀 블러디드(Full Blooded) 콜렉션을 선보인다. 풀 블러디드 콜렉션은 플러미드 케이스와 알파마뉴 브레이슬릿을 사용하여 놀랄 만큼 가벼운 착용감을 선사하는 크로노그래프 시계다. 풀 블러디드 콜렉션은 여성용과 남성용 2가지로 출시되며 디자인에 해금 패턴을 넣어 트렌디한 느낌을 더한 풀 블러디드 스킵 2종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가격 191,000~215,000원 까지 문의 02-3149-9549  
www.swatch.co.kr



## 빈폴, 노트북 백팩 출시

실용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빈폴 역시 사리에서 비비드 컬러를 채택한 14인치 노트북용 백팩을 출시한다. 직사각형의 정성적 디자인에 나일론 소재, 가죽 스트랩으로 이루어져 있어 클래식하면서도 실용적인 스타일 연출이 가능하다. 카키, 네이비, 레드, 오크색의 4가지 컬러. 가격 265,000원 문의 02-6911-0734 www.bearpole.com



## 올림푸스, PEN E-P3로 흔들림을 잡다.

PEN E-P3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AF(오토포커싱)를 탑재하여, 간직한 순간에서의 촬영이나 움직이는 피사체를 단순에 촬영할 수 있다. 풀 HD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1230만 화소의 고속 이미지 센서와 차의 연조는 감도를 ISO 1280까지 끌어올려 최고의 화질을 구현한다. 가격 1,099,000원 문의 02-6255-3360



## 스톡장 창작뮤지컬 대 신화, 스페셜티티

뮤지컬계의 불후전 박인선 연출가, 흥행 보증수표 No.1 안우가 정도영, 뮤지컬계 미디스 손 양우진 음악감독이 손을 잡고 군데라는 특수한 장소에서 일어난 유쾌한 에피소드를 뮤지컬로 담았다. 강태형, 장덕수, 임종훈, 박세영이 연기하는 개성 있는 캐릭터들이 관객들에게 5.0초마다 웃음팩터들을 선물한다. 가격 일반석 4만 원 문의 (주)악어컴퍼니 02-764-8760

## 이세오음모비타린 C 토닝 젤, 여름 시장 공략

프랑스 영문 에스테틱 이세오음의 남성 구루양육에 인정한는 남성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인 이세오음의 베스트셀러인 비타린 C 토닝 젤이 피로 해지기 쉬운 여름 피부를 책임진다. 비타린 C 토닝 젤은 비타린C의 항산화 효과와 비로스는 즉시 흡수, 빠른 보습을 돕는 스카르진+에센스 3in1 제품으로 피지조절, 모공관리, 애프터셰이브 등의 복합적인 기능에 청량감을 더했다. 가격 52,000원(100mL) 문의 02-595-1990



## 랍보르기나,

### 이탈리아 통일 150주년 스페셜 에디션 출시

이탈리아가 지금의 단일 국가로 통일된 지 올해로 150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랍보르기나가 통일 150주년 기념 스페셜 에디션인 '기아르도 L'550-2 트리플로레'를 출시했다. '트리플로레' (영어로 Tricolor)란 이탈리아 국기인 삼색기를 상징한다. 이뿐만이 아니라, 백색, 녹색의 삼색으로 표현된 존 기아르도 트리플로레가 지난 7월 14일 공식 국내 출시를 앞둔다. 문의 랍보르기나 서울 02-3438-6400

**기네스맥주, 가루수 길에 랩업스터어 '기네스 라이온지 오븐'**  
기네스맥주가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2일까지 맥주 업계 최초로 신상품 가루수 길에 '기네스 라이온지'를 오픈한다. 완벽한 기네스맥주를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 브랜드 체험관에는 전문 요리사와 함께 맥주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시음부스도 있다. 기네스는 이와 함께 오는 28일까지 이동형 고급 시음바가 설치된 기네스 '퍼펙트 바스'를 흥대, 강남역, 대현로 등지에서 운영한다. [www.daretoberperfect.co.kr](http://www.daretoberperfect.co.kr)



**H&M, 가을 시즌 트렌드 제안**

이번 가을 시즌에도 상품성과 기능성이 좋은 아이템의 인기는 계속된다. 클래식 스타일에 니트나 파카를 걸치거나 화이트 셔츠에 두툼 블레이저를 매치해 좀 더 세련된 연출을 선보이자. 특히 밝은 색조의 다른 재킷은 클래식 오버코트를 완벽하게 대체해 시트류 스타일링에 유용하다. 이번 가을 마스트 아이템인 클래식 패턴 아이벌린 가죽 벨트, 부츠, 내로우 타이나 모자 등과 적절히 매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건 어떨까. 문의 02-726-3609



**극한 도전을 위해 제작된 루미녹스의 아웃도어 워치**

스위스 아웃도어 워치 루미녹스는 라틴어로 '밝은 밤을 의미한다. 그 의미처럼 특수 군용 시계로서 확고한 신뢰를 거둔 브랜드인 루미녹스의 F-117 Nighthawk 시리즈는 더 크고, 더 굵고, 더 강하게 재탄생한 신제품으로 루미녹스 고유한 지리정보 시스템과 2000미터 방수 기능을 자랑한다. 가격 1,099,000원 문의 02-757-9866 [www.luminowatch.co.kr](http://www.luminowatch.co.kr)



**여름 휴가철 고생하는 내 차에게 BlissWash!**

블리스왈시는 엔진 내의 더러운 카본 때를 켜 빼주고, 원활한 공기유입을 통해 엔진이 좀더 효율적인 연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블리스왈시로 깨끗하게 세정한 엔진은 강한 힘을 발휘하며 장시간의 주행도 거뜬히 해낸다. 뜨거운 여름, 장거 운행으로 고생하는 나의 차를 위해 블리스왈시를 한번 먹어주자. 문의 080-500-1479

**영양 F1 코리아 그랑프리, D-100일 초합격 진입**



영양에서 열리는 세계 최고의 모터스포츠 F1 그랑프리 대회가 지난 7월 1일부터 D-100일 카운트 다운에 돌입했다. 현재 F1 코리아 홈페이지([www.koreagp.kr](http://www.koreagp.kr))에서는 4차 티켓 오픈을 통해 2011년 10월 16일에 열리는 결승전을 관람할 수 있는 티켓을 10% 특별 할인 특가에 판매하고 있다. 4차 티켓 오픈은 8월 31일까지이나 나중에 입표 값에 얽히지 말고 아서 고고반.

**폭스바겐, 럭셔리 SUV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다.**



2002년,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으로 럭셔리 SUV 시장을 흔들었던 투아레그는 더욱 파워풀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신형 투아레그는 5세대 모델에 비해 한층 날렵해진 차체 덕분에 더욱 안전하면서 인위적인 주행이 가능해졌다. 죽은 렐스, 다크라 펠리(Darker Pelly)에서 3년 연속 우승을 거머쥔 사막의 제왕 투아레그와 함께 매일 매일이 모험이 되는 일상을 느껴보려는 거든가. 신형 투아레그의 국내 판매 가격은 V6 TD 블루모션 모델이 8,990만원, V8 TD R-Line 모델이 1억 1,470만 원이다.

**플뤼에(Pluie)의 명품 가죽 슬루션, 에칭식 일로**

명품 신상 가방 사담이라고 예찬이 과분하다고? 예기 독특한 방법이 있다. 플뤼에 가죽 코팅제에 에칭식 일로는 가죽 표면 깊숙이 방수층을 형성, 습기로부터 가죽을 완벽히 보호하여 염색 사용을 오래 지속하게 한다. 장미엔은 물론 사계절 내내 일찍 염색 없이 오래 상태를 관리가 가능하다. 것이냐 예찬이 명품 가죽 가방을 즐긴다면 이제 지갑을 열지 말고 에칭식 일로 코팅제를 써보자. 가격 88,000원(50ml) [www.pluie.co.kr](http://www.pluie.co.kr)



**닛산 큐브 사전 예약 실시**

닛산은 큐브(CUBE)의 가격을 공개하고, 전국 전시장을 통해 사전 예약 판매를 실시했다. 한국 소비자들 이 가장 출세를 기다리는 닷산 브랜드의 모델인 큐브는 고유외 디자인과 기능적인 디자인 세련된 공간구성, 혁신적인 주행 환경을 바탕으로 1998년 출시 이후 박스캐브 Car라는 새로운 세그먼트를 제시하여 일본에서만 100만대 이상 판매된 인기 모델이다. 가격 2,190만 원(1.8S), 2,490만 원(1.8S) 문의 080-010-2323 [www.nissan.co.kr](http://www.nissan.co.kr)



**한국타이어, 여름 휴가철 고객사랑 안전캠페인 실시**

한국타이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7월 29일부터 8월 22일까지 전국 8개 휴게소에서 고객 사랑 안전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 무상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망향(망향), 추풍령(망향), 여주(망향), 황성(망향), 서산(망향), 장영(망향) 등 6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안전점검 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경품이 제공되는 한정 이벤트도 함께 이루어진다. 휴가를 떠나는 독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www.hankooktire.com](http://www.hankooktire.com)

**시스템 옴므 빈티지 레더 백 출시**

시스템 옴므에서 빈티지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돋보이는 빈티지 레더 백팩을 선보인다. 윙기트는 앙카족 소재를 사용하여 세련된 감각이 눈길을 끄는 빈티지 레더 백팩은 블랙 컬러로 스킨함을 부각시켰다. 모던한 반크 스킨 캐주얼 차림은 물론 빈티지한 캐주얼 스타일 둘 다 잘 어울려 활동도가 높은 것 또한 장점이랄 할 수 있다. 가격 625,000원 [www.system.co.kr](http://www.system.co.kr)



**로만스, 액티브 컬렉션 출시**

세계적인 시계 빅뱅의 바젤월드에서 10년 연속 명품관에 입성한 브랜드 '로만스' 이 노화우를 바탕으로 최첨단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인 전통 스포츠 라인인 액티브 컬렉션을 전개한다. 특히 새롭게 선보이는 AL123A-M 모델은 다이아몬드와 남성스러운 멋을 한층 더 높이고 100m방수 기능과 오픈 버클 형식의 편의성까지 갖추어 남성들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출시처 및 문의 02-2190-7020 [www.thewatches.co.kr](http://www.thewatches.co.kr)



# MAXIM INSIDER



MAXIM을 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곳곳에 숨은 선물을 찾는 준비가 됐나?

과를 때 이거까라하고!



### GIFT LIST

맨즈클래식 데일리 풀 글렌저, BK크림 /트렌스포머 야구 모자 /가쓰비 모이스카라이징으로션모면, 웨이셀 워시 오일 클리어용 /TASK 셀프타이밍/지갑 앤 하이드, 그리스, 키사라/미카렐 티셔츠 188 티셔츠/반다이 프라모델 /슬러그드 체형권 등

그 외에도 MAXIM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넘친다!

MAXIM 8월호 곳곳에 비어 있는 QR 코드가 주목하라. 생생한 촬영 현장을 담은 영상은 물론 각종 이벤트와 선물이 곳곳에 숨어 있다. MAXIM 홈페이지와 공식 트위터에서도 선물을 뽀대다 즐겨찾기 하자!

문의 [www.maximkorea.net](http://www.maximkorea.net) [twitter.com/maximkorea](https://twitter.com/maximkorea)

MAXIM 트위터로 모이스~

MAXIM에 등장한 스타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원하나요? 그럼 다음 미션을 수행하라. 요즘 같은 세상에 공짜 따윈 없는데!

- 1 MAXIM 8월호를 구매한다.
-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기사를 3개 고른다.
- 3 자신의 블로그 또는 트위터, 미투데이에 'MAXIM 8월호 BEST 3'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긴다.첨부한 이미지가 색깔이 날수록, 내용이 알찰수록 폴라로이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차츰는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사진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 4 블로그나트위터 URL, 이름, 연락처, 받고 싶은 그녀의 사진이 무엇인지를 적어 [reader@maximkorea.net](mailto:reader@maximkorea.net) 으로 메일을 보낸다. 이름과 연락처가 없으면 자동 탈락!
- 5 9월호 MAXIM 폴라로이드 이벤트에서 자신의 이름이 당첨자 명단에 올랐는지 눈에 붙을 커고 확인한다.

7월의 승리자는 나르사의 열혈팬이자 MAXIM 7월호가 도착하자마자 날밤을 새며 정주행한 정지희 독자다. 그가 보낸 애정이 땀땀 담긴 미션 글은 편집부가 감동하기 충분했다.

## BEAT THIS CAPTION



이달의 도전 과제

### 응모하기

- 1 솔직한 감성을 써라 솔직한 마음에서 우러나!
- 2 응모는 우편으로 (121-844)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46-36 MAXIM KOREA 빌딩 4층 편집부, 이메일로 [caption@maximkorea.net](mailto:caption@maximkorea.net) 또는 캡션 경기 QR 코드를 스캔하고 댓글 달기로 하면 된다. 이름, 연락처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
- 3 가장 MAXIM스러운 일문선 또는 독자는남에게 **반다이프라모델**을 선물로 주겠다. 여름 휴가로 시원한 카페에서 프라모델 조립하는 것만 할 게 없지, 뿌인뿌인!

### WINNER 자넨달 우승자

'나 다리 사이에 묵묵히 있어서 다리 끈기 안 보이!' - 투베스체다

### AND LOSER...이 패배자들!

김상현 에디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김희성 팬클럽 회장  
자작나무 타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김희성 에디터! 맥심

아니, 이 양반아...

아니, 뭐, 이런 일문선 을... by.아일마닷컴 맥심

고해성도 캐리매량 반이요~♥

우울할텐 줄면  
물라도 고해성도만 허용 한다든 원이본주의를 MAXIM은 거부한다. 맥심

간간한 오빠의 심장(?)을 차갑게 외면하는 아누네에 의해 차가운 말판 내뱉는 말 동선이 속출한 가운데 홀로 '아이가 싫은 나 차진 남자여' 라고 외친 일문선이 있었으니 편집부가 이를 놓칠 리 없지 모두들 레이싱벨이라고잡혀있고 있고 있는 상황을 '180' 비틀어버린 찬신한 시기에 높은 점수를 줬다. 일문선과 정묘한 심크로움을 자랑하는 닉네임 역시 보너스 점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담당 에디터가 일문선을 보고 다리를 꼬았다가 하버지 사이에 긴 육뿔에 가해지는 압력에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기 때문에 뽑은 건 아... 아니다.

# 에디터 김군의 일기



6월호 MAXIM을 만들면서 있었던 편집부의 대사를 소개하는 코너다. 파일럿 코너이니 만큼 독자의 반응이 뜨겁지 않던 시점과 동시에 막을 내릴 수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재미가 있는 코너라는 드림을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해주시다면 언제든 배급 인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남발! 모닝이 장 악재!



현상원하의 유아독존!

## 난은 모닝이다

MAXIM 편집부는 지난 7월 5~7일 대명 솔비지 호텔에 야외 촬영 겸 M.T를 떠났다. 엑스스를 비롯해서 스바루 등 대명차가 즐비한 상황에서 에디터 김 군은 청겨야 할 물품이 사무실로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귀엽둥이 모닝을 타이만 하는 상황이였다. 출발 시간이 늦고, 먼 길을 아담 사이즈 모닝으로 떠나려니 마음이 무거워졌다. 게다가 김 군의 옆자리에는 편집장님이 탑승. 첨승 대신 이문드와 뒷좌를 시료로 투척하여 빠른 행군을 중용했다. 이에 김 군이 T맵 비즈를 등에 업고 "난인 경차다"를 외치며 계속 주행한 결과 결국 무리한 외재 차를 일으키며 1위로 대령 받버하기도 되었다. MAXIM 편집부는 이것을 '모닝의 난'이라고 부르든지?

## <신기생전> 일력 선생님의 위험

심은하가 출연한 공포 드라마 <M> 이후 공중파에서 녹색 눈동자를 다시 만날 줄이야. 게다가 그 주인공이 <대조영>에서 중후한 연기를 선보였던 일력 선생님이라네 빙의3중 세트 장군. 야기. 할머리로 이어지는 멀티 귀신 연는 인도로 메트로 간 대분까지 잊게 만들 만큼 놀라운 경지이다. 그런 개똥 같은 대본을 보면 욕지거리부터 튀어나올까. 텐데 아들뻘 되는 배우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연기하는 걸 보면 진짜 프로란 이런 건가 싶다. 선생님의 연을 본 MAXIM 편집부 일력은 무릎을 꿇으며 '우리 아직 부족하다'라고 외쳤다.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MAXIM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러니 원고 독촉에도 굴하지 않는 것 부터 시작...

## 티아라의 대사는 누구인가?

'물리물리'로 흥하고 있는 티아라의 대사가 누구인가를 두고 편집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반면 이른바 디자인대는 '티아라의 존재 이유는 은정 때문이다'라며 '은정 유일론'을 즐기치게 주눅했고, 아내자의 육박을 가장 기민하게 캐치하는 유승민 에디터는 "난 실제로 행사장에서 티아라를 봤다. 은정은 다른 메들과 클래스가 다르다. 그 육박적인 하박자를 두고 이런 논쟁을 펼치는 건 무 의미하다"라며 힘을 보탤다. 반면도 민인지 않았다. 더러운 표정 인자 김성현 에디터는 "지연은 타고난 메인 김이다. 소녀시대에 윤이가 있다면 티아라에는 지연이 있다"라고 깃대를 세웠다. 2PM 트로장 보컬 존수를 좋아하는 고경희 에디터 역시 "지연이 제일 예쁘고, 춤도 제일 잘 춘다. 고경희 필요없다"는 말로 '지연 대세론'에 동참했다. MAXIM 독자의 의견은 어떤가? 물론 그저 "현아 짜증의 제일"을 외친 뜨거운 파이어볼 소우자 박한빛부터 에디터클럽 제3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두의 결론은 이거다. '티아라 최고!'



오페라 대사는 역시 나야??



하하하 가소롭다!

용돌! 나 득템했어! 에디터 김 군, 김나를 만나.



## 자기 반성

김TV의 마스크도 그녀를 만나 자신은 못 처한 에디터 김 군을 고발한다. 평소라면 더러운 표정으로 거칠게 그녀를 포옹했을 테지만, 그녀의 팬들이 단점들이 무시했던 그는 수줍음이 가득한 귀척 해는 표정을 내치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미안 그제 나야)



## 보정(?)을 향한 스태프 간의 치열한 안부

8월호엔 MAXIM 스태프들이 다양한 화보에 전격 출연한다. 그동안 MAXIM에서 어떤 사람이 일하는지 궁금했던 사람이라면 모델 이름들 유심히 체크할 것! 더러운 남자로 낙인 찍힌(?) 에디터 김 군이 궁금한 사람은 없었지? 사실 수작 따위 배경 정도로부터 생각지 않는 MAXIM0기에 보정 요청 지분 따윈 존재하지 않았고, 대신 화보에 출연한 여자 스태프의 사진 보정 의지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모델이 아닌 스태프에게 포토샵 바프 따윈 없었고, 덕분에(?) 모두를 생생한 사진 그대로 출연하게 되었다. 촬영을 담당할 포토그래퍼는 "타고난 몸이 좋아서 보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 말을 들었을 때, 물레 돈을 받고 살을 정리했었다는 루머가...

## Special thanks to

### 태양 현아

오페라 궁디 장만!

본지 태양의 길에 들어선 현아의 솔로 음반 타이틀곡 "바람 끝"이 편집부에 올라와 지면 수컷들이 앙양이를 싹틔우려기 시작한다. 음악 방송에 현아가 나올라 차전 보로로 보러 TV 앞에 달려가는 꼬꼬머처럼 TV 앞을 정령하고, "바람끝~우~"를 댕땡한다. 이제 노래만 들어도 눈앞에서 30 버전으로 똥을 핑기는 놀라운 경지에 올라섰다. 고경 마라에 지면 MAXIM을 위로해 준 현아에게 감사의 감사!

넣고-  
치고-  
뎌치고!

FX 채널  
찾고  
과월호 받기



남자들은 스포츠에 열광하고 비키니에 흥분한다!  
**2011 일본 섹시 스포츠 중계**

8월 3일(수) 밤12시 첫방송

# MAXIM

KOREA

## SPORTS

### 2011년 상반기 프로야구 결산

X나 빠른 스포츠  
병맛 헤어 축구선수  
미친 복근 만들기

## MUSIC

우쿨렐레 피크닉  
공중파 최고의 음악프로는?  
SEXY BOOMBOX

당신은 이미  
MAXIM을 사고 있다  
**호조 마키**

## STYLE

여름에도 남자는 구두  
간절기 컬러 점퍼  
겨말남의 데오도란트  
맥가이버類 시계

**WHO'S  
THAT GIRL?**  
뜨형의 소개팅녀

**ICON:  
BUMBLEBEE**

더 멋있어?

## MILITARY

주력 전차 K-1 & K-1A1

**THE  
MAXIM  
PARTY  
#2**

AUGUST 2011



www.maximkorea.net